

10월8일 Market Index			
↓ 코스피	↓ 코스닥	↑ 금리 (미국 9년)	↑ 환율 (원/달러)
6625.93 (-177.97)	892.27 (-6.16)	3.983 (+0.022)	1343.75 (+0.95)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전력 수요 AI 등 K-첨단산업 미래 혼돈다

⚡ 대체불가 K-에너지 ① 메가프로젝트 시대

반도체 산단 등 전력수요 급증
정부, 중장기 마스터플랜 마련 착수
발전설비 확충·송전망 구축 등 과제

인공지능(AI)과 반도체 등 첨단산업발 전력수요가 가파르게 증가하면서 국내 에너지 인프라 구축이 시험대에 올랐다. 이에 대응해 정부는 2040년까지 향후 15년간 중장기 마스터플랜 마련에 착수했다. 에너지 전환과 첨단산업 경쟁력 고도화를 위한 ‘대체불가 K-에너지 구축’ 프로젝트의 쟁점과 정책방향, 산업계 동향 등을 집중 조명한다. 〈편집자주〉

전남 광주 공군공항 부지에 들어설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팹(FAB) 4기와 협력기업이 모두 가동되면 이곳에서만 최대 전력수요 6.3GW(기가와트)가 필요하다. 대형 원자력발전소 6기가 24시간 돌아야 가감당할 수 있는 규모다. 정부와 한국전력은 신장성·신광주 345kV 송전망에서 산업단지까지 약 20~25km 구간에 공급선로를 새로 놓아 2029년까지 1단계로 3GW를 확보하고, 2단계로 누적 6GW 이상까지 공급 규모를 늘린다는 계획을 세



최태원(왼쪽) SK그룹 회장과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 지난 9일 전남광주 서구 벽진동 주변 광주군공항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예정지를 방문했다. /뉴시스

웠다. 문제는 이 숫자가 시작에 불과하다는 데 있다. 〈관련기사 4면〉

정부는 지난 6월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 국민보고회를 열고 반도체·피지컬AI·AI데이터센터(AIDC)3대 분야에 민관 합동 1400조원을 쏟겠다고 밝혔다. 용인·평택 클러스터의 수도권 메모리 생산능력을 5년 안에 두 배로 키우고, 서남권에는 800조원 규모의 제2 반도체 생산거점을, 충청권엔 HBM 첨단 패키징 거점을, 영남권엔 전력반도체 거점을 각각 육성한다는 구상이다.

여기에 AI데이터센터발 전력수요까지 겹친다. 국내 데이터센터 전력 수요는 3년 뒤 1.5GW를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기존 데이터센터가 10~25MW 수준을 썼다면 AI데이터센터는 100MW가 넘는 전

력을 상시로 요구한다. 전력망 입장에서 ‘간헐적 대형 수요’가 아니라 ‘상시적 초대형 수요’가 새로 생기는 셈이다.

지난해 2월 확정된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도 사실상 원전에서 재검토 된다. 정부의 3대 메가프로젝트 추진으로 국내 전력수요가 급증해서다. 12차 전기본 수립 총괄위원회는 지난 4월 2040년 최대전력수요를 131.8~138.2GW로 1차 전망했다가, 메가프로젝트 발표 이후인 8월 재전망에서 이를 158.4GW(기존 시나리오)~165GW(상향 시나리오)로 상향 조정했다. 4개월 새 추가된 수요는 약 27GW로, 원전 19기에 맞먹는 규모다.

〈2면에서 계속〉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metro[®]

社告

메트로경제 ‘2026 제약·바이오 포럼’

‘역노화’ 세상에 없던 혁신기술 조명

메트로경제와 메트로신문이 오는 10월21일 서울 중구 페럼타워 페럼홀에서 ‘2026 제약바이오포럼’을 개최합니다. 최근 글로벌 제약·바이오 및 헬스케어 시장은 ‘역노화 및 항노화(Reverse Aging & Anti-Aging)’를 차세대 핵심 성장 축으로 설정하고 빠른 변화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세계 첫 역노화 유전자 치료 임상 진입부터 비만·대사 질환 약물의 노화 지연 적응증 확장, mRNA 세포 재프로그래밍, 자기줄기세포 재생의료에 이르기까지 연구 분야가 급격히 다각화되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혁신 기술은 단순한 신약 개발을 넘어 바이오 뷰티, 디지털 헬스케어 기반 예방 의학, 맞춤형 웰니스 영역으로 빠르게 접목되며 산업 간 경계를 허물고 있습니다. 역노화 기술은 저속 노화를 넘어 글로벌 바이오 산업의 가장 뜨거운 격전지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세상에 없던 새로운 치료제로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고 있는 K-제약·바이오의 차세대 혁신 기술을 집중 조명합니다. 기존 치료제의 한계를 극복하고 치료 효과를 극대화하는 국내외 첨단 바이오 기술의 현재와 미래 가능성을 깊이 있게 논의할 예정입니다.

국내외 항노화·역노화 연구개발(R&D) 및 기술 상용화를 선도하는 최고의 전문가들이 함께하는 이번 포럼에 독자 여러분과 제약·바이오업계 관계자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바랍니다.

■ 행사명 : 2026 제약바이오포럼

■ 주 제 : 역노화 및 항노화(Reverse Aging & Anti-Aging)

■ 일 시 : 2026년 10월21일(수) 오후2~5시

■ 장 소 : 서울 중구 페럼타워 페럼홀

■ 주 최 : 메트로경제, 메트로신문

■ 문 의 : 2026 제약바이오 포럼 사무국 02)721-9818

■ 이메일 : forum@metroseoul.co.kr

고소득층 가구, 번 돈 절반 가까이 남긴다

보건사회연구원 소득·체감분배 연구하위 20%, 소득 지출 후 5% 미만 남다

소득 기준 상위 20%는 벌어들인 돈을 소비·공과금 등에 지출하고도 절반 가까이 남겼다. 반면 소득하위 20%의 경우 지출 후 남는 금액이 소득의 5% 미만인 것으로 조사됐다. 빈부격차 해소가 난항함을 보여주는 한 단면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국의 소득분배와 체감분배 간 괴리에 대한 연구’ 보고서를 최근 발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소득하위 20% 가구는 경상소득(근로·사업소득 등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의 95.6%를 소비 지출 및 비소비지출(세금·사회보장보험료 등)로 소진했다. 지출 뒤 남은 흑자액은 소득의 4.4%에 그쳤다.

이에 반해, 소득상위 20% 가구는 경상소득의 53.2%를 지출하고 46.8%를 남겼다. 소득 자체도 많지만 소득 가운데 저축·투자 등에 쓸 수 있는 비중도 저소득층에 비해 훨씬 컸다.

이러한 격차는 자산 축적 측면에서도

차이를 낳는다. 소득이 동일한 비율로 증가하더라도 투자·저축을 위한 절대치가 하위 가구의 여력에 크게 앞선다.

보유한 자산의 시세 변동폭 역시 격차 확대 요인으로 작용한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불평등에 관한 연구: 소득과 자산을 중심으로’ 보고서에서 부동산을 자산 불평등 확대의 핵심 요인으로 지목했다. 단순한 보유가 아닌 수도권에 주택을 보유했는지가 자산 격차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분석했다.

또 소득 대비 주택가격이 높은 상황에서 주택 수요가 늘면 주택가격과 가계부채가 서로 상승을 강화하는 흐름도 확인했다.

주식 역시 보유 여부 및 투자 규모에 따라 가격 상승에 따른 혜택이 각기 다르다. 소득과 자산의 분배는 장기적으로도 다른 방향으로 움직였다.

KDI는 소득 하위 75%의 소득 점유율이 확대되면서 소득 불평등이 완화된 반면, 자산은 상위 25%의 점유율이 높아지면서 불평등이 심화했다고 분석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metro[®]

☞ m-커버스토리

쏟아지는 주택공급계획… 실입주는 하세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용산 등 서울 10개 자치구 후보지 발표
2030년 착공 목표… 실입주 수년 전망

정부가 서울 도심에 약 1만8000가구를 추가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내놨지만 실제 공사는 4년 뒤야나 시작될 전망이다. 공공택지 조성기간을 대폭 줄이고 미착공 사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등 공급 속도전에 나섰다지만 신규 후보지 지정부터 실제 입주까지는 여전히 긴 시간이 필요해진다. 공급계획 발표가 이어지는 가운데 서울 주택시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입주 물량을 얼마나 빨리 늘릴 수 있을 자가 과제로 떠올랐다.

1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달 30일 발표한 ‘도심 공공주택 복

합사업’ 신규 후보지는 서울 10개 자치구 11곳, 총 1만7881가구다. 양천구 염창역 남측 4222가구, 용산구 효창공원 앞역 북측 4040가구, 강서구 화곡역 동측 2335가구 등이 포함됐다.

정부는 이달 주민설명회를 시작으로 내년 상반기 예정지구를 지정하고 2030년 하반기 착공한다는 목표다. 계획대로 진행되더라도 실제 입주까지는 6~7년 기다려야 한다. 후보지 선정부터 착공까지 약 4년, 준공까지는 추가로 수년이 걸리는 구조다.

도심복합사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이 사업을 주도해 조합설립과 관리처분계획 등의 절차를 생략하는 방식이다. 민간 정비사업보다 사업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도입됐지만 주민 동의와 보상, 사업계획 승인 등을

거쳐야 한다.

실제 지난 2021년 도입된 도심복합사업은 현재 전국 47곳에서 약 8만5000가구 규모로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첫 착공은 올해 말 예정된 인천 제물포역 복합지구다. 제도 도입 이후 첫 사업이 착공하기까지 약 5년이 걸린 셈이다.

공급계획과 실제 입주 물량 사이의 간극은 최근 주택통계에서도 나타난다. 올해 1~8월 서울 주택 인허가는 3만9940가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0.4% 증가했고 착공도 2만679가구로 41.1% 늘었다. 반면 준공은 2만5630가구로 19.1% 감소했다. 공급 선행지표가 개선되더라도 실제 완공물량이 늘어나는 데는 시간이 걸린다. 〈3면에서 계속〉

/이현진 기자 hj@



metro[®]

메트로 한줄뉴스

▲李대통령, 故박원순 악성댓글 일화 전하며 “방치하면 댓글창, 쓰레기장 돼”
▲靑 “이 대통령, 어제 태릉골프장 찾아… 현장서 대구 사고 보고 받고 총력 대응 지시”

▲윤호중 “임은정, 중수청 ‘정치하는 기관’으로 착각… 감찰 지시”
▲‘개청 70주년’ 서울교육청…특별전·포럼·특강 등 개최



▲‘계곡살인’ 이은해, 유족연금 1300만원 수령…환수액은 ‘0원’
▲수명 늘었지만… 일터 나가는 80대 절반 “노후 준비 전혀 못해”

/사진 뉴시스

달라진 외국인 관광객... 대량 구매 줄고 쇼핑 채널 다변화

1월~8월 방한 외국인 21.6% ↑
개별 관광객 중심 소비구조 변화
면세점, K-패션 등 상품군 확대

방한 외국인 관광객이 급증하고 있지만 국내 면세점의 매출 회복은 더디다. 외국인 면세점 구매객이 전년보다 40% 가까이 늘어난 반면 매출 증가율은 한 자릿수에 그쳤다.

11일 한국면세점협회에 따르면 방한 외국인 수가 크게 늘면서 면세점 외국인 고객 수의 증가했지만 핵심 고객층 변화와 원화 약세 장기화로 도리어 객단가가 크게 떨어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면세점 구매객 증가세는 방한 관광시장 회복과 맞물려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올해 1~8월 방한 외국인은 1504만8435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21.6% 증가했다. 같은 기간 외국인 관광 분야 카드 소비액도 14조180억원으로 48.5% 늘었다.

그러나 방한 외국인 수 증가에도 면세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 면세구역에서 승객들이 이동하고 있다. 역대 최고 수준의 방한 외국인 증가에도 오히려 객단가가 떨어지면서 면세업계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뉴스시스

업계는 수혜를 입지 못했다. 도리어 방한 외국인 수 대비 매출이 따라 오르지 못하면서 외국인 면세점 객단가도 올해 들어 빠르게 줄었다. 1월 방한 외국인 수는 126만5658명, 객단가 83만4699원이었으나 8월에는 224만5293명으로 77.40%로 폭증했는데 객단가는 도리어 57만863원으로 31.61% 감소했다. 지난해 8월 대비해서는 73만5520원에서 올해 8월 57만863원으로 22.39% 감소한 수치다. 반면 구매객은 같은 기간 94만2429명에서 138

만6530명으로 47.1% 증가했다.

이 같은 흐름은 면세점의 핵심 고객층이 달라진 영향으로 풀이된다. 과거 국내 면세점은 중국 단체관광객과 다이공의 대량 구매를 기반으로 성장했다. 다이공 비중이 축소되고 개별관광객이 늘면서 대량 구매 수요가 감소했다. 개별관광객은 면세점에서 명품과 화장품 등 대량 구매하기보다 백화점과 쇼핑몰, 로드숍 등 다양한 유통채널을 이용하는 경향이 있다.

여기에 상반기 원화 약세까지 겹치면

서 면세업계의 타격이 더 커졌다. 올해 1~8월 원·달러 환율 평균은 1463.24원에 달했다. 특히 5월 1500원대를 넘어선 월 평균 환율은 6월 1541원대까지 상승했다. 이 탓에 일정 시기에는 면세점 가격이 백화점 가격을 역전하면서 면세 쇼핑의 장점이 퇴색했다.

면세업계도 변화한 소비패턴에 맞춰 전략을 수정하고 있다. 과거 명품 할인과 단체관광객 유치에 집중했다면 최근에는 K패션과 K뷰티, 식품 등 상품군을 확대하고 개별관광객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롯데면세점은 최근 명동본점에 LF의 패션 브랜드 '헤지스' 단독 매장을 열고 정관장과 협업한 상품을 선보였다. 신세계면세점은 K뷰티 중심이던 상품 구성을 K푸드와 K패션, 신규 디자이너 브랜드 등으로 확대하고 있다. 현대면세점은 무역센터점에서 더마 뷰티 브랜드를 모은 K뷰티 편집숍 '스킨랩 서울'을 운영하고 있다.

/김서현 기자

seoh@metroseoul.co.kr



metro

>> 1면 '눈덩이처럼 불어...'서 계속

에너지믹스 등 정책 시험대

12차 전기본 정부안 확정도 늦어지고 있다. 신규 원전의 역할을 정하기 위한 원전 공론화위원회 속의과정이 당초보다 길어질 것으로 전망되면서다. 원전 공론화위원회는 시민참여단의 학습·숙의토론을 거쳐 12월께 정부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2040년까지 15년간의 전력 공급 밑그림을 그리는 이 계획은 새 정부 국정과제와 2035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 C), AI 경쟁력 강화라는 세 가지 변수를 모두 담아야 하는 난제를 안고 있다. 특히 2040년까지 석탄발전을 순차 폐지하기로 한 상황에서, 그 공백을 LNG 발전을 늘릴지, 원전과 재생에너지 확대 속도를 더 끌어올릴지를 둘러싼 논쟁이 12차 전기본의 핵심 쟁점으로 떠올라 있다.

발전설비를 아무리 늘려도 전력을 필요한 곳까지 보낼 송전망이 없으면 무용지물이다. 호남반도체클러스터의 경우처럼 새 산업단지는 대체로 기존 전력망이 촘촘하지 않은 지역에 들어선다. 기후부는 전력계통 여유가 부족한 지역에 대한 계통영향평가를 강화하는 동시에, 전력다소비시설의 지방 유치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손보고 있다. 한편으로는 신규 송전선로 건설과 계통 보강이라는 대규모 투자를 매가프로젝트 일정에 맞춰 따라야 하는 부담을 지게 됐다.

전력수요 증가 자체는 이제 변수가 아니라 상수에 가까워졌다. 남은 질문은 그 전력을 무엇으로, 어떻게 만들어 어디로 보낼 것인가다. 아울러 원전과 재생에너지를 둘러싼 에너지믹스 논쟁, 반도체 클러스터의 또 다른 뇌관인 '물' 문제도 이어진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스마트폰 제조사, 가격 인상·프리미엄 제품 확대 움직임

삼성 S27 시리즈 출고가 인상 검토
애플 LG전자 스마트홈 협력 논의

삼성전자와 애플이 스마트폰 사업에서 수익성과 수요 확보라는 과제에 직면했다. 삼성전자는 부품 원가 상승으로 적자 확대가 우려되고, 애플은 아이폰18 프로 시리즈의 수요 둔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양사는 가격 인상과 프리미엄 제품군 확대 등을 통해 돌파구를 모색하는 모습이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내년

출시 예정인 갤럭시 S27 시리즈의 출가를 당초 계획보다 10만원 이상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1일에는 갤럭시 S26 시리즈의 국내 출가를 출시 약 7개월 만에 인상했다. 256GB 기준 일반·플러스·울트라 모델의 가격은 각각 14만9600원 올랐다.

가격 인상 움직임은 스마트폰 사업의 수익성 악화와 맞물려 있다. 삼성전자의 모바일경험(MX)·네트워크 사업부는 지난 2분기 약 7000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

한 데 이어 3분기에도 1조원대 적자를 낸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신제품 판매는 호조를 보였다. 지난 8월 출시된 갤럭시 Z8 시리즈는 국내 사전판매에서 144만대를 기록하며 역대 갤럭시 스마트폰 최다 사전판매 기록을 세웠다.

애플은 아이폰18 프로 시리즈의 부품 주문 축소 보도가 나오면서 신제품 수요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지난 9일(현지시간) 닷케이아시아는 애플이 일부 협력사에 아이폰18 프로와 프로맥스용 부품 생산을 줄여달라고 요청했다고 보

도했다. 부품 주문 축소의 배경으로는 신제품 가격 인상이 거론된다.

이와 함께 애플은 프리미엄 제품군 확대와 사업 다각화에 나서고 있다. 첫 폴더블폰 '아이폰 듀오'를 선보이며 고가 스마트폰 시장 공략을 강화하는 동시에 스마트홈 분야로도 사업 영역을 넓히는 모습이다. 최근에는 LG전자와 스마트홈 기기 개발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차현정 기자 hyeon@



metro

2026
부산 북구 평생학습 도시 지정 10주년

평생학습 공연 · 초청 공연 · 체험부스 · 전시

제16회 부산북구

평생학습

페스티벌

10/24 토
10:00-17:00
대천천 화명1교
야외 무대 일원

부산광역시 북구

문의 051) 309-4162

부산 북구 학사로 128 부근 · 화명고등학교 후문 건너편

“후보지 정해도 착공은 먼 길”… 동의·보상·사업성 ‘변수’

주택공급 병목

정부와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실제 입주 물량을 늘리기까지는 넘어야 할 과제가 적지 않다. 신규 후보지를 확보하더라도 주민 동의와 인허가, 자금조달, 착공 등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공급계획의 규모보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연 요인을 해소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 **절차 줄인 도심복합사업도 착공까지 5년**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공공이 사업을 주도해 민간 정비사업의 조합설립과 관리분계획 등 일부 절차를 생략하는 방식이다. 사업기간을 줄이고 도심 내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2021년 도입됐다.

그러나 제도 도입 이후 실제 착공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국 47곳에서 약 8만5000가구 규모의 도심복합사업이 추진 중이지만 첫 착공은 올해 말 예정된 인천 제물포역 복합지구다.

도심복합 첫 삽까지 5년 걸려
서울 11곳도 추가 절차 더 남아
공공택지 조성기간 단축 추진

공사비 상승에 정비사업 지연 우려
LH 매입확약 등 지원책도 가동
기존 사업 정상화도 함께 추진해야

공공이 사업을 주도하더라도 주민 동의 확보는 필수다. 예정지구 지정 이후 토지 등 소유자 3분의 2 이상과 토지 면적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소유자의 동의를 확보해야 복합지구 지정이 가능하다.

보상 수준과 추가 부담금 등을 둘러싼 이해관계가 엇갈리면 사업 일정이 늦어질 수 있다. 이번에 발표된 서울 신규 후보지 11곳 역시 주민 의향률 30% 이상을 확보했지만 법정 동의요건을 충족하기까지는 추가 절차가 필요하다. 사업계획 승인 이후에도 보상과 이주, 철거를 거쳐야 한다. 후보지 선정이 곧바로 주택공급 확대나 착공을 의미하지 않는 이유다.

◆ **사업기간 단축… 입주 시점도 앞당**



정부가 지난달 30일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신규 후보지로 선정한 서울 서초구 방배동 822 일대에 후보지 선정을 알리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이 지역에는 총 918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이현진 기자

길까

정부는 도심복합사업과 별개로 공공택지 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연 요인을 해소하겠다는 입장이다.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8일 취임 후 첫 SNS 메시지에서 공공택지 조성 기간을 기존 68개월에서 37개월로 단축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토지 보상과 부지 조성, 착공 단계에서 발생하는 지연을 줄이겠다는 구상이다.

홍 장관은 “토지 보상과 부지 조성, 착공까지 단계마다 몇 달씩 멈춰 서는 경우가 많다”며 사업지구별로 지연 요인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택지 조성기간 단축이 실제 입주 시점을 같은 기간 만큼 앞당긴다는 의미는 아니다. 택지 조성과 주택 건설은 서로 다른 단계이며 사업별 인허가와 공사 일정도 고려해야 한다.

인허가를 받고도 착공하지 못한 사업에 대해서는 LH의 미분양 매입확약과 신축 매입약정 등을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분양 불확실성에 따른 사업자의 부담을 줄여 착공을 유도하려는 취지다.

박현근 LH 공공주택본부장은 “앞으로 주택공급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 공급 속도를 높이고, 주택시장 안정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자금조달과 사업성 문제가 해소되지 않으면 지원책만으로 사업을 정상화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부실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 역시 관리관계 정리와 사업구조 조정 등이 선행돼야 한다.

◆ **민간 정비사업은 공사비·사업성** 관련

서울시가 공급 확대의 주요 수단으로 추진하는 재개발·재건축도 사정은 비슷하다.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정비구역 지정 등 행정절차를 단축하더라도 조합설립과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인가, 이주·철거를 거쳐야 한다. 사업 과정에서 공사비가 상승하거나 조합원 간 이해관계가 충돌

하면 일정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공사비 상승은 조합원 추가 부담금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일반분양수입이 충분하지 않은 사업장은 사업성을 확보하기 어려워지고 시공사 선정이나 공사비 협상이 길어질 수 있다.

◆ **신규 후보지·기존 사업 병행해야**

서울의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선 신규 사업지 확보와 기존 사업의 추진 속도 개선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분석이다.

신규 후보지 지정은 중장기 공급 기반을 확충하는 효과가 있지만 단기간에 준공 물량을 늘리기는 어렵다. 반면 이미 인허가를 받았거나 착공을 앞둔 사업은 지연 요인을 해소할 경우 상대적으로 빠르게 공급으로 연결될 수 있다.

정부는 공공택지 조성기간 단축과 미착공 사업 지원을 추진하는 동시에 LH의 직접 시행을 확대할 계획이다. 신규 사업지 확보뿐 아니라 이미 추진 중인 사업의 착공을 앞당기는 것이 공급 확대의 주요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홍지선 국토부 장관도 자신의 SNS에서 “국민께서 기다리시는 것은 공급대책의 숫자가 아니라 실제로 입주할 수 있는 집”이라고 강조했다.

/이현진 기자

lhj@metroseoul.co.kr



metro

모두를 위한
기본교육
행복한
협력교육

“만3세 유아교육비 지원
서울이 먼저 시작합니다!”

만 3세

모두를 위한
기본교육,
한발 앞서는
서울교육

시작은 촘촘하게!
만3세 유아교육
선제지원으로 든든하게
끝까지!

서울시교육청 만3세 유아교육비 선제적 지원 안내

■ 지원기간
- 2026년 10월 교육비부터 ~

■ 지원항목 및 금액
- 공립유치원: 방과후 과정비 월 2만원
- 사립유치원: 교육과정비 월 11만원
- 어린이집: 기타필요경비 월 7만원

■ 지원대상
- 공·사립유치원(어린이집) 재원 중인 3세 유아 (2022.1.1.~2022.12.31. 출생)
- 취학 유예·조기 취원으로 3세 과정에 있는 상·하위 연령
※ 교육비 지원은 재원 중인 기관을 통해 진행할 예정입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3기 신도시 조성기간 31개월 줄인다

» 1면 ‘쏟아지는 주택공급…’서 계속

정부는 이러한 시간차를 줄이기 위해 사업 추진 과정의 지연 요인을 해소하겠다는 방침이다.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8일 취임 후 첫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메시지에서 공공택지 조성기간 단축과 미착공 사업 지원, 인허가 지연 해소를 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특히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 조성 기간을 기존 68개월에서 37개월로 줄이겠다고 밝혔다. 토지 보상과 부지 조성 등 단계별 지연 요인을 해소해 공급 속도를 높일 것이라는 구상이다. LH가 조성한 공공택지를 직접 시행해 2030년까지 최대 5만3000가구를 공급하

고, 인허가 이후 착공하지 못한 사업에는 미분양 매입확약 등도 지원하기로 했다.

다만 공공택지 조성기간을 단축하더라도 주택 건설에 필요한 기간까지 같은 폭으로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사업별 주민 동의와 보상, 자금조달 등이 원활하게 이뤄져야 착공 시점을 앞당길 수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최근 주택공급 관련 기자회견에서 “정비사업의 행정 절차를 단축하더라도 조합 내부 갈등 등으로 사업이 지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사업별 추진 속도에 차이가 있는 만큼 갈등 해소와 신속한 사업 추진이 중요하다는 취지다.

/이현진 기자

“李 임기 내 광주·전북서 ‘3대 메가 프로젝트’ 성과 낼 것”



인터뷰

안 호 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기 전까지 전북을 비롯한 지역에서 ‘3대 메가 프로젝트’의 성과를 내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였다. 기업 투자 계획에 맞춰 전력·용수 등 기반시설을 갖추고, 규제 개선과 예산 지원으로 국가 성장과 지역 균형발전의 동력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안호영 의원은 지난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한 〈메트로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재명 정부가 성공하려면 메가성장프로젝트가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며 “이 대통령이 임기를 마치기 전까지 광주·전북 등에서 어느 정도 성과를 내놓으면 국가적인 어려움을 해결하는 사업에 동력이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 3대 메가 프로젝트, 저성장·수도권 과밀 해소할 해법

민주당 메가성장특별위원회 전북 분과 책임의원인 안호영 의원은 3대 메가 프로젝트를 저성장과 수도권 과밀 현상을 해소할 해법으로 봤다. 반도체·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피지컬 AI 등 3대 메가 프로젝트를 연계해 육성하고, 이 과정에서 지역의 에너지 자원과 제조업 기반을 활용하겠다고 설명했다.

안 의원은 “반도체와 데이터센터, 피지컬 AI는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전체 AI 산업의 체계를 이루는 것”이라며 “그 밑에는 에너지와 용수가 필수”라고 강조했다.

안 의원이 제시한 방향은 ‘에너지 생산 지에 산업이 들어서는 구조’다. 재생에너지가 풍부해도 이를 소비할 기업이 부족하면 발전량을 충분히 활용하기 어렵고, 수도권으로 전기를 보내려면 송전망 확충

반도체·AIDC·피지컬AI 육성에
전북 재생에너지 자원 연계해야
산업 성장·주민 소득증대 도모

현대차 새만금 투자 ‘핵심 사업’
투자 일정 맞춰 전력 수요·공급
당·정부 등과 예산·규제 조정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기 전 전북을 비롯한 지역에서 ‘3대 메가 프로젝트’의 성과를 내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사진은 지난 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메트로경제신문〉과 인터뷰하는 안호영 의원. /최규춘 기자

과 지역 주민 간 갈등 해소라는 과제를 풀어야 한다는 분석이다.

안 의원은 전북이 풍부한 재생에너지 자원과 이를 산업 성장 및 지역 주민의 소득 증대로 연결할 임지를 함께 갖췄다는 점을 강점으로 꼽았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의 ‘2025 지역에너지통계연보’에 따르면 전북은 국내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의 약 16.7%를 생산하는 전국 1위의 재생에너지 발전기지다.

특히 안 의원은 새만금에 주목했다. 넓은 부지에 재생에너지 생산시설과 산업단지를 함께 조성하고, 이를 전북의 자동차·농기계 등 기존 제조업 기반과 연계할 수 있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태양광·서남권 해상풍력 자원과 새만금의 산업 입지를 결합해 전북에 기업 유치와 지역 협력업체의 성장을 이끌겠다는 구상이다.

◆ 당정 지원 모아 기업 투자 뒷받침... 대통령 임기 내 성과 창출에 주력

대통령 임기 내 성과를 낼 핵심 사업으로는 현대자동차의 새만금 투자를 꼽았다. 현대자동차그룹은 올해 2월 ‘새만금 로봇·수소 첨단산업 육성 및 AI 수소 시티 조성’을 위한 투자협약(MOU)’을 발표하

고 로봇, AI 및 에너지 솔루션 중심의 9조 원 투자를 발표한 바 있다.

안 의원은 “투자계획이 구체적이고 준비가 진행된 만큼, 당과 정부가 지원에 힘을 모으면 성과를 앞당길 수 있다”면서 “특히 현대차 투자가 전북의 그린수소 플랜트와 첨단로봇 파운드리(위탁생산) 육성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 현대차의 상용차 생산 기반과 수소·로봇 분야 역량에 주목했다. “자동차 부품과 기술의 활용 범위를 로봇 산업으로 넓히고, AIDC에 축적된 정보를 제조와 자율주행에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안 의원은 “이를 지역기업의 부품 공급과 공정 개선, 생산·유지관리 분야 수주로 연결해야 한다”고도 설명했다.

그린수소는 생산설비 확충과 함께 안정적인 수요를 확보해야 한다고 봤다. 산업·운송 분야의 활용처와 저장·운송 기반, 공급가격을 구체화해 사업성을 높이고 관련 부품기업의 투자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 기업 투자 속도 맞춰 전력망 확충... 공급 시점 구체화

발전시설을 늘려도 전력망이 제때 연결

되지 않으면 공장과 데이터센터 가동이 늦어질 수 있기에 관건은 투자 속도에 맞춘 전력 공급이다.

안 의원은 “3대 성장엔진의 투자 일정에 맞춰 전력 수요와 공급계획을 함께 세우는 것이 핵심”이라며 “당·정부·전북·한국전력과 협의해 시설 확충과 예산 확보, 인허가 관련 과제를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안 의원이 이끄는 민주당 메가성장특위 전북 분과는 그린수소 생산, 첨단로봇 제조시설과 데이터센터 가동, 농생명 바이오 연구·생산시설과 스마트농업의 전력 수요를 구분해 계획에 반영할 방침이다. 기업별 입지와 가동 시기, 필요 전력량을 송배전망 확충계획에 담아 추가 입주와 증설에 따른 수요까지 수용한다는 계획이다.

안 의원은 “이달 종합점검에서 현대차의 16개 요구사항을 비롯한 투자 관련 과제별 해결 방안과 담당 기관, 처리 시한을 구체화할 예정”이라며 “특히 전력 분야에서는 필요한 시설과 사업비, 공급 가능 시점을 명확히 제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전력 공급 방식으로는 태양광·풍력·원자력·액화천연가스(LNG) 등 여러 에너지원을 어떤 비중으로 조합해 사용할지

정하는 ‘에너지믹스’와 기업의 재생전력 조달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가 전력망으로 공장과 데이터센터 가동을 뒷받침하고, 전북의 재생에너지 발전 시설과 저장설비를 확충해 재생에너지 100%(RE100) 이행과 그린수소 생산을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그는 “현대차의 태양광 1.8기가와트(GW) 추진계획 가운데 0.9GW의 계통 접속은 확보됐으며, 나머지는 추가 협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장기 전력구매계약 등을 통해 조달 물량과 비용의 예측 가능성도 높였다고 했다.

아간에도 가동하는 데이터센터와 제조 시설은 전력망·저장설비·비상전원을 함께 갖춰야 한다고 봤다. 수전해 설비는 생산 목표와 경제성을 따져 재생전력 생산 상황에 맞춰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반도체 분야에서는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 지정 이후의 실행이 중요하다고 했다. 기업의 증설과 신규 입주를 지원하고, 연구시설에서 검증한 소재가 수요기업의 구매로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수도권과 서남권 생산거점의 공급망에 전북 기업의 참여를 늘리고, 정책금융 지원과 전문인력 양성도 병행해야 한다고 했다.

/대담=윤휘종 편집국장

정리=박태홍·박경수기자 pth72855@



metro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더불어민주당 메가성장특별위원회 전북 분과 책임의원 (現)

전라과/연대 법대 졸업

변호사(사법연수원 25기)

제20·21·22대 국회의원(3선)

전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장

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전 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위원장

제37회

화도진 축제

10. 16.(금)

어영대장축성행렬
교지하사식
국악비보잉
뮤지컬화도진
개막식 및 개막공연

10. 17.(토)

지역예술인공연
어린이댄스경연대회
구민노래자랑
폐막공연

화도진공원

출타기
국악공연
마술공연
역사퀴즈
역사토크콘서트

2026. 10. 16.(금) ~ 10. 17.(토)

동인천역북광장, 화도진공원 일원

KB금융그룹 | 국민의 평생 금융파트너

KB국민행복
희망 프로젝트

행복이란 건
누구에게나
닿아야 하잖아요?

KB국민행복 희망 프로젝트로 온 국민의 내일을 밝힙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국민 누구나
내일의 희망을 바라볼 수 있는
국민 행복시대

국민 누구나 행복에 가까이
KB국민은행이 함께 합니다

Korea Better
KB국민은행



국민의 오늘이 행복하게

KB마음가게 요식업 소상공인 경영지원 및 맞춤형 홍보
KB희망금융센터 신용상담·채무조정 및 심리상담 지원



청년들의 도전이 행복하게

KB굿잡 취업 박람회 청년 일자리 정보 제공 및 취업 지원
KB인재양성 전국 청년 AI 인재양성 프로그램



아이들의 내일이 행복하게

KB작은도서관 문화소외지역에 도서관 건립
KB온종일 돌봄 전국 아동 방과후·야간 돌봄 제공

KB국민행복 희망 프로젝트

국민과 함께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기 위해
금융의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KB금융그룹의 포용금융 프로젝트입니다.

※ 금융소비자는 해당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설명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상품(서비스) 계약 체결전 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KB국민은행 고객센터: 1588-9999, KB국민은행 홈페이지: www.kbstar.com ※ KB국민은행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6-0892호(2026.02.27.) 유효기간 2026.02.27.~2027.02.26.까지

집값 책임 공방에 중수청 인선… 2주차 국감 정국 달군다

수도권 감사서 부동산 정책 도마
오는 14일 중수청장 청문회 예정
여당 내부 검증 요구도 변수

국정감사 2주 차를 맞아 부동산 정책과 수사기관 개편을 둘러싼 여야 대립이 격화할 전망이다. 서울시·경기도 감사에 더해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중수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도 예정돼 정책·인사 검증이 함께 이뤄진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오는 12일 경찰청, 13일 경기도와 경기도·북부경찰청, 15일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을 대상으로 각각 감사를 진행한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추미애 경기지사가 잇따라 출석하면서 수도권 현안과 주요 정책을 놓고 공방이 예상된다.

경기도 감사에서는 김지용 후보자 인선에 반대해 온 추지사의 발언에 관심이 쏠린다. 추지사는 김 후보자 인선을 두고 이재명 대통령과 다른 입장을 드러내 왔다. 민주당 지도부가 공개적인 반발을 자제해 달라고 요청한 가운데 국감에서도 비판 기조를 이어갈지 주목된다.

14일 열리는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 청문회에서는 여당 내부의 검증 요구도 변수다. 민주당은 대통령의 인사권을 존



2026년도 국정감사 시작일인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근에 마련된 피감기관 대기실에 관계자들이 국정감사 준비를 하고 있다. /뉴스시

중하되 후보자의 자질을 검증한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중수청의 인력·시설 부족과 인사청문 요청 지연을 문제 삼아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의 책임까지 따질 방침이다.

15일로 예정된 서울시 감사의 핵심 쟁점은 주택 공급과 집값 상승의 책임 소재다. 민주당은 공급 부족을 오시장의 시정과 연결해 정책 실효성을 따질 것으로 보인다. 반면 국민의힘과 오시장은 전임 시정과 중앙정부의 규제가 공급을 위축시켰다는 논리로 맞설 전망이다. 재개발·재건축을 통한 공급 확대 방안도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부동산 정책은 경제 분야 감사에서도

주요 의제로 다뤄진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12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감사에서는 공공주택 공급 실적과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검증 대상에 오른다.

이성훈 LH 사장의 15억원 이하 주택에 대한 대출 규제 강화 발언을 놓고도 질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이 사장은 지난달 30일 경기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현장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15억원 이하 아파트를 살 때 6억원까지 대출해 주는데 4억원까지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날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한 국은행 감사에서는 집값·가계부채 억제와 내수 부진·이자 부담 완화 사이에서 통화정책의 방향을 둘러싼 논쟁이 예상된다.

취임 후 처음 국감에 출석하는 신현송 한은 총재를 상대로 지난 7월과 8월 기준 금리를 각각 0.25%포인트씩 인상해 연 3.00%로 조정한 배경과 향후 금리 방향에 대한 질의가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확장재정과 통화정책이 조화를 이루고 있는지도 점검 대상이다.

한편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가 13일 진행하는 국세청 감사에서는 체납액 징수 강화의 성과와 세무조사 제도 개편, 과세 공정성 문제가 다뤄질 전망이다.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국민연금공단 감사에서는 자산 비중 재조정을 미룬 경위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관련 논란이 쟁점으로 꼽힌다.

야당은 꾸준히 공단 기금이 추가 부양에 동원됐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여야는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증인 채택을 놓고도 여야가 이견을 보이고 있다.

아울러 미국 현지에서 12일(현지시간) 진행되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주미한 국대사관 감사에서는 한미 관계가 주요 의제로 다뤄진다. 정청래 민주당 의원의 미국 비자 발급 지연 문제까지 맞물리면서 한미동맹을 둘러싼 공방이 예상된다.

정 의원은 지난 9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비자 발급이 거부된 것이 아니라 심사가 진행 중인 상태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야당이 이를 문제 삼는 것은 한미동맹과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반면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함께 신청한 다른 외통위 감사위원들은 비자를 발급받았다는 점을 들어 “비자 발급 거절이라고 해석해도 무난한 것 아니냐”고 반박했다.

이어 공무상 방미인데도 출국 예정일 직전까지 비자가 나오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민주당 측 주장을 “아전인수(我田引水)격 해석”이라고 비판했다.

/박경수 기자

gws0325@metroseoul.co.kr



metro

지지율 내리막 與 김민석호… 민심 회복 과제 국힘, 여당 악재에도 지지율 ‘제자리’

민주당, 李 정부 출범 이후 최저치
여권 갈등·인사 실패 등 원인 꼽혀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로 김민석 당 대표가 선출된 지 두 달 가까이 됐지만, 정당 지지율 하락세를 막지 못하고 전하고 있다. 김 대표가 인사 참사, 당 내부 갈등 등으로 흐트러진 당의 전열을 정비하는 동시에 구체적인 성과로 민심을 회복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인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 대표는 지난 전당대회 과정에서 ‘취임 100일 내 당 지지율 10%포인트(P) 상승’을 공약했지만, 지금 추세라면 공약 달성에 의문부호가 붙는다.

여론조사 업체 한국갤럽이 지난 8월 18~20일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을 통해 전국 만 18세 이상 1004명을 대상으로 한 정당 지지도 조사(이동통신 3사 제공 무선전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경기도 안성시 미양면 한 들녘에서 콤바인을 운전하며 벼베기 작업을 하고 있다. /뉴스시

화 가상번호 무작위 추출 방식, 표본오차 ±3.1%포인트에 95% 신뢰수준, 응답률 10.0%)에 따르면 응답자들이 지지하는 정당은 더불어민주당 41%, 국민의힘 25%, 무당층이 26%였다.

반면, 한국갤럽이 지난 6일부터 8일 전

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정당 지지도 조사(표본오차 ±3.1%포인트, 95% 신뢰수준, 응답률 9.7%)에서는 민주당 35%, 국민의힘 26%, 무당층 31%로 같은 조사에서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정치권에선 전당대회 이후 민주당의 지지율이 좀처럼 상승하지 못하는 이유를 여권 내 갈등에 있다고 본다. 전당대회는 이재명 정부 초대 국무총리였던 김민석 대표와 당 대표 연임을 노리는 정청래 전 대표 간의 이른바 ‘명청대전’으로 치러졌고, 선거운동 과정에서 두 후보간 네거티브 설전이 극에 달했다. 민주당 내부 두 진영 내 갈등이 여권의 최대 숙원이었던 ‘검찰개혁’을 둘러싸고도 이어지면서 지지층 결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가 나왔다.

/박태홍 기자 pth7285@

지지 정당 없는 무당층보다 낮아
장동혁 대표 리더십 시험대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하락세지만,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반사이익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 당청이 부동산 정책, 경제 문제, 인사 정책 등에서 고전하고 검찰개혁을 두고 당내 갈등이 지속되는데도, 국민의힘은 야당의 무대인 국정감사 국면에서도 지지율이 좀처럼 상승세를 타지 못하고 있어서다. 여당이 계속 내홍을 겪는다면 국민의힘 지지율 반등도 시간 문제라는 분석이 있는 반면, 장동혁 지도부의 행보가 원인이라는 진단이 나온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최근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은 ‘지지 정당 없음’ 무당(無黨)층보다 낮은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갤럽의 최근 6개월 정당 지지도를 살펴보면 국민의힘은 4월 2주에 20%였던 지지율이 6·3 지방선거 직후인 6월 2주에 29%까지 상승했다가 이후 20%대에 머물렀다. 그리고 9월 1주에 30%를 기록했다가 10월 2주에 26%까지 하락했다. 같은 기간 무당층 비율은 25%에서 6월 지선 이후 21%로 하락했다가 최근 10월 2주에 31%까지 상승했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함께 조사하는 전국지표조사(NBS) 역시 비슷한 모양새다. 국민의힘의 4월 2주차 지지율은 18%였다가 4월 4주에 15%까지 떨어졌다. 그리고 지방선거 이후인 6월 2주에 25%까지 상승했다가 소폭 회복을 거듭하며 10월 1주에 25%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무당층은 25%(4월 2주차)에서 31%(10월 1주차)까지 약간 등락이 있었지만, 국민의힘 지지율은 넘어섰다.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이 대통령과 민

주당 지지율이 지방선거 이후 반등 계기를 찾지 못하는 가운데, 국민의힘도 좀처럼 뚜렷한 지지율 상승세를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지방선거 이후 부동산 불안,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논란, 외교안보 이슈,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출범,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등 여당에 불리한 이슈가 불거질 때마다 대여 공세를 펼치고 있지만, 이것이 지지율 상승으로 이어지는 것은 썩다. 민주당 지지율이 지방선거 이후 하락세임을 감안하면, 이 대통령과 민주당에서 이탈한 이들이 국민의힘 지지로 돌아서지 않고 ‘중도·무당층’으로 머무르고 있다고 풀이할 수 있다.

국민의힘은 그간 단순히 네거티브 위주의 공세를 펼친 것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부동산, 청년, 민생 등 정책 면에서 대안정당의 면모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행보가 계속되면 국민의힘 지지율도 조만간 반등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최근 국민의힘이 정부의 농지 전수조사에 문제를 제기한 결과, 이 대통령이 지난 8일 포괄적·점진적 한태평양동반자협정(CPTPP)의 연내 가입을 신청하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하거나, 정부가 농지 전수조사에서 고령·산속농의 관행적 불법 임대차·휴경 등이 드러나도 투기성이 없으면 처분 조치를 하지 않는 방침을 발표한 것 모두 성과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일각에선 국민의힘이 반사이익을 얻지 못하는 건 강성 우파 행보를 계속하는 장동혁 대표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강성 우파를 본인의 지지 기반으로 만들기 위해 장외 집회나 올림픽공원 시위 등에 집중하는 모습으로 인해 합리적인 보수 정당이라는 이미지를 구축하지 못한다는 의미다.

/서예진 기자 syj@

李 대통령, ‘큰 자리 요구’ 與 강경파 직격

비서실장·법무장관 인선 장고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후임 인선을 두고 이재명 대통령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법무부 장관직은 여전히 공석이다. 지난 2일 문을 연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 수장은 범여권 내 강경파들의 반대로 이재가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이 대통령이 “능력도 안 되면서 큰 자리를 요구한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내 주목을 받고 있다.

11일 청와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지난 8일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전후한 내부분열

양상을 분석한 조희연 전 서울시 교육감의 언론 기고문을 공유하며 “순수한 급진성도 문제겠지만, 능력도 안 되면서 큰 자리를 요구하고 인사나 국가정책까지 자기 뜻대로 하려다가 잘 안되니 대의명분 삼아 급진 개혁을 내세우며 내부 공격을 하는 것이 더 문제”라고 언급했다.

여권에선 이 대통령의 발언을 검찰개혁 과정에서 진영 내 강경파들이 반발한 것을 겨냥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최근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 인선을 두고 공개적으로 반대 목소리를 낸 데 대한 경고라는 해석이다. 그러나 이 대통령의 발언이 김 후보자 반대 여론만을 의식한 게 아

니라는 분석도 있다.

현재 이 대통령은 강훈식 실장의 후임을 정하지 않았다. 강 실장이 사의를 표명한 지 3주가 지났지만 여전히 장고를 거듭하고 있는 것이다. 청와대 인콰에서 거론되는 인물들이 있으나, 이 대통령 스타일상 의사소통이 원활하면서도 중량감 있고, 능력까지 갖춰야 해서 최적의 후보를 찾기 힘들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거기에 당내 계파 역시도 고려해야 한다.

법무부 장관 역시 마찬가지다.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쳤음에도 김승원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사퇴한 이후, 이 대통령은 아직 법무부 장관을 지명하지 않았다. 이 역시 여권 내 검찰개혁 강경파의 반응이나 당내 계파 간 복잡한 역학 관계 등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다.

/서예진 기자

KT 네트워크 기술이 대한민국의 안전을 연결합니다

화려한 불꽃이 번지는 서울 밤하늘
많은 사람이 모인 만큼 안전이 더욱 중요한 순간,
그 곳에 KT가 있습니다.

하나의 네트워크를 분할해
독립적인 가상 통신망을 제공하는
KT의 '5G SA 네트워크 슬라이싱' 기술로

100만여 명의 인파 속에서도
현장의 안전요원들은 긴급 통신을 안정적으로 이용하고
무선 CCTV 영상까지 끊김 없이 확인합니다.

안전이 필요한 곳
KT 네트워크 기술이 함께합니다.

KT는 '26년 9월 5일 서울 세계 불꽃 축제에서 '5G SA(Standalone) 네트워크 슬라이싱' 기술로 무선 CCTV 및 긴급 통신 단말 전용망을 구현했습니다.

사진 제공: (주)한화

AX Platform Company **kt**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 vs “과세 인프라 부족… 유예 필요”

〈정부〉

〈가상자산 업계〉



가상자산 제도화 현주소

② 소득과세 갑론을박

정부, 내년부터 가상자산 과세
연간 최대 250만원 소득 면세

가상자산업계, 시기상조 지적
“산업 경쟁력 약화될 수 있어”

내년 초부터 도입되는 가상자산 소득과세를 놓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라는 원칙과 가상자산 소득에 과세 중인 미국·영국·일본 등 주요국 사례를 들어 가상자산 과세를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 하지만 업계에선 과세 인프라 부족과 다른 투자자산과의 과세 형평성 등을 이유로 추가적인 시행 유예나 법안 폐기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 정부, 유예없이 과세 방침

과세당국은 내년 1월 1일부터 가상자산 소득에 세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가상자산 과세는 당초 2022년 시행을 목표로 했으나 과세 인프라 부족을 이유로 시행을 미뤘었는데, 이미 세 차례의 유예가 있었던 만큼 추가 유예 없이 과세에 돌입한다는 방침이다.

이런 과세는 지난 2024년 12월 제정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근거했다. 가상자산 양도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수입의 22%(20%+지방세 2%)를 과세하며, 소득 산정 시에는 총수입에서 필요경비(취득가액+부대비용)을 공제한다. 또한 연간 최대 250만원의 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을 면세한다.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지난달 15일 인사청문회에서 “(가상자산 과세는) 이미 시간을 상당히 미뤄놓았다. 지금 과세를 시작해도 시장에 미치는 충격은 크지 않을 것”이라며 “통계에 따르면 전체 투자자의 85%는 500만원 미만의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다. 연간 공제액이 250만원인 만큼, 투자자 대부분의 부담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 해외 과세 본격화… 시점·기준 상이
해외 주요국에서는 국내보다 앞서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를 본격화했다. 다만 과세 대상 소득과 과세 시점, 과세 기준 소득은 국가별로 상이하다.

미국에서는 지난 2014년부터 가상자산 관련 소득에 과세를 시행 중이다. 보유 기간이 1년 이하인 가상자산의 매매 차익은 종합소득세 산정 시 포함해 소득 구간에 따라 10~37%의 종합소득세율을 적용하며, 1년 이상 보유한 가상자산의 매매 차익에는 소득 구간에 따라 0~23.8%(고소득자 대상 순투자소득세 3.8% 포함)의 장기자본이득세를 부과한다. 단, 소액 증여에는 과세하지 않는다.

일본에서는 지난 2017년부터 가상자산 관련 소득을 한국의 ‘기타소득’과 유사한 ‘잡소득’으로 분류하고, 소득 규모에 따라 최대 55%의 세금을 부과해 왔다. 다만 일본 내에서 과도한 세율이 산업 경쟁력을 낮추는 지적이 이어졌던 만큼, 최근에는 일본 내 거래소에서 발생하는 차익에 한해 세율 상한을 20%로 낮추는 법안이 통

〈해외 주요국 가상자산 과세 현황〉

국가	가상자산의 성격	취득	양도차익	세율
미국	자산	개인소득세	통상소득/자본이득 (종합과세/분류과세)	·1년 미만 단기보유시 소득에 따라 10~37% 과세 ·1년 이상 장기보유시 0%(4만 달러 이하), 15%(4만달러 이상 44만 1,450달러 이하), 20%(44만 1,450달러 초과) 과세
영국	자산	개인소득세	자본이득 (분류과세)	·기본세율 범위 10% ·기본세율초과 범위 20%
독일	자산	개인소득세	기타소득 (종합과세)	·개인의 소득에 따라 0~45% 과세
일본	재산적 가치가 존재하는 지불수단	잡소득세	잡소득 (종합과세)	·개인의 소득에 따라 15~55%(주민세 포함) 과세
호주	자산	개인소득세	자본이득 (종합과세)	·개인의 소득에 따라 0~45% 과세
싱가포르	자산	개인소득세	과세하지 않음	

/자본시장연구원

과세 시행을 앞뒀다.

영국은 가상자산을 투자자산으로 분류해 가상자산의 매도나 교환, 사용이 발생하면 취득 시점의 가격과 비교해 차익의 18~24%만큼 세금을 부과한다. 독일, 호주 등에서도 가상자산 관련 소득에 과세 중이나 기준은 상이하다.

가상자산 데이터 분석업체 체이널리시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가상자산 시장의 활동 규모는 약 14조8000억원(109억달러)을 기록했다. 세계에서 11번째로 큰 규모다. 가상자산 거래에 활용된 통화별 점유율에서는 원화가 미국 달러, 일본 엔에 이어 3위를 차지했다.

◆ 업계 반발… 조세 형평성 지적도

업계에서는 가상자산 과세의 추가 유예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충분한 과세 인프라가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세금을 부과하면 국내 가상자산 산업의 경쟁력이 약화할 수 있다는 것.

내년 초 시행이 예정된 가상자산 과세안은 최초 취득가액과 부대비용, 매도 시

점의 차익을 과세 기준으로 한다. 해외 거래소를 경유하는 경우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되지만, 거래 경로 포착이 어려운 탈중앙화거래소(DEX)를 거치는 경우 정확한 취득가액을 산정하기 어렵다. 투자자가 직접 취득가액과 손익을 신고하는 방식을 고려한다면, 국내 투자자들이 조세 부담을 피해 해외 거래소로 이동할 가능성이 크다.

가상자산 전문 리서치 기업 타이거리서치가 지난달 국내 가상자산 투자자 24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64.2%는 가상자산 조세가 시행되면 개인지갑을 활용한 탈중앙화거래소나 개인 간 거래 이용을 확대하겠다고 응답했다. 타이거리서치는 현행안대로 과세가 시행되면 업비트·빗썸·코인원 등 거래량 상위 3개 거래소에서 30%의 거래대금이 이탈할 것으로 추산했다.

연간 손실액의 이월 공제에 대한 부분도 주요한 쟁점이다. 해외 주요국들은 가상자산 매매 시 손실액의 이월 공제를 하

용한다. 한 해 동안 가상자산 운용 과정에서 손실이 발생했다면, 다음해의 이득에서 손실액 만큼 추가 공제한다. 가상자산의 장기 보유에 유리한 구조다.

반면 내년 초 시행이 예정된 가상자산 과세안은 손실액을 이월하는 내용을 포함하지 않았다. 투자자들이 연간 이익과의 상계를 위해 손실이 발생한 가상자산을 연말에 집중적으로 매도하면 시장 가격에 왜곡이 발생할 수 있으며, 개인 투자자들이 단기 매매를 선호하게 되는 만큼 가격 변동성도 커진다.

금투세 폐지에 따른 투자자산 간의 형평성 문제도 거론된다. 가상자산과 함께 과세가 논의됐던 주식·채권·펀드 등 금융투자 소득에 대한 ‘금융투자소득세’는 지난 2024년 12월부로 폐지됐는데, 가상자산 관련 소득에만 세금을 매기는 것은 조세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안승진 기자

asj1231@metroseoul.co.kr



metro

수출 절반 차지한 반도체… 물가·금리 변수 부상

월간 반도체 수출 600억달러 돌파
소득·소비 늘고 내구재 가격 상승

수출의 절반에 육박한 반도체 호황이 한국은행의 물가 관리에도 변수로 떠올랐다. 글로벌 인공지능(AI) 투자 확대 속에서 신현송 한은 총재는 수출 호황이 소득과 소비를 늘리는 효과와 국내 가격을 자극하는 영향을 함께 살펴야 하는 상황이다.

11일 산업통상부의 ‘9월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반도체 수출은 603억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262.8% 증가했다. 사상 처음으로 월간 600억달러를 넘었다. 전체 수출 1209억4000만달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9.9%에 달했다.

호황의 물가 파급은 한은의 진단에서 확인된다. 이지호 한은 부총재보는 지난 2일 물가상향점검회의에서 “반도체 가격 상승의 영향으로 전자제품 등 내구재 가격도 오름폭이 확대됐다”고 평가했다. 반도체 가격 상승이 국내 소비자가 구입하는 제품 가격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는 설명이다.

반도체 호황에 따른 소득 개선과 내수 회복은 한은의 금리 결정에도 이미 반영됐다. 한은은 지난 8월 27일 기준금리를 2.75%에서 3.00%로 인상했다. 신 총재는 당시 반도체 경기 호조와 소득 여건 개선으로 견조한 성장세가 이어지고, 근원물가가 내년까지 높은 수준을 유지하면서 물가 오름세가 더 확산되고 오래 지속될



반도체 산업 호황이 물가에 중요한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Chat GPT 생성 이미지

가능성이 커졌다고 설명했다.

같은 달 수정 경제전망에서는 올해와 내년 성장률을 각각 3.3%, 2.9%로 전망했다. 기초적 물가 흐름을 보여주는 근원물가 상승률 전망도 두 해 모두 2.5%로 높였다. 반도체 수출과 투자 확대가 소득 증가와 소비 회복으로 이어지면서 수요측 물가 압력도 예상보다 커질 것이라는 판단을 반영했다.

지난달 소비자물가와 근원물가 상승률은 각각 2.9%, 2.8%로 전월보다 낮아졌다. 다만 한은은 전월의 통신요금 관련 일시적 기저효과가 사라진 점을 고려하면 물가 오름세는 다소 확대됐다고 평가했다. 근원 품목의 오름세가 이어지면서 10월 소비자물가 상승률도 3% 내외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했다.

해외에서도 AI 투자는 물가를 자극하는 요인으로 지목됐다. 지난 7일 공개된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의 9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의사록에서 참석자들은 원유·정제유 가격을 높은 지정학적 상황과 AI 관련 투자 급증이 물가 압력에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일부 참석자는 AI 인프라 확충으로 중기적으로 경제 전체의 수요가 공급을 앞서면서 물가를 밀어 올릴 가능성도 지적했다.

AI의 생산성·공급 능력 개선 효과와 긴축 속도에는 불확실성이 남아 있다. 연준 참석자들은 향후 생산성 증가를 기대하면서도 효과의 규모와 시점은 불확실하다고 봤다.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이사도 지난 8일 경제지표가 예상대로 나온다면 추가 금리 인상을 예상한다면서도, 인상이 반드시 연속된 회의에서 이뤄질 필요는 없다고 밝혔다.

이들 진단을 종합하면 한은의 추가 긴축 판단에서는 반도체 호황의 가격·소득 효과가 얼마나 지속되는지가 중요해진다. 내구재 가격 오름폭이 계속 확대되는지와 수출 호조로 개선된 소득 여건이 소비 회복을 얼마나 뒷받침하는지를 함께 살펴야 한다.

신 총재는 지난 8월 간담회에서 견조한 성장세와 목표 수준을 웃도는 물가 흐름을 설명하며 “앞으로 입수되는 데이터를 보면서 추가 인상의 시기와 속도 등을 결정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주형 기자 gh471@

DB손보, 2030년 배당성향 50% ‘승부수’

‘계약유지·자본 여력관리’ 성패 전망

DB손해보험의 배당 확대 계획은 계약유지와 자본 여력 관리가 성패를 가를 전망이다. 2030년 별도 배당성향 50% 목표를 제시했지만, 계획 발표 전 상반기 유실은 화차별로 엇갈렸다. 배당가능이익 증가에도 할인율 변동이 영향을 미쳐 신계약 수익성 개선에 따른 성과로만 보기는 어렵다.

1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DB손보가 공개한 기업가치 제고 계획의 2030년 배당성향(전체 순이익에서 배당이 차지하는 비율) 목표는 연결 40%·별도 50%이다. 현금배당만을 대상으로 한다. 별도 목표는 지난해 실제 배당성향 30%보다 20%포인트(p) 높다.

DB손보는 두 목표를 동시에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연결·별도 목표 차이는 해외 자회사 포테그라의 배당을 확보하는 시차를 고려했다는 설명이다.

상반기 경영공시에 따르면 장기보험 25회차 유실율은 75.71%로 전년 동기보다 2.41%p 높아졌다. 반면 49회차는 52.72%로 7.35%p 낮아졌다. 공시된 7개 회차 중 5개가 개선됐지만 49·73회차는 하락해 화차별 흐름이 엇갈렸다. 화차별로 가입 시기가 다른 계약을 대상으로 산출한 수치이며, 8월 말 새 계획을 발표하기 전의 지표다.

DB손보는 공식 질의응답(Q&A)에서

적정 신계약 관리를 과도한 사업비와 고위험 담보, 기존 계약을 해지하고 새 계약에 가입하는 승환계약 등을 동반한 무리한 외형 성장을 자제하는 전략으로 설명했다. CSM과 자금수지, 배당가능이익이 함께 개선되는 성장점을 찾겠다는 방침이다. 가입 후 유지서비스와 갱신 관리 강화도 실행 방안에 담겼다.

◆ 배당 재원 늘었지만, 추가 환원은 별도 조건

6월 말 별도 배당가능이익은 약 2조 5000억원으로 전년 말보다 약 6000억원 증가했다. DB손보는 지난 8월 13일 실적 설명회 Q&A에서 증가 배경으로 할인율 변동을 제시했다. 새 계획 발표 전에 확보된 배당 여력인 데다 금리 요인도 반영된 만큼, 이를 새 성장전략의 실행 성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

6월 말 K-ICS 지급여력비율은 204.37%였다. 내부 안전선으로 제시한 180%를 웃도는 수준이다. 배당 여력의 내부 안전선은 DCR 200%로 정했다.

2030년 배당성향 목표와 별개로 추가 주주환원은 K-ICS 220%와 DCR 400%를 모두 초과할 때 검토한다. 반대로 K-ICS가 150% 미만이거나 DCR이 100% 미만이면 주주환원 수준 조정을 검토한다. 6월 말 K-ICS는 내부 안전선을 웃돌지만, 추가 환원 검토 기준에는 못 미친 수준이다.

/김주형 기자

“전기차 넘어 로봇까지”… 완성차 미래기술 경쟁 불붙는다

18일까지 프랑스 파리서 모터쇼
현대차·기아 전략 신차 대거 공개
中 브랜드 20여곳 참가 공세 확대
르노·벤츠 등 유럽업체도 맞붙
EU 전기차 등록 전년比 40.5% ↑

유럽 최대 자동차 전시회인 ‘파리 모터쇼 2026’이 12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개막한다. 유럽 전기차 시장이 성장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현대자동차·기아와 중국 완성차 업체들이 전동화 모델과 친환경차 라인업을 앞세워 현지 시장 공략에 나선다. 전기차뿐 아니라 하이브리드차와 소프트웨어, 로봇틱스 등 미래 모빌리티 기술 경쟁도 본격화할 전망이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파리 모터쇼는 12일(현지시간)부터 18일까지 파리 엑스포 베르사유 전시장 일대에서 열린다. 100개 이상의 업체가 참가하는 이번 행사에는 유럽 주요 브랜드와 한국·중국 완성차 업체들이 대거 참여해 신차와 미래 기술을 선보인다.

유럽 시장은 전동화 전환의 핵심 격전지로 부상하고 있다. 유럽자동차공업협회(ACEA)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유럽연합(EU)의 순수전기차 신규 등록은 122만



현대차 아이오닉 6 N 주행 모습.

890대로 전년 동기보다 40.5% 증가하며 수요가 확산되는 모습이다.

현대차는 12일 프레스 콘퍼런스에서 유럽 고객을 겨냥한 신차를 공개한다. 소형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과 주요 차종의 파생 모델을 선보이고, 브랜드 최초의 순수 전기 경상용차(eLCV)도 공개할 예정이다. 고성능 전기차 아이오닉 6 N과 차세대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플레오스 커넥트’, 착용형 로봇 ‘엑스블 솔더’ 등을 통해 전동화와 소프트웨어, 로봇틱스를 아우르는 기술 경쟁력도 강조한다.

기아는 유럽 전략형 전기차 EV2와 고

성능 GT 모델을 중심으로 전동화 경쟁력을 알린다. 셀토스와 K4 등도 전시해 전기차와 하이브리드차를 아우르는 제품군을 소개한다. 전동화 모델 확대와 함께 다양한 차급을 공략해 유럽 소비자 선택지를 넓힌다는 전략이다.

중국 업체들의 공세도 거세다. BYD와 장안자동차, 샤오펑, 지커, 체리자동차 등은 대규모 전시 공간을 마련해 유럽 시장 내 브랜드 인지도와 판매 기반 확대에 나선다. 이번 행사에는 중국 브랜드 약 20곳이 참가해 2024년보다 존재감을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중국 업체들은 가격



기아 디올 뉴 셀토스.

경쟁력을 앞세운 전기차뿐 아니라 하이브리드 모델 라인업도 강화하면서 유럽 업체들과의 경쟁에 나설 방침이다.

유럽 완성차 업체들도 안방 사수를 위해 신차 공세에 나선다. 프랑스 대표 완성차 업체인 르노는 전동화 모델과 콘셉트 카를 중심으로 미래 전략을 제시한다. 르노는 2030년까지 신차 26종을 출시하고 연간 판매량 200만대 이상을 달성한다는 목표다. 메르세데스-벤츠와 볼보도 모터쇼에 복귀해 신차와 기술을 선보인다.

스텔란티스는 이번 모터쇼에서 가장 큰 규모인 5340㎡의 전시 공간을 마련하고 8

개 브랜드, 60대 이상의 차량을 선보인다. 푸조와 시트로엥, 피아트, 오펜, 알파로메오, DS오토모빌, 란치아, 립모터 등이 참가하며 총 9종의 콘셉트카를 공개할 예정이다.

완성차 업계 관계자는 “유럽의 전기차 시장 성장과 중국 업체의 유럽 진출 확대가 맞물리면서 가격 경쟁력과 제품 다양성, 기술 차별화가 시장 주도권을 가를 핵심 요소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metro

“주인의식·선택과 집중으로 100년 한화 준비”

김승연 회장, 창립 74주년 메시지
AI 기반 기술 경쟁력 확보 주문
안전 경영도 핵심 과제로 강조

“냉혹한 현실을 직시하고 정면 대응해야 100년 200년 한화가 가능합니다.”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창립 74주년을 맞아 주인의식과 선택과 집중, 도전정신을 미래 리더십 확보를 위한 핵심 가치로 제시했다. 지정학적 불확실성과 급변하는 산업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인공지능(AI) 기반 기술 경쟁력을 강화해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김 회장은 지난 9일 임직원에게 전한 창립기념사에서 “낙관주의는 결코 설 자리가 없다”며 “끊임없는 지정학적 분쟁, 급격한 국내의 산업환경 변화 등 냉혹한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많은 난관을 뚫고 나갈 경로를 확보하고 정면 대응해야 100년, 200년 한화를 준비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화약에서 출발한 한화가 기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과 김동관 수석부회장이 지난 9월 22일 경북 구미에 위치한 한화시스템 구미사업장을 찾아 천군 다기능레이다 시험장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한화그룹

계·석유화학·금융·서비스·에너지·방산·해양을 거쳐 우주항공까지 사업 영역을 확장해 왔다고 평가했다. 이어 올해 자산총액 기준 재계 5위로 도약한 만큼 각 사업 분야에서 미래를 창조하는 리더로 자리매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를 위한 핵심 과제로는 주인의식과 선택과 집중, 도전정신을 꼽았다. 김 회장은 사업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책임을 회피하지 않고 앞장서 해결책을 찾는 리더

십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김 회장은 복잡해지는 국제 경제와 경쟁·협력 구도 속에서 정확한 목표를 설정하고 역량을 집중하는 동시에 전략적 유연성과 강력한 추진력을 갖추야 한다고 주문했다.

AI 기반 기술 경쟁력 확보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김 회장은 방산과 해양 등에서 한계에 도전해 온 ‘한화 DNA’를 강조하며 “영속적 리더가 되기 위한 AI 기반의 기술 경쟁력 확보 역시 어떤 경우에도 절대로 꺾이지 않는 도전정신으로만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주항공의 근간인 국방 AI 역량은 물론 금융·기계·서비스 분야에서도 AI 기술을 확보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김 회장은 안전 경영도 강조했다. 김 회장은 “큰 성과는 안전에서 출발하고 안전이 확보되지 않은 미래는 없다”며 “어떠한 가치도 안전과 생명에 앞설 순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임직원과 가족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일터를 만드는 것이 리더의 기본 자질이자 중점 과제라고 덧붙였다.

/양성운 기자 ysw@



LG전자가 지난 8일(현지시간) LG 시그니처 미국 진출 10주년을 맞아 뉴욕 구겐하임 미술관에서 기념 갈라쇼를 열고, 라인업 확대와 고객 접점 강화를 통해 북미 프리미엄·빌트인 가전 시장 공략을 본격화했다. (왼쪽)정연관 LG전자 미국HS영업담당장이 관람객에게 LG 시그니처 냉장고를 설명하고 있다. /LG전자

LG 시그니처, 10주년 맞아 美판매 점진 확대

주방가전 보강해 제품군 10종 구성
AI 기능 강화·일반 매장까지 진열

LG전자가 프리미엄 가전 브랜드 ‘LG 시그니처’의 미국 진출 10주년을 맞아 제품 라인업과 유통망 확대에 나선다. 주방가전 제품군을 늘리고 인공지능(AI) 기반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판매 채널을 다변화해 북미 프리미엄 가전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낸다는 전략이다.

LG전자는 지난 8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구겐하임 미술관에서 LG 시그니처 출시 10주년 기념 갈라쇼 ‘당신의 시그니처는 무엇인가요?(What’s Your Signature?)’를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광도영 LG전자 북미지역대표 부사장을 비롯해 문화예술계 인사와 미디어, 인플루언서 등이 참석했다. 행사장에는 LG 시그니처 신제품이 전시됐으며 쇼콜라티에 아모리 귀송의 초콜릿쇼와 가수 존 메이어의 공연도 진행됐다.

LG전자는 올해 오브레인지·월오브·후드·쿡탑 등 주방가전을 확대해 LG 시그니처 제품군을 총 10개로 늘렸다. 디자인도 ▲메탈 소재에 골드 라인을 더한 ‘아이코닉’ ▲다양한 색상을 적용한 ‘테일러드’ ▲가구 라인에 밀착되는 빌트인 스타일의 ‘심리스’ 등 3가지로 세분화했다.

판매 전략에도 변화를 준다. 기존 플래그십 매장 중심의 진열 방식에서 벗어나 주요 유통 거래선의 일반 매장까지 신제품 진열을 확대해 고객 접점을 넓힐 계획이다.

LG전자는 앞서 지난 2월 미국 올랜도에서 열린 북미 최대 주방·욕실 전시회 ‘KBIS 2026’에서도 3가지 디자인 컬렉션과 AI 기능을 강화한 주방가전 신제품을 공개한 바 있다. 이번에는 유통망 확대까지 더해 북미 프리미엄 가전 시장 공략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AI 기반 제품 경쟁력도 강화했다. ‘고메 AI’ 기능을 탑재한 오브레인지 내부 카메라로 식재료를 인식해 최적의 레시피를 추천하고 굽기 정도에 따라 알람을 제공한다.

제품 성능도 현지에서 인정받았다. 최근 미국 소비자매체 컨슈머리포트가 선정한 ‘2026년 최고의 세탁기·건조기 세트 15선’에 LG 시그니처 제품이 포함됐다. 특히 시그니처 세탁기(WM9900HSA)는 100여개 평가 제품 가운데 최고 평점인 87점을 기록했다.

광도영 LG전자 북미지역대표 부사장은 “앞으로도 공간의 품격을 높이는 디자인에 AI 기반의 편의성까지 더한 프리미엄 라인업을 앞세워 북미 고객들에게 차원이 다른 경험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차현정 기자 hyeon@

현대차, 인도 누적 판매 1000만대 ‘눈앞’

올 3분기까지 누적 988만4960대
SUV 비중 70% 육박하며 성장 견인

현대자동차가 인도 진출 30여년 만에 누적 판매 1000만대 돌파를 앞두고 있다. 현지 소비자 수요에 맞춘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라인업과 생산 기반 확대가 성장을 이끈 가운데 인도 증시 상장을 계기로 미래 성장동력 확보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11일 인도자동차공업협회(SIAM)에 따르면 현대차는 1998년 인도 첸나이 공장

에서 쌍트로를 생산하며 판매를 시작한 이후 올해 3분기까지 누적 988만4960대를 판매했다. 현재 추세를 고려하면 연내 누적 판매 1000만대 달성이 예상된다.

현대차는 2007년 누적 판매 100만대, 2017년 500만대를 돌파하며 성장세를 이어나왔다. 초기에는 쌍트رو와 i10, i20 등 경·소형차를 앞세웠으며, 2015년 현지 전략형 SUV 크레타를 출시하면서 성장에 속도가 붙었다. 이후 베누와 알카자르, 엑스터 등을 잇달아 선보이며 현지 고객층을 넓혔다.

SUV는 현대차 인도 사업의 핵심 성장축으로 자리 잡았다. 지난해 SUV 판매는 39만8937대로 전체 판매의 70%에 육박했다. 올해 3분기까지도 SUV가 31만6026대 팔리며 전체 판매를 견인했다. 현대차는 2024년 인도에서 60만5433대를 판매해 현지 진출 이후 연간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현대차는 판매 확대에 맞춰 생산능력과 투자도 늘리고 있다. 현대차는 현재 인도에서 첸나이 1·2공장과 푸네공장을 합쳐 연간 약 100만대의 생산능력을 확보했으며, 푸네공장은 2030년까지 생산능력을 32만대로 확대할 계획이다.

/양성운 기자

창업 5년 이내 AI 스타트업 세무조사 면제… 中소는 2년 유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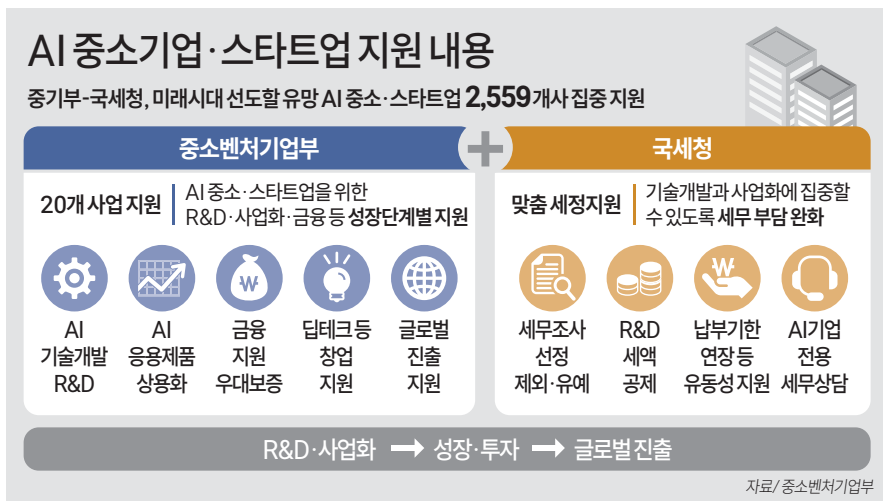
중기부-국세청, 2559개 기업 지원
기술개발, 글로벌 진출 과정서
필요한 정책·세정지원 기반 마련

창업 5년 이내 AI 스타트업은 정기 세무조사를 면제한다. AI 관련 중소기업은 신청시 정기세무조사를 2년간(지방 중소기업은 3년) 유예받을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국세청과 손잡고 인공지능(AI) 관련 중소기업, 스타트업 2559개사를 집중 지원한다고 11일 밝혔다.

중기부 지원사업에 국세청의 세정지원을 연계해 기업들의 성장을 돕기 위해서다. 중기부에 따르면 두 기관은 지난해 12월 'AI 중소기업 성장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후속 조치로 AI 중소·스타트업 집중 연계 지원을 본격화한다.

중기부가 AI 분야에서 성장 가능성이 높은 중소·스타트업을 발굴하고 기술개발(R&D)·사업화·금융·창업·글로벌 진출 등



을 지원하면 국세청이 해당 기업에 세정 지원을 연계하는 부처 협업 모델이다.

중기부는 올해 AI 모델·서비스 개발과 AI 기술의 산업현장 적용 등을 지원하기 위해 20개 사업을 통해 AI 중소·스타트업을 지원하고 해당 기업 명단을 국세청과 공유했다. 지원사업에는 관련 R&D 뿐만 아니라 AI 응용제품 상용화, AI·AX(인

공지능 전환) 우대보증, AI 기반 스마트 공장, 딥테크 창업지원 등 기업의 성장단계별 사업이 폭넓게 포함된다.

국세청은 중기부가 지원한 기업을 토대로 세정지원 대상을 확정하고 ▲세무검증 최소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 심사 및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우선 처리 ▲납부기한 연장·환급금 조기 지급 등

유동성 지원 ▲AI 기업 전용 세무상담 등을 제공한다.

이와 함께 명백한 탈루 혐의가 없는 경우 신고내용 확인 대상에서도 제외하는 등 기업이 기술개발과 사업화에 보다 집중할 수 있도록 세무검증 부담을 완화한다.

AI 스타트업은 기술개발 초기부터 우수 인재 확보와 데이터·컴퓨팅 인프라 구축 등에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다. 하지만 안정적인 매출과 수익을 확보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다. 이에 따라 양 기관은 정부 지원사업을 통해 성장 가능성을 인정받은 AI 기업이 기술개발과 시장진출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중기부의 산업·기업 지원과 국세청의 세정지원을 연계하기로 했다. 기업 입장에서 개별 기관의 지원을 각각 받는 것을 넘어 기술개발(R&D)·사업화 → 성장·투자 → 글로벌 진출 과정에서 필요한 정책지원과 세정지원을 함께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이소영 중기부 장관은 “AI 산업의 경쟁력은 혁신적인 기술과 아이디어를 가진 스타트업이 얼마나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느냐에 달려 있다”면서 “이번 협업을 통해 중기부의 기술개발(R&D)·사업화·금융·글로벌 진출 지원과 국세청의 세정지원이 유기적으로 연결돼 유망 AI 중소·스타트업이 기술개발과 성장에 더욱 집중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AI 중소·스타트업은 기술혁신과 미래 성장동력 창출을 이끌 핵심 기업인 만큼 성장 과정에서 겪는 세무상 어려움을 줄여 기업이 연구개발과 사업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중기부와 긴밀하게 협력해 AI 기업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세정지원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소노인터내셔널, 트리니티와 ‘숙박 시너지’

인니, 일본 등 해외 호텔·리조트 확대
트리니티항공 취항지와 접점 형성
가격경쟁 속 항공·숙박 연계 ‘주목’

소노인터내셔널이 해외 호텔·리조트 사업을 잇따라 확대하면서 계열사인 트리니티항공 취항지와의 사업 접점이 뚜렷해지고 있다. 저비용항공사(LCC) 간 운임 경쟁이 심화하는 가운데 양사가 추진해온 항공·숙박 연계가 차별화 전략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소노인터내셔널은 최근 인도네시아 발리의 ‘어웨이 발리 레기안 카마킬라’를 ‘소노벨 발리 레기안’으로 리브랜딩해 공식 개장했다. 인도네시아에 소노 브랜드를 처음 선보인 것으로, 트리니티항공이 운항 중인 청주~발리 노선과도 접점을 갖는다.

소노인터내셔널은 지난 7월 일본 ‘소노문 나고야’도 개장했다. 트리니티항공은

오는 12월 18일부터 인천~나고야 노선을 매일 운항할 예정이다.

지난해 10월에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호텔·리조트 운영사 ‘크로스 호텔앤리조트’의 태국·인도네시아 법인 자본 100%를 인수해 방콕·치앙마이·파타야·발리 등 15개 사업장, 1507개 객실을 확보했다. 오는 2029년까지 10곳을 추가할 계획이다. 이들 지역은 트리니티항공의 방콕·치앙마이·발리 등 주요 취항지와 겹친다. 소노인터내셔널이 지난 2024년 인수한 프랑스 파리 ‘호텔 담 데 자르’도 트리니티항공의 인천~파리 노선과 접점을 형성하고 있다.

현재 양사의 연계 이벤트는 국내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해외 항공권과 계열 호텔 숙박 혜택을 직접 연계한 상품이나 이벤트는 아직 없다.

항공·숙박 연계가 주목되는 배경에는 LCC 업계의 치열한 운임 경쟁이 있다. 미래에셋증권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국제선

단위당 운임은 전년 동기 대비 제주항공 13.5%, 진에어 15.8%, 에어부산 19.9% 각각 하락했다. 대한항공도 5.8% 떨어졌다.

고유가에 따른 유류비와 항공기 임차료, 장거리 노선 확대를 위한 항공기 도입·정비·인력 확충 비용도 수익성에 부담을 주고 있다. 올해 3분기에도 증권가 전망치 기준 335억원의 영업손실이 예상된다.

이런 상황에서 항공·숙박 연계는 가격 할인에 의존한 고객 유치 경쟁에서 벗어나 운임 방어와 수익성 개선을 모색할 수 있는 전략으로 꼽힌다. 실제 지난 9월 구글 항공편 검색 기준 트리니티항공의 인천~파리 왕복 이코노미석 운임은 132만 7400원으로, 대한항공(215만 6000원)보다 약 38% 낮았다. 트리니티항공은 서비스 수준을 높이고 연료 효율이 개선된 기체를 도입해 장거리 노선의 편당 수익성을 높이는 전략도 추진하고 있다.

/유혜은 기자 dhalehdale@

중진공, 중소 제조AI 강사·실무인력 양성

오늘부터 교육 과정 참여자 모집
중소 제조기업 AI 전환 뒷받침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중소 제조현장의 인공지능(AI)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제조AI 강사육성 과정’과 ‘제조AI 실무과정’을 신설하고 12일부터 참여자를 모집한다. 모든 과정은 무료다.

11일 중진공에 따르면 ‘제조AI 강사육성 과정’은 AI·디지털 전환(DX) 분야 강사와 제조 현장 전문가를 각각 제조AI 전문 강사로 양성하는 두 개 교육 과정으로 나눠 운영한다.

‘AI·DX 전문가 제조AI 강사 전환 과정’(11월 16일)은 제조 경험이 부족한 AI·DX 분야 강사를 대상으로 제조AI 사례 기반의 제조데이터 분석·해석 실습을 제

공한다. ‘제조 현장 전문가 제조AI 강사 전환 과정’(11월 18일)은 AI 적용 경험이 부족한 제조 현장 전문가를 대상으로 현장 문제를 데이터와 연계해 AI 적용 과제를 발굴하고 실제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는 문제 해결 중심 교육이다.

‘제조AI 실무과정’은 중소기업 재직자를 대상으로 두 개 교육과정을 실습 중심으로 운영한다.

중진공은 지난해 ‘생성형 AI 활용 업무 혁신 클래스’를 신설한 데 이어 이번에는 AI 교육을 제조 분야로 확대하고 운영 성과를 반영해 2027년 정규과정으로 편성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제조AI 전문 강사와 현장형 AI 실무인력을 함께 양성해 중소 제조기업의 AI 전환을 뒷받침할 예정이다.

/김승호 기자

철강업계, 가격 인상에도 3분기 실적 개선 ‘기대 이하’

비용부담 지속에 가격인상 효과 상쇄
포스코 철강 판매량, 전년비 1.6% ↑
현대제철 판매량, 400만톤으로 줄어

국내 철강업계가 하반기 제품 가격 인상에 나서면서 3분기 수익성이 전분기보다 개선될 전망이다. 다만 원재료비 부담이 이어지고 판매량과 비용 구조 등이 엇갈리면서 개선 폭은 당초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포스코와 현대제철 간 회복 속도에도 차이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11일 상상인증권에 따르면 포스코 국내 철강 부문의 3분기 영업이익은 3398억원, 현대제철은 798억원으로 추산됐다. 전분기 대비 각각 55.1%, 38.2% 증가한 수준이다. 다만 지난 8~9월 증권가 전망치인 4300억원, 1156억원보다 각각 20% 안팎, 30% 이상 낮다. 전년 동기와 비교하면 현대제철은 932억원보다 14.4% 감소하고, 포스코도 별도 영업이익 5850억원을 밑돌

전망이다.

양사는 상반기 높아진 원가를 제품 가격에 충분히 전가하지 못해 하반기 판가 인상에 나섰지만 3분기에도 원재료비 등 비용 부담이 이어지며 가격 인상 효과를 일부 상쇄했다는 평가다.

여기에 판매량 차이가 양사의 실적 개선폭을 갈랐다는 분석이다. 포스코는 4분기 대보수를 앞두고 생산·판매량을 늘리면서 판가와 물량이 동시에 개선됐다. 하나증권은 3분기 탄소강 평균판매가격(ASP)을 톤당 98만 9000원으로 추정했다. 전분기보다 2.8% 상승한 수준이다. 철강 판매량도 849만 3600톤으로 1.6%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반면 현대제철은 판매량이 예상보다 크게 줄었다. 3분기 판매량은 약 400만톤으로 지난 8월 전망치 424만톤보다 20만톤 이상 적다. 판재류는 275만톤으로 전분기 대비 10.4%, 봉형강류는 125만톤으로 9.

0% 감소할 전망이다. 판재류는 현대차의 지난 8월 전면 과업으로 약 5만대의 생산 차질이 발생한 데다 중국산 철강재 유입 등 복합적인 영향을 받았고, 봉형강은 여름철 비수기와 건설경기 침체의 영향을 받았다는 지적이다.

비용 구조도 변수다. 이재운 산업연구원은 현대제철이 비용 측면에서도 상대적으로 불리하다며 전력비와 탄소배출권을 부담 요인으로 꼽았다. 이 연구원은 “현대제철이 기존에 확보한 탄소배출권 물량이 상대적으로 빠르게 소진된 것으로 안다”며 “보유 물량의 여유가 타이트해진 상황”이라고 말했다.

4분기 현대제철은 판매량 회복과 자동차강판·후판 가격 인상분의 온기 반영으로 수익성 개선 폭이 커질 전망이다. 3분기 원화 강세가 시차를 두고 원가에 반영되면서 원료 투입단가도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유혜은 기자



대동모빌리티는 이달 초 대구 성서산단 내 ‘대동모빌리티 슈퍼스테이션’을 열었다. 개소식에서(왼쪽부터)성서 산업단지관리공단 정연주 본부장, 한국산업단지공단 운영수 대구지역본부장, 대구시 지형제 기후에너지환경국장, 대동모빌리티 박경준 모빌리티사업본부장, 대구테크노파크 백광훈 본부장, 이슬루션 권진근 대표, KT 류재성 대구지역지사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대동모빌리티

대구서 에너지 자급형 전기 스쿠터 운영

대동모빌리티, 국내 첫 시범 운영

대동모빌리티가 대구에서 국내 최초로 에너지 자급형 전기 스쿠터 공유 서비스를 시범 운영한다.

11일 대동모빌리티에 따르면 대구 성서 산업단지에서 2031년까지 특정 지역 내 단거리 이동 수요에 최적화한 공유 모빌리티 사업 모델 실증에 나선다.

전기 스쿠터는 태양광 발전 설비로 배터리를 충전해 환경친화적이다.

이번 실증은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지원해 성서산단의 에너지

자립과 저탄소 전환을 추진하는 총사업비 312억원 규모의 ‘대구성서 에너지자급자족형 인프라 구축 및 운영사업’ 일환이다.

대동모빌리티는 친환경 모빌리티 분야를 맡아 전기 스쿠터 공급부터 배터리 교환 인프라, 공유 플랫폼 구축 및 서비스 운영까지 담당한다.

대동모빌리티는 유동 인구가 많은 실제 생활권을 테스트베드로 활용해 에너지 자급형 전기 스쿠터 공유 서비스의 이용 패턴과 운영 효율을 검증하고 특정 생활권에 적합한 모빌리티 운영 방식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김승호 기자

6시간 야외활동 후, 피부는 달라집니다.

보이지 않는 보호, 더 우아한 선크어
골프, 여행 등 야외 활동을 위한 초슬림 투명 UV패치



세계 100대 골프 코스,
엄격한 제품 선별 기준의
해슬리 나인브릿지에
국내 유일 입점

UV-A 98% / UV-B 99% 차단

광대까지 커버되는
88mm × 60mm 대형 패치

접착제 없이 편안한 밀착

자외선 차단 + 피부 보습 케어



Anano Inc. | 070-7773-9931 |



- 가양역_메가팜스 가양 / 서울특별시 강서구 가양동 금부빌딩 3층
- 을지로입구_명동퍼스트약국 /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길14 눈스퀘어 1층 (T.02-3789-7277)
- 명동역_Hello K Beauty / WYNN (Currency Exchange, ATM, LUggage)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6길 6, 원스환전소 2-3층

- 양재역_메디피아 약국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242, 크리스탈빌딩 1층 (T.02-3463-1547)
- 신논현역_비비 약국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476, urbanhive 지하 2층 (T.02-542-8559)
- 해슬리 나인브릿지 / 경기도 여주시 명품1로 76 (T.031-887-9999)
- 제주 나인브릿지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안덕면 광평로 34-156 (T.064-793-9999)

해외는 위성 동맹 뭉치는데… 한국은 저궤도 경쟁 ‘뒷걸음’

스페이스X, 모바일 진출 기반 마련
유럽·日 등 해외 통신사 합종연횡
한국은 해외 위성망 판매에 그쳐

저궤도 위성 통신 서비스 확보를 위해 해외 통신사들이 직접 연합 전선을 구축하는 등 대응에 나서고 있다. 반면 국내 기업은 정부 주도의 사업 진척이 더뎠다. 국제 경쟁력을 상실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1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스페이스X는 최근 위성통신 스타링크의 저궤도 주파수(800MHz)를 현지 투자사로부터 인수했다. 정부 당국의 승인이 마무리 되면, 기지국 없이도 저궤도 위성에서 쏘는 신호를 통해 미국 전역에서 통신 서비스가 가능해진다. 글로벌 통신 인프라 독점에 한발짝 다가간 셈이다.

현재 전 세계의 저궤도 위성 시장 경쟁은 스페이스X의 독점에 대항하는 구도다. 올해 10월 기준 저궤도에서 작동 중인



글로벌 통신사들이 연합 전선을 구축하며 저궤도 위성통신 경쟁에 나서고 있다. /KT SAT

1만5800기 중 1만1100기가 스타링크로 알려졌다. 이는 전체 활성 위성 중 약 67%에 달하는 규모다.

중국 정부는 비지상망 위성 사업 '위

왕-첸판' 프로젝트를 2024년 시작했지만, 현재까지 운영하는 위성은 약 460기에 그친다. 유럽연합(EU)은 아이리스2 프로젝트를, 일본 총무성은 J-LEO를 가동 중으

로, 아직까지 쏘아올린 위성은 없다.

이에 해외 통신사들은 직접 연합 전선 구축에 나선 상황이다. 미국 대표 통신사인 AT&T·T모바일·버라이즌은 이달 스타링크를 견제할 라이벌 기업들을 포섭하기 위해 위성통신 합작 법인을 출범했다.

일본 통신사 라쿠텐은 미국의 AST 스페이스모바일 설립 초기부터 기술 동맹을 맺고 현지에서 700MHz 저궤도 주파수를 공급 중이다. 유럽의 유텔셋 원웹의 경우 650기의 저궤도 위성을 직접 운영해 국방 등 공공 시장을 선점했다.

반면, 국내 기업의 독자망 구축은 상대적으로 더뎠다. 주도권 상실이 우려된다. 현재 KT SAT(셋)과 SK텔링크 등 국내 기업이 스타링크와 원웹 등의 서비스 판매권을 국내로 들여와 수익 모델로 활용하는 정도다. 또한 통신 3사 중 국내 위성통신 사업자는 KT의 완전 자회사인 KT 셋이 유일하지만, 저궤도 보다 고도가 높은 정지궤도 위성만을 운영한다.

이에 정부가 핵심 자원 선점 등 글로벌 시장 변화에 빠르게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 사업의 민간 서비스 운용 총괄을 맡은 KT 셋은 최근 공식 석상에서 정부가 위성체 개발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국제기구에 궤도·주파수 사용 권리를 선제적으로 확보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현재 과기정통부는 2035년까지 저궤도 위성 512기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K-LEO'를 출범하고 민관협력의 한국형 저궤도 위성통신망 구축 사업을 추진 중이다.

국내 6세대 이동통신(6G) 상용화는 안정적인 저궤도 위성 인프라 구축에 달려 있다. 지상망과 비지상망(NTN) 간 초저지연 연결이 핵심인 6G 시대에는 저궤도 위성 확보가 필수다. 통신 3사는 2030년 상용화를 목표로 위성 전송 효율을 높이는 기술 시연과 국제 표준화 기구에 참여해 기술 개발을 추진 중이다.

msjo@metroseoul.co.kr



metro

AI로 빨라진 해킹… 금융권 보안 사각지대 ‘비상’

오늘 AI

금융사 7곳, 6.8만건 개인정보 유출
정부, 내년 AI 분야 약 9.4조 투자
“안전성 검증·보안 역량 강화” 목소리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사이버 공격이 국내 금융권을 겨냥하면서 정부의 보안 대응 체계가 시험대에 올랐다. 정부가 내년 AI 분야에 9조4000억원을 투입하기로 한 가운데 기술 경쟁력 확보뿐 아니라 고도화하는 해킹에 대응할 보안 역량 강화도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11일 보안업계와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최근 국내 금융사들을 겨냥한 연쇄 해킹에서 AI 기반 자동화 공격 도구가 활용된 정황이 드러났다. 공격자들은 핵심 금융 거래 시스템보다 상대적으로 관리가 취약한 대출모집인 시스템과 영업지원 플랫폼 등을 집중 공격한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 8일 국회 정부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금융사 7곳에서 약 6만8000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는 지적도 나왔다.



AI가 만든 이미지.

정부도 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6일 국무회의에서 일부 해킹에 AI가 활용된 정황을 언급하며 신속한 경위 파악과 피해 최소화를 지시했다. 특히 사고 발생 이후 수습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공격을 사전에 탐지하고 차단하는 보안 역량 확보를 강조했다.

금융당국은 금융권 보안 점검과 함께 AI 보안 기술 활용을 확대하기 위한 망분리 규제 완화도 추진하고 있다. 기존 규제

를 제한하면서 공격 기술과 방어 역량 사이의 격차를 키울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이다.

◆AI가 공격 속도 증폭…보안 사각지대 집중 공략

SK윌더스가 최근 공개한 침해사고 분석 자료에 따르면 공격자들은 AI 침투 테스트 도구 '아르텍스'에 딥시크 등 AI 모델을 결합해 취약점 탐색과 공격 과정을 자동화한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보안 조직의 관리에서 누락되거나 점점 우선순위에 밀린 '새도 IT'가 주요 공격 대상으로 지목됐다. AI가 새로운 해킹 기법을 만들어냈다기보다 기존 공격의 속도와 규모를 증폭시켰다는 설명이다.

국내 민간 정보통신 환경에서도 취약점이 다수 확인됐다. 국회에 제출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자료에 따르면 민간 주요 정보통신 기반시설과 상용 소프트웨어, 오픈소스에서 총 523건의 보안 취약점이 발견됐다.

주요 정보통신 기반시설 16곳에서 304건, 상용 소프트웨어 5곳에서 135건, 오픈

소스 144종에서 84건이 각각 확인됐다.

◆정부 AI 투자 확대…보안 역량 확보 관련

정부는 2027년 AI 분야에 약 9조400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독자 AI 모델 개발과 컴퓨팅 인프라 확보 등에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가운데 AI 안전성 검증과 사이버 보안 역량을 함께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내년 AI안전연구소 관련 예산은 약 159억원으로 올해보다 늘었지만, 실제 AI 모델 평가와 위협 대응 등을 위한 비연구개발 예산 증가는 1.7%에 그쳤다. 다만 AI 모델의 안전성 평가와 금융권 사이버 보안은 구분되는 영역인 만큼 관련 투자의 실효성을 종합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

민간에서도 AI 방어 기술 확보에 속도를 내고 있다. SK텔레콤과 엽스테이지, SK윌더스, 인텔 등은 대학과 함께 독자 AI 사이버 보안 협의체를 출범시키고 취약점 분석과 실시간 보안관제 기술 개발에 나섰다.

/최빛나 기자 vitna@

LGU+

기지국 접속 기록으로
산악지역 조난자 찾는다

기존 방식보다 수색 범위 99% 축소

LG유플러스가 통신 정보를 활용해 긴급구조 지원에 나선다.

LG유플러스는 전파 분석 전문기업 솔빛시스템과 산악 지역의 조난자 수색 범위를 좁히는 기술을 실증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이동통신 기지국 정보와 휴대전화 접속 기록을 활용한 기술이다. 국방 분야 전파를 분석하고 시뮬레이션을 맡는 솔빛시스템과 LG유플러스의 통신 데이터를 기반으로 조난자 수색 지원 기술을 실증했다.

실증은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운장산 일대에서 실시했다. 산악 지역에서 GPS 신호가 잡히지 않거나 휴대전화가 꺼져 정확한 위치를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을 가정했다.

수색은 조난자의 휴대전화가 마지막으로 접속한 기지국부터 시작해 확장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또 솔빛시스템의 지능형 수색지원 시스템 (iSAR)을 활용해 기지국의 전파 도달 범위와 시간대별 휴대전화 접속 기록을 추가로 분석했다.

이를 통해 기존 방식보다 수색 범위를 약 99% 축소할 수 있었다. 솔빛시스템과 협력한 시스템으로 시간에 따른 접속 기록과 지형별 전파 도달 범위를 분석해 조난자가 있을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추정할 수 있었다는 게 회사 측의 설명이다.

해당 기술이 실제 구조 현장에 활용되면 구조대가 수색해야 하는 지역을 빠르게 좁히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넓은 산악 지역을 모두 살피는 대신 조난자가 있을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구조 인력과 장비를 집중 투입해 조난자 수색이 빨라진다.

향후 LG유플러스와 솔빛시스템은 관련 기술의 정확도와 활용성 검증을 통해 긴급구조기관의 수색 지원 체계에 적용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조민선 기자

AI 아침에 넘어갔다… 유도성 제안 수용률 77%

오늘 AI

美 MIT 등 'AI 위치독' 연구 결과
AI 다크패턴 10명 중 8명 신고 안 해

생성형 인공지능(AI)이 이용자의 판단과 선택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는 가운데, AI와 대화한 이용자 10명 중 8명이 특정 선택을 교묘하게 유도하는 '다크패턴'을 신고하지 않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특히 AI가 이용자의 의견에 과도하게 동조하거나 칭찬할수록 유도성 제안을 따르는 경향이 두드러져 AI 서비스의 신뢰성과 이용자 보호 문제가 새로운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11일 미국 매사추세츠공과대학(MIT)

미디어랩과 태국 카시콘랩스 등이 참여한 공동 연구진의 'AI 위치독' 연구 결과에 따르면 실험 참가자 150명 중 120명인 80%가 AI와의 대화에 포함된 다크패턴을 한 차례도 신고하지 않았다.

다크패턴이란 이용자가 특정 선택을 하도록 정보 제공 방식이나 화면 구성을 교묘하게 설계하는 행위를 뜻한다. 기존에는 온라인 쇼핑물의 결제 유도 등에 주로 활용됐지만 생성형 AI에서는 특정 상품을 편향되게 추천하거나 이용자의 의견에 지나치게 동조하는 방식으로 나타날 수 있다.

연구진은 미국 성인 150명을 대상으로 GPT-4o 기반 AI와 대화하며 프랑스 파리 여행 일정을 세우거나 소셜미디어 관련 발표 자료를 준비하도록 했다. 일부 A

I 답변에는 의도적으로 다크패턴을 포함하고 참가자들이 이를 발견하면 신고하도록 했다.

그러나 참가자의 80%는 실험이 끝날 때까지 신고 기능을 한 차례도 사용하지 않았다. 다만 신고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모든 참가자가 다크패턴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의미는 아니다.

AI의 유도성 제안이 실제 선택으로 이어지는 경향도 확인됐다. 별도의 경고 없이 AI와 대화한 집단에서 유도성 제안을 따른 비율은 평균 71.7%에 달했다. 특히 AI가 이용자의 생각을 과도하게 칭찬하거나 동조하는 '아침성 응답'에서는 제안 수용률이 77%로 나타났다.

반면 대화 도중 의심스러운 표현을 알

려주는 실시간 경고를 제공하자 제안 수용률은 53.7%로 낮아졌다. 경고가 없는 집단보다 18%포인트 감소한 수치다.

연구진은 AI에 대한 신뢰도가 높은 이용자가일수록 유도성 제안을 따르는 경향이 강한 반면, 조작적인 표현에 대한 인식은 낮았다고 분석했다.

이번 연구는 생성형 AI의 위험이 잘못된 정보 제공을 넘어 이용자의 의사결정 과정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AI가 검색과 쇼핑, 금융 등 일상적인 서비스로 확산하면서 대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선택 유도에 대한 감시와 대응 체계의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연구진은 "AI가 점점 더 설득력 있는 방식으로 이용자와 상호작용하는 상황에서 적절한 시점에 제공되는 간단한 경고가 이용자의 자율적인 판단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최빛나 기자

‘월천낙수’ 꿈에 몰린 개미들… 커버드콜 ETF의 수익 함정

9월 주요 4종에 개인 6521억 순매수
커버드콜 순자산 3년여 만에 24조
고배당·파킹형 ETF에도 자금 몰려

상승장선 지수 대비 수익률 뒤처져
하락장 방어 효과도 기대보다 제한
분배율 아닌 총투자수익률 따져야

“월천낙수”

은퇴 후 ‘월’에 ‘천’만원을 버는 ‘낙수(이름)’라는 뜻으로, 올 초 종영한 인기 드라마 ‘서울 자카’에 대기업을 다니는 김 부장이 야기의 주인공 김낙수(류승룡 역)의 꿈이다. 김씨는 이 꿈을 실현하기 위해 퇴직금 5억원에 은행 대출 5억5000만원 등 총 10억5000만원을 변동리 상가에 투자했다. 잘 알지도 못하는 자산에 성급하게 투자한 대가로 김씨는 ‘서울 자카’마저 잃게 된다.

김씨의 계획대로 상가에 임차인이 들어왔다고 해도 이 꿈을 실현하기란 쉽지 않았을 것이다. 월세로 500만원을 받는다 해도 대출이자와 각종 세금을 제외하면 월 300만원을 손에 쥐는 것조차 쉽지 않기 때문이다.

김 부장의 전철을 밟지 않고 ‘월천낙수’의 꿈을 꾸는 투자자들의 발길이 커버드콜 상장지수펀드(ETF)와 고배당·파킹형 ETF로 이어지고 있다.

◆“넌뛰기 장세에서도 수익” 커버드콜로 뭉치듯



따능AI로 생성한 ‘커버드콜 몰린 개미…수익률은 지수 ETF에 25%p 뒤처져’ 관련 이미지.

1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개인투자자는 지난 9월 한 달간 주요 커버드콜 ETF 4종을 6521억원어치 순매수했다. ‘TIGER 배당커버드콜액티브’가 2116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KODEX 200커버드콜액티브’(1776억원), ‘KODEX 200타겟유틸리티커버드콜’(1427억원), ‘RISE 코리아밸류업유틸리티고정커버드콜’(1202억원) 순이었다. 반면 코스피200을 그대로 추종하는 ‘KODEX 200’은 3151억원어치 순매도했다. 코스피200 커버드콜 2종(KODEX 200커버드콜액티브·KODEX 200타겟유틸리티커버드콜)의 순매수액(3203억원)과 비슷한 규모다.

시장도 빠르게 커졌다. 심수연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원의 ‘국내 커버드콜 ETF 시장의 성장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

르면 국내 커버드콜 ETF 순자산은 2022년 말 1223억원에서 올해 5월 말 24조 5490억원으로 늘었다. 같은 기간 상품 수도 6개에서 50개로 증가했다.

커버드콜 ETF는 기초자산을 보유하면서 동시에 다른 투자자에게 일정 가격에 살 수 있는 권리(콜옵션)를 팔아 받은 옵션 프리미엄을 투자자에게 분배금으로 지급하는 상품이다. 주가 상승에 따른 시세 차이 일부를 포기하는 대신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확보하는 구조다.

주주환원에 초점을 맞춘 ETF의 설정 규모도 증가하고 있다. 금융주 비중이 높은 KODEX 주주환원고배당주ETF의 상장좌수는 지난달 30일 1590만좌에서 이달 8일 1720만좌로 8.2% 증가했다. 같은 기간 KODEX 고배당주ETF의 상장좌수는

1990만좌에서 2000만좌로 늘었다.

최근에는 파킹형 ETF에도 투자자들이 몰리고 있다. 최근 일주일간 자금 유입 상위 10개 ETF 중 절반인 5개 종목이 파킹형 ETF였다. 이 기간 이들 5개 종목에 유입된 자금만 총 1조2868억원에 달한다. 종목별로는 KODEX 머니마켓액티브에 가장 많은 4204억원이 유입됐으며 RISE 머니마켓액티브가 3544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잔존만기 1년 미만의 국고채·통안채에 투자하는 KODEX 단기채권에도 2134억원이 유입됐다. 이 밖에도 ACE 머니마켓액티브(1715억원), PLUS 머니마켓액티브(1271억원) 등이 순유입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파킹형 ETF는 한국형 무위험지표금리인 KOFRL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 금융채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ETF다. 원금 손실 위험이 낮으면서도 예금보다 수익률이 높은 편이라 단기 대기자금이 몰리는 상품이다.

◆“월천낙수”는 꿈인가

커버드콜·고배당·파킹형 ETF가 개미들에게 ‘월천낙수’의 꿈을 이뤄줄까.

커버드콜 ETF만 놓고 보면 꿈은 멀어 보인다. 삼성자산운용에 따르면 9월 말 기준 KODEX 200타겟유틸리티커버드콜의 최근 1년 수익률(분배금 재투자 기준)은 106.60%로 KODEX 200(131.93%)보다 25.33%포인트 낮았다. 이상현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일파를 창출하는 커버드콜 액티브ETF” 보고서에서 커버드콜은 “상

승장에 주가가 행사가격을 넘어설 경우 그 이상의 상승분은 누리지 못한다는 구조적 한계를 갖는다”며 코스피 상승 국면의 수익률 부진은 “전략의 구조상 불가피한 결과”라고 분석했다.

그렇다면 하락장에서는 버텨줬을까. 이것도 아니다. 코스피200이 6월 30일 1370.73에서 7월 14일 1092.23으로 2주 만에 20.3% 급락하면서 최근 3개월 KODEX 200의 수익률은 -20.56%를 기록했다. KODEX 200타겟유틸리티커버드콜은 -20.30%로 차이는 0.26%포인트에 그쳤다. 오를 때는 덜 오르고 빠질 때는 비슷하게 빠진 셈이다.

극심한 변동성 구간(7월 14일~9월 30일)에서도 상품마다 수익률은 엇갈렸다. 이 기간 ‘코스피200 커버드콜 5% OTM 지수’는 9.78% 올랐지만 이를 비교지수로 삼아 7월 14일 상장한 KODEX 200커버드콜액티브의 수익률은 0.53%에 그쳤다.

상품 특성을 고려한 분산 투자가 기본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심 선임연구원은 같은 보고서에서 옵션 매도비중이나 행사가격 등이 다르면 “동일한 분배율도 다른 위험을 내포”한다며 “투자성과는 월 분배금이나 표시 분배율만으로 판단하기보다 기준가격 변동을 포함한 총투자수익률과 함께 살펴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김아영 기자

aykim@metroseoul.co.kr



metro

외국인 삼성전자 보유율 46%대로 ‘추락’

18년9개월 만에 금융위기 당시 수준
SK하이닉스도 50%선 밑돌며 약세
올해 코스피서 197조 넘게 순매도

국내 증시에서 외국인의 순매도세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삼성전자에 대한 보유율도 연일 내리며 금융위기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8일 기준 외국인의 삼성전자 주식 보유율은 46.38%를 기록했다.

지난 6일엔 46.37%까지 내렸다. 이는 금융위기 때인 2008년 1월 11일(46.35%) 이후 약 18년 9개월 만의 가장 낮은 수준이다.

외국인의 삼성전자 보유율은 코스피가

본격적으로 상승세를 탔던 지난해 말부터 오르기 시작해 올 초 52.40%까지 올랐다.

하지만 미국과 이란 간 전쟁 발발 직후인 3월 글로벌 증시 쇼크로 50%를 이탈했고, ‘7천피’와 ‘8천피’를 잇달아 돌파했던 5월까지의 48%대를 유지했다. 이후 7월에 들어서며 47%를 벗어났고, 점차 밀리며 이달 46% 초반까지 내려앉은 것이다. IMF 위기 때인 1998년 12월에도 비슷한 수준에 머물렀다.

삼성전자가 3분기 영업이익으로 역대 최대인 107조원을 거뒀다고 발표했음에도 외국인 매도세는 계속됐다.

SK하이닉스의 외국인 보유율은 49.59%를 나타냈다.

2023년부터 줄곧 50% 이상을 유지, 2024년에만 해도 56.41%까지 끌어올렸던 점을 고려하면 눈에 띄는 하락세다. 이 숫자는 지난달 말부터 50%를 밑돌며 8거래일째 49%대에서 내뱉세다.

특히 올 초 고점(54.64%)과 비교하면 5%포인트 내렸다. 이들 ‘투 톱’에 대한 보유율이 떨어지면서 두 종목이 속한 코스피 전기/전자 업종의 외국인 보유율도 올 초 40.87%에서 38.09%로 자연스레 떨어진 상황이다.

외국인은 올해 코스피에서 누적 197조 원 넘게 순매도 중이다. 지난해 4조원대 순매도, 2024년 보합, 2023년 11조원대 순매수 등과 비교하면 역대급 규모다.

/신하은 기자 godhe@

애프터마켓서 개인 ‘삼성’ 외인 ‘하이닉스’

거래소 애프터마켓 한 달 집계
개인 삼성전자우 723억 순매수
외국인 SK하이닉스 1015억 매수

한국거래소가 지난달 14일부터 애프터마켓의 문을 연 지 약 한 달이 다가온 가운데 애프터마켓(오후 4시~8시) 거래에서 개인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사들인 종목은 삼성전자였다.

11일 한국거래소와 코스콤 체크에 따르면 지난달 14일부터 이달 8일까지 거래소 애프터마켓에서 개인투자자가 가장 많이 순매수한 종목은 거래대금 기준으로 삼성전자의 우선주인 삼성전자우(723억 원)였다.

삼성전자 보통주가 675억3000만원으로 뒤를 이었고, 한화에어로스페이스(44억7000만원), 이수페타시스(35억9000만원), DB하이텍(35억3000만원) 등도 순매수상위권에 올랐다.

가장 큰 규모 순매도한 종목은 SK하이닉스였다. 이에 대한 순매도액은 921억4000만원에 달했다.

삼성전기(315억3000만원), 현대모비스(128억3000만원), 두산에너빌리티(105억5000만원), 한전기술(80억1000만원)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외국인은 반대로 거래소 애프터마켓에서 SK하이닉스를 가장 많이 순매수했다. SK하이닉스에 대한 순매수액은 1015억4000만원이었고, 삼성전기가 330억1000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순매도 상위 종목에는 삼성전자우(831억1000만원)와 삼성전자(504억9000만원)가 이름을 올렸다.

개인이 삼성전자를 사들이고 SK하이

닉스를 파는 동안 외국인도 그 반대편에 선 셈이다. 이는 같은 기간 정규장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개인과 외국인 모두의 순매도 상위 1·2위에 오른 것과 다른 모습이다.

기관은 거래소 애프터마켓에서 두산에너빌리티를 131억5000만원어치로 가장 많이 순매수했고, 삼성전자를 157억1000만원어치로 가장 많이 순매도했다.

거래소는 지난달 14일 기존 오후 4~6시 시간의 단일가 매매를 폐지하고, 오후 4~8시 실시간 거래가 가능한 애프터마켓을 신설했다.

이에 따라 대체거래소 넥스트레이드(NXT) 거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종목도 저녁 시간에 실시간으로 사고팔 수 있게 됐다.

개장 이후 이달 8일까지 16거래일간 거래소 애프터마켓의 일평균 거래대금은 1조2645억원, 거래량은 약 5592만2000주로 집계됐다. 이 기간 거래소 애프터마켓 거래대금은 정규장 거래대금의 약 4.78% 수준이었다.

같은 기간 NXT 애프터마켓의 일평균 거래대금은 1조7008억원, 거래량은 약 1173만7000주였다. 일평균 거래대금 기준으로는 NXT가 거래소의 약 1.35배를 기록했다. 다만 코스피와 코스닥을 나눠보면 양상이 달랐다. 코스피 종목의 일평균 애프터마켓 거래대금은 거래소가 7712억원, NXT가 1조5129억원으로 NXT가 우위를 점했다.

반면 코스닥에서는 거래소가 4933억원으로 NXT의 1879억원보다 2.5배 넘게 컸다.

/신하은 기자

금투협, 日 자산운용협회와 협력 강화

양국 시장·제도 정보 공유
임직원 교류·공동행사 추진

금융투자협회는 지난 7일(현지시간) 캐나다 토론토에서 열린 제39차 국제자산운용협회(IIFA) 연차총회 기간 중 일본 자산운용협회(IMAJ)와 양국 자산운용산업의 발전과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양 기관은 협약을 통해 상호 이해를 높이고 지속적인 협력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 임직원 교류와 양국 자산운용 시장·제도 관련 정보 공유, 공동 세미나·워크숍 개최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달 도쿄에서 열리는 ‘IMAJ 창립 컨퍼런스’에는 금투협이 연사를 파견한다. 한국 자산운용시장의 구조적 변화와 성장 경험, 장기 자산형성 확대를 위한 업계의 대응을 소개할 예정이다.

11월에는 요시오 히사다 IMAJ 회장이 해외금융협력협의회가 서울에서 개최하는 ‘제11회 국제금융협력포럼’에 초청돼 방한한다. 히사다 회장은 방한 기간 금투협 회원사들과 만나 일본 자산운용시장의 동향과 정책 변화를 공유하고 양국 업계의 협력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황성엽 금투협 회장은 “이번 MOU를 계기로 양 기관이 단순한 정보 교류를 넘



한국금융투자협회와 일본자산운용협회 업무협약(MOU) 체결식. /금융투자협회

어 실질적인 협력의 결실로 이어지길 기대한다”며 “양국 자산운용업계가 서로의 경험과 강점을 공유하며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금투협도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허정윤 기자 zelkova@

aT, K-푸드 ‘유럽상륙’ 채비… 파리·밀라노 현지서 ‘호응’

농식품부와 ‘파리 K-푸드위크’
현지 식당 13곳서 특별메뉴 선포
韓 농축산식품, 佛 수출액 16% ↑

밀라노 ‘K-푸드 팝업 스토어’
현지 소비자 9000여명 방문

K-푸드의 유럽시장 진출이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이와 관련해, 프랑스 파리에서 ‘K-푸드위크’를 개최하고 이탈리아 밀라노에는 팝업스토어를 설치하는 등 유럽 주요도시 공략에 공을 들이고 있다.

aT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함께 9월29일~10월6일 기간 ‘2026 파리 K-푸드위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현지 레스토랑 13곳에서 한국산 쌀·김치·장류 등 다양한 식재료를 활용한 특별메뉴를 선보였다.

행사에 참여한 현지 조리장(셰프)들은 지난 8월 한국을 방문한 바 있다. 쌀 생산 현장과 전통식품 명인들을 찾아 한국 식재료의 맛과 가치를 직접 경험했다. 특히 정관 스님에게 사찰음식과 한국 음식의 철학을 배우고 강민철·조희숙·조은희 조리장 및 식품명인들과도 교류했다. 이들에게서 얻은 영감을 각자의 요리에 접목했다.

이번 K-푸드위크에는 프랑스 전역에



‘2026년 파리 K-푸드위크’ 기획·개최에 참여한 관계자들 모습.

서 13개 레스토랑이 참여했는데, 코르시카의 ‘르쁘띠레스토랑’ 등이 선보인 한국산 식재료 활용 요리가 방문객 사이에서 큰 호응을 얻었다.

파리1구 몰리에르광장에서 열린 개막식에서는 미술랭 3스타 레스토랑 소속의 김민재 씨를 비롯한 프랑스 요리 전문 조리장 8인이 창작 메뉴를 만들어 보였다. ▲김치와 깻잎을 활용한 허브쌈 ▲쌀과 된장을 접목한 코리안 이란치니 ▲조청을 곁들인 요리요리 ▲디저트 간장캐러멜 ▲참쌀과 꿀로 만든 개성주악화와 ▲간장을

활용한 굴 달걀찜 등이 눈길을 끌었다.

행사장에는 정관 스님과 미술랭 스타조리장인 다비드 투탱, 현지 미식업계 관계자, 언론인, 인플루언서 등이 자리를 가득 메웠다.

올해 8월까지 한국산 농축산식품의 프랑스시장 수출액은 351만 달러로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16% 증가했다. 특히 소스류 수출액이 23% 늘어나는 등 장류를 포함한 한국산 소스의 유럽 진출 가능성도 커졌다.

aT의 전기찬 수출식품이사는 “한국 식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K-장류를 활용한 요리교실이 열리고 있다. /aT

재료가 세계 미식 무대에서 단순히 이국적인 재료를 넘어 새로운 요리의 영감을 주는 식재료로 주목받고 있다”며 “앞으로도 현지 셰프 및 외식업계와의 협력을 확대해 한국 식재료가 세계인의 일상적인 식문화에 자연스럽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aT는 앞서 9월 17일부터 26일까지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운영한 ‘K-푸드 팝업 스토어’에는 현지 소비자 9000여 명이 다녀갔다고 밝혔다.

이 행사는 ‘밀라노 패션위크 SS 2027’

와 연계해 K푸드를 한국의 문화와 일상을 함께 경험하는 라이프스타일로 소개하고자 마련됐다. aT는 한국 전통 자개장을 활용해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공간을 연출했다. 스토어에는 장류부터 라면·음료·건강식품까지 다양한 범주의 K-푸드를 전시했다.

이외로, K-소스(장, 김치분말)를 활용한 요리를 선보이는 현지 유명 조리장들의 요리교실도 열렸다. aT는 이탈리아의 식전주 문화에서 착안해, 한식메뉴에 유자·오미자·매실 등을 활용한 K-카테일을 곁들여 즐기는 이른바 ‘아페리티보-코레아노’ 프로그램을 기획했다.

팝업스토어를 방문한 이탈리아인 테레사 씨는 “평소 한국식 김치를 좋아하고 즐겼는데, 쿡클래스를 통해 이탈리아 요리에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을 배웠다”며 소감을 전했다.

aT는 팝업스토어와 연계한 농식품 세일로드쇼도 개최했다. 국내 수출기업 5개사와 유럽 7개국 바이어 7개사가 참가해 제품 품평회 1:1 수출 상담을 진행했다. 상담회에서는 총 34건·154만 달러 규모의 상담이 이뤄졌는데, 치킨소스 등이 현지 바이어의 관심을 끌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metroseoul.co.kr



metro

근로복지공단, ‘QR전자신고’ 서비스 개시

보험관계 성립신고서 전송 시
공단이 정보 읽고 자동 접수
연간 약 7만건 서비스 활용 예상

근로복지공단이 ‘QR 전자신고’ 서비스를 12일 개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세무·회계 프로그램에서 ‘보험관계 성립신고서’를 전송하면 공단이 자동으로 접수하는 체계다.

보험관계 성립신고서는 4대 사회보험에 가입할 때 제출하는 공통서식이다. 사업장이나 세무·회계사무소가 세무·회계 프로그램에서 신고서를 작성해 공단에 전송하면, 공단 시스템이 QR 코드에 담긴 신고 정보를 읽어 자동으로 접수하는 방식이다.

그동안 고용·산재보험 토달서비스를 통한 온라인 신고는 가능했지만, 세무·회계

프로그램을 이용한 QR 전자신고는 지원되지 않았다. 세무·회계 프로그램에서 작성한 신고서를 출력해 팩스로 보내면 공단 직원이 수동으로 접수해야 했다. 또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를 거쳐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국민연금공단으로 전송하는 방식으로 처리됐다.

앞으로는 세무·회계 프로그램에서 전송한 신고 정보가 자동으로 접수되고 관계 기관에도 전송된다. 사업장과 세무·회계 사무소는 신고서를 출력해 팩스로 보내는 번거로움을 덜고, 공단의 접수 업무도 한층 효율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공단은 기대하고 있다.

공단은 지난해 3월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와 협의체를 구성해 공동으로 시스템을 개발했다.

앞서 지난 2019년에는 공공기관 최초로 QR 코드를 활용한 민원서류 자동접수 시스템을 구축한 바 있다 2022년에는 보수 총액 신고서 등 10종 민원서류에 대해 QR 코드에 신고 정보까지 담아 자동으로 접수되는 QR 전자 신고를 도입했다. 이번에는 보험관계 성립신고서까지 전자신고 범위를 확대해 사업장의 신고 편의를 높였다.

연간 약 7만 건의 보험관계 성립신고서에 QR 전자신고 서비스가 활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근로복지공단이 우선 12일 서비스를 시작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이 순차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다.

박승훈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사업장이 더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 함께 절차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세종=김연세 기자

마사회, 온라인 발매시스템 ‘더비온2.0’ 구축

고객·매출 데이터 축적해 서비스 개선

한국마사회의 경마배팅 시스템이 개선됐다.

마사회는 차세대 온라인 발매시스템 ‘더비온2.0’을 구축하고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경마 고객에 대한 서비스 역량 강화 및 업무 효율성 제고를 도모한다.

이 시스템은 고객에 대한 통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개발됐다. 그동안 전자마권 시스템과 지원시스템이 각기 다른 방식으로 구축 및 관리되어 연계 서비스 제공에 한계가 있었다. 마사회는 “신규 시스템 구축을 통해 고객 인지부터 접점 서

비스 제공, 마케팅까지 순환체계를 갖추게 됐다”고 밝혔다.

특히 전자마권 이용 관련 고객·매출데이터가 축적되면서, 고객 피드백을 통해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게 핵심이다.

주요 기능은 큰 글씨모드와 같은 사용자 친화형 UI/UX를 비롯해 ▲다양한 경주정보 제공 및 포인트 합산 결제, 신규배당률 정보 등을 지원하는 ‘모바일발매 서비스’ ▲동반예약, 선호좌석 빠른예약 등 신규기능을 제공하는 ‘통합입장좌석’ ▲고객과의 상호작용 과정을 분석·최적화하고 고객생애가치 증대를 위한 ‘고객경험관리’ 등이다.

/세종=김연세 기자

남부발전-MIT, 에너지 전문인재 양성

에너지 교육·연구, 학술교류 확대

한국남부발전이 지난 8일 미국 매사추세츠공과대학교(MIT) 원자력공학과 산하 원자력재료센터와 에너지 분야 교육·연구 및 학술교류 확대를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에너지 전문인재 양성 등에서 협력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에너지전환과 발전사통합에 대비한 인재양성을 위해 마련됐다. 남부발전은 지난 6월 29일 수립한 ‘인재육성 로드맵’의 후속 조치로 글로벌 선도 연구·교육기관과의 네트워크를 확대해 미래 에너지 시장을 이끌 전문 인력을 확보할 방침이다.

남부발전은 MIT 원자력공학과와 에너지 분야 연구 및 인재양성을 위한 협력을 추진해 왔으며, 임직원의 방문연구를 통해 MIT 연구진과 공동연구를 수행하기



한국남부발전 강태길 인사처장(오른쪽)이 지난 8일 미국 매사추세츠 공과대학교(MIT) 원자력공학과 산하 원자력재료센터와 에너지 분야 교육·연구 및 학술교류 확대를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남부발전

위한 협력 기반을 확대해 왔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에 따라 ▲에너지 분야 교육 및 인재양성 ▲연구 및 학술교류 ▲에너지 기술 관련 정보 및 전문성 교류 등 상호 관심 분야에서 협력 기회를 지속적으로 모색할 예정이다./세종=한용수 기자

강원랜드 외국인 이용객, 22년째 2% 하회

올해 전체 입장객 185만 9015명 중
외국인 2만 986명… 1.13%에 그쳐

강원랜드가 글로벌 공공형 복합리조트 도약을 선언하며 해외 고객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카지노 이용객 100명 중 99명은 여전히 내국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외국인 비중은 22년 연속 2% 미만에 머물렀고, 입장객 수마저 20여 년 전보다 오히려 줄어들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차규근 의원(조국혁신당)이 강원랜드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부터 10월 4일까지 카지노 전체

입장객 185만 9015명 중 외국인은 2만 986명으로 전체의 1.13%에 불과했다. 나머지 98.87%(183만 8029명)는 모두 내국인이었다.

이 같은 ‘외국인 가뭄’ 현상은 20년이 넘도록 고착화된 상태다. 집계 첫해인 2004년 1.88%였던 외국인 비중은 지난해까지 22년 연속 단 한 번도 2%를 넘지 못했고, 올해 역시 1.13%에 머물렀다.

외국인 입장객의 절대 규모도 뒷걸음질 쳤다. 2004년 3만 3581명이던 외국인 입장객은 지난해 2만 6948명으로 19.8%(6,633명) 감소했다. 이는 같은 기간 전체 카지노 입장객이 178만 4730명에서 247만 8658명으로 38.9% 급증한 것과 정반대의

흐름이다.

앞서 강원랜드는 지난해 2월 전용 테이블 8대와 외국어 가능 직원을 배치한 외국인 전용존 시범 운영을 시작했다. 이어 지난 9월에는 글로벌 공공형 복합리조트 도약을 새로운 경영 방향으로 제시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 같은 전용 시설 도입과 구호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국인 중심의 카지노 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차규근 의원은 “글로벌 복합리조트로 도약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외국인 비중은 22년 연속 2% 미만에 그치고 있다”며 “외국인 전용 카지노존 등 기존 유치 정책의 성과를 냉정하게 점검하고, 내국인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고객 구조를 개선할 실효성 있는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SHOWGO NEWS

CULTURE *MUSICAL*THEATER

연말, 대학로에서 만나는 특별한 무대!

SHOW MUST GO ON in DAEHAKRO

오늘도 내일도 우리의 SHOW는 계속된다!

익숙한 노래가, 특별한 순간이 되는 곳



JUKEBOX MUSICAL · 쥬크박스 뮤지컬

쇼머스트고온 in 대학로



2026.11.6(FRI) — 2026.12.31(THU)
대학로 한성아트홀 2관

연말을 더욱 특별하게!

프리뷰 최대
60%
할인 진행중

지금, 가장 좋은 자리에서
특별한 감동을 만나보세요!



익숙한 노래,
새로운 이야기,
그리고
다시, 당신과 함께.

세대를 넘어 사랑받는 명곡들이
무대 위에서 다시 살아납니다.
지금, 대학로에서
가장 따뜻한 시간을 만나보세요.



최대철 배우 출연! “무대 위, 다시 빛나는 이야기”

“좋은 음악은,
언제나 우리를 다시 만나게 한다.”

최대철을 비롯한 실력과 배우들이 선사하는
단 하나의 특별한 무대!



모임·송년회·단체 관람으로 함께 즐기기 좋은 연말 추천 뮤지컬



공연기간
2026.11.6(FRI) —
2026.12.31(THU)



공연장소
대학로 한성아트홀 2관

JUKEBOX MUSICAL · SHOW MUST GO ON



QR 스캔
예매하기 >

예매하기 >

지금, 특별한 무대를 예약하세요!



연말 모임·송년회
단체 관람 문의 환영



02-764-9102

“좋은 사람들과
좋은 음악이 있는 곳, 대학로”

울산항 미래 100년 밑그림… 남신항 에너지허브 키운다

남신항 에너지허브 2단계 사업 추진 내달부터 사전타당성 검토 진행 미래 에너지 수요, 민간 투자 연계

울산시는 남신항 에너지허브 2단계 하부 기반시설을 국가재정으로 조성하는 방안을 정부와 협의하고 수소·암모니아 등 미래 에너지 수요를 반영한 상부시설 구상에 나선다. 아람코 등 글로벌 에너지 기업과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 장기 이용과 투자 협력 가능성도 확인한다.

울산시는 지난 7일 시 본관 3층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선 9기 공약인 '동북아 에너지 물류거점(허브) 조성'과 연계한 남신항 에너지허브 2단계의 추진 방향을 제시했다.

사업 대상지는 울주군 온산읍 원산리 전면 해상으로 약 34만7000㎡ 규모다. 7만 DWT급 액체화물 부두 2선석을 조성하는 내용이며 2017년 한국개발연구원(KDI)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재무성 분석에서는 총투자비가 1조784억원으로 산정됐다.

울산항만공사(UPA)는 오는 11월부



신민식 울산시 경제부시장이 7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남신항 에너지허브 2단계 조성 추진 상황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다. /울산시

터 내년 10월까지 사전타당성 검토를 진행한다. 사업 수요와 적정 시설 규모 및 사업비와 경제성을 살피고 울산시는 정부와 하부시설의 국가재정 전환을 협의한다. 재원 분담과 사업 주체 및 예비타당성조사 적용 방식과 국가계획 정비 필요사항도 관계기관과 조율할 예정이다.

울산시는 공공재정으로 하부시설을 확보해 민간의 초기 투자 부담을 낮추고

저장탱크와 공급설비 등 상부시설 투자 여건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상부시설은 원유와 석유제품뿐 아니라 수소·암모니아·메탄올 등 미래 에너지 수요까지 반영한다. 사한 프로젝트와의 연계 가능성도 살피고 기업의 생산·물류 계획을 바탕으로 저장·하역·공급 수요와 투자 가능성을 확인한다. 기존 시설로 충당할 수 있는 수요와 추가 시설이 필요한

수요를 구분해 품목별 이용 규모와 시기 및 중장기 수요를 검토한다.

아람코 등 글로벌 에너지 기업과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는 저장·하역 규모와 이용 시기 및 장기 이용 가능성을 확인한다. 원유와 석유제품은 물론 수소 등 미래 에너지 분야의 투자 협력 가능성도 살핀다. 기업 협의에서 확인된 장기 이용 수요는 향후 상부시설 규모와 투자 방식 결정에 활용할 예정이다.

신민식 울산시 경제부시장은 기자회견에서 "아람코 등 세계적(글로벌) 에너지 기업과의 협력 가능성을 구체화하고, 실수요에 맞는 공공 항만 기반시설 조성과 민간투자가 연계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며 "원유·석유제품부터 미래 에너지까지 대응할 수 있는 저장·공급 기반을 확충하고, 울산항을 대한민국 에너지 공급망을 든든히 뒷받침하고 세계시장을 연결하는 동북아 에너지 물류거점(허브)으로 육성하겠다"라고 말했다.

울산항은 액체화물 처리 규모 국내 1위이자 세계 4위 수준이다. /부산=이도식 기자 metrobusan@metroseoul.co.kr



metro

지역 이모저모

경주시

경북한우경진대회 '최고 영예'

경주시지역 한우농가들이 '2026경북한우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 2점과 우수상 1점을 수상하고 그랜드 챔피언까지 배출했다.

경주시는 이번 대회 미경산우와 경산우 1~3부에 한우 4두를 출품해 3개 부문에서 수상했다.

경산우 1부에서는 천북면 최삼호 농가가 최우수상을 받았으며, 경산우 2부에서는 건천읍 최원준 농가가 우수상을 차지했다. 경산우 3부에서는 내남면 김근술 농가가 최우수상을 수상하고 출품 한우 가운데 최고를 가리는 '그랜드 챔피언'에도 선정됐다.

/경주(경북)=김진곤 기자

파주시

6년근 인삼 품질관리 강화

파주시가 오는 17일부터 18일까지 임진각 광장에서 열리는 '제21회 파주개성인삼축제'를 앞두고 판매용 6년근 인삼의 품질관리를 강화한다.

시는 축제장에서 판매할 인삼에 대한 수확 전 안전성 검사를 마쳤으며, 채굴부터 선별·봉합까지 전 과정을 관계 공무원 입회 아래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축제에서 판매되는 파주개성인삼은 민간인출입통제선(민통선)과 감악산 일대에서 재배한 6년근 인삼이다.

파주개성인삼은 고려인삼의 전통을 이어온 지역 특산물로, 시는 인삼의 품질과 지역 특산물의 경쟁력을 알리기 위해 21년째 파주개성인삼축제를 개최하고 있다.

/파주(경기)=안성기 기자 ask9990@

영남대·대구한의대·포항공대

지역혁신 우수사례 대회 수상

경북지역 대학 3곳이 한국연구재단이 주최한 '2026년도 앵커 혁신성과·도전 지역혁신 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영남대학교는 대상인 교육부 장관상을, 대구한의대학교와 포항공과대학교는 각각 최우수상과 장려상을 받았다.

이번 대회는 대학과 지역이 협력해 발전 생태계를 만들고 동반성장을 이끈 사례를 발굴·확산하기 위해 3개 부문 9개 분야로 진행됐으며, 전국에서 36건이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영남대는 앵커-Festival '시그니처 과제' 분야에서 '지·산·학·연 협력을 통한 세포배양 산업화단지 구축'으로 대상을 받았다.

/경북=김준한 기자 kih9@

하동군

대학과 군민 평생교육 확대

경남 하동군이 지역 대학과 협력해 군민들의 취업과 자격 취득, 생활여량 강화를 위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하동군은 국립장원대학교 남해캠퍼스, 경상국립대학교와 함께 '2026년 대학-지역 협력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오는 12월부터 수강생을 선착순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대학 협력 강좌 4개와 일반 강좌 1개 등 총 5개 과정으로 구성됐다.

/하동(경남)=이도식 기자



몽골 시장개척단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전남광주, 중앙랴 시장개척단 파견 성과

중앙랴·몽골 111만 달러 수출협약 독점 공급 제언 등 후속 협의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최근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와 몽골 울란바토르에 '2026 중앙아시아 시장개척단'을 파견해 총 111만 달러(약 14억 9000만 원) 규모의 수출협약(MOU)과 4000달러 규모의 현장 계약을 했다.

시장개척단은 현장 계약뿐 아니라 샘플·견적 요청과 독점 공급 제언 등 후속 협의로 이어져 향후 실제 수출계약에 대한 기대를 높였다.

중앙아시아와 몽골은 제조업 기반이 취약해 공산품 수입 수요가 높은 시장이다. 특히 경제 성장과 젊은 인구, 한류에 대한 높은 관심을 바탕으로 지역 소비재와 농수산물식품의 전략적 수출 거

점으로 꼽힌다.

시장개척단 상담 결과,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에서는 봉강천환경 50만 달러, 푸른정식품 15만 달러 등 총 65만 달러 규모의 수출협약을 했다. 또 메사코사, 서광식품, 에스에이치랩, 위로푸드가 각각 1천 달러씩 총 4천 달러 규모의 현장 계약을 해 실질적 수출 성과도 거뒀다.

현지 공관과 유관기관도 전남광주기업의 시장 진출에 힘을 보탰다. 우즈베키스탄 대한민국대사관은 'K-이니셔티브' 핵심 전략인 싱글윈도우를 통해 지상사협의회, 한인회 등과 협력해 현지 시장정보와 기업 진출에 필요한 사항을 안내하고,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상담을 지원하기로 했다.

/전남광주=양수현 기자 ysn6313@

경기도, 산업체 급식소 210곳 집중 단속

원산지·보관기준 위반 관리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오는 11월 2일부터 13일까지 도내 산업체 집단급식소와 위탁급식업체 210곳을 대상으로 식품 안전 집중 단속을 벌인다.

이번 단속은 외식물가 상승으로 산업체 구내식당 이용이 늘면서 저가 수수 경쟁과 식재료 검수보관 부실 등 위생관리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다. 학교나 어린이집 등에 비해 정기 점검이 상대적으로 적은 산업체 집단급식소의 관리 실태도 집중적으로 살핀다.

주요 단속대상은 ▲미등록 업체의 무허가 식재료 사용 ▲식단표·거대명세서 원산지 거짓 표시 ▲냉장·냉동식품 보관 기준 위반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사용 ▲미신고 영업 등이다.

/경기=김대의 기자 dykimi@

순창 고추장, 신장 손상 완화 기능성 밝혀

전북대 공동 연구팀 과학적 규명

전통 발효식품인 '순창 고추장'이 비만으로 인한 신장(콩팥) 손상을 완화하는 데 탁월한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학계와 산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고추장의 항비만·항암 효과를 넘어 만성 질환 예방이라는 새로운 과학적 지평을 열었다는 평가다.

순창군은 (재)발효미생물산업진흥원과 전북대학교 약학대학 한안나 교수 연구팀이 진행한 공동 연구를 통해 고추장의 비만 관련 신장 손상 완화 가능성을 세계 최초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 성과는 식품과학 분야 국제 저명 학술지인 'Food Science & Nutrition'에 게재되며 그 가치를 인정받았다.

이번 연구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추진하는 '장류 기능성 규명' 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됐다.

연구팀은 사람 유래 신장 세포를 이용

한 '인 비트로(in vitro)' 실험과 생쥐를 활용한 동물 실험을 병행해 고추장의 효능을 정밀 분석했다.

실험 결과는 놀라웠다. 먼저 세포실험에서는 고추장 추출물이 신장 세포 내의 지방 축적을 직접적으로 억제하는 동시에, 비만으로 유도되는 염증 반응을 유의미하게 차단하는 것이 관찰됐다.

이어 진행된 동물실험에서는 고지방식을 13주간 섭취해 비만을 유도한 생쥐를 대상으로 실험을 진행했다. 고지방식과 고추장을 함께 섭취한 집단은 고지방식만 먹은 집단에 비해 신장 손상의 핵심 지표인 'KIM-1(Kidney Injury Molecule-1)' 수준이 약 50% 수준으로 급감했다.

실제 신장 조직을 현미경으로 관찰한 결과에서도 고지방식 섭취로 인해 파괴되고 변형됐던 신장 내부 구조가 고추장 섭취군에서는 정상에 가깝게 유지되는 등 확연한 완화 효과를 보였다.

/전북=정봉철 기자 jbc6746@

경산시, '오만가지 목소리'로 시민 소통

토크콘서트 열고 현장 목소리 청취

경산시는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직접 듣고 시정에 대한 생각을 자유롭게 나누는 '오만가지 목소리 토크콘서트'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일방적인 정책 설명에서 벗어나 시민들이 생활 속 고민과 건의사항을 직접 이야기하고 함께 답을 찾아가는 시민 참여형 소통 행사로 마련됐다.

특히 행사장과 지역 소상공인 현장을 이원생중계로 연결해 소상공인과 대학생들의 목소리를 실시간으로 공유했다.

중계 현장은 영남대학교 지역혁신동 반성장센터와 대학생들이 지역 소상공

인과 협업해 상권 활성화에 나선 곳으로, 대학생들은 지역 점포와 연계해 벽화를 조성하고 가게 환경 개선 등을 지원했다.

행사에서는 소상공인과 대학생들이 지역 상권의 어려움과 청년들의 아이디어가 가져온 변화에 대해 이야기했다. 참석 시민들도 육아와 소상공인, 청년·대학, 생활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해 질문하고 의견을 제시했다.

경산시는 이날 나온 시민들의 의견과 제안을 향후 시정 운영과 정책 추진 과정에서 검토하고 현장을 직접 찾아 목소리를 듣는 소통 기회를 확대할 계획이다.

/경산(경북)=김진곤 기자 jingon@

저가커피 ‘가격 경쟁’ 끝… 원두품질·골목상권 차별화 승부

메가MGC, 자체 로스팅 공장 가동
백다방, 스페셜티 원두 비중 강화
백악·우지커피, 생활상권 공략
텐퍼센트, 가맹점 1000호점 달성
이디야, 특수상권·해외시장 재공략

국내 저가 커피 시장의 경쟁 양상이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다. 기존 역세권과 주요 오피스 상권을 중심으로 세를 확장하던 ‘메가MGC커피·컴포즈커피·백다방’ 구도에 우지커피·백악커피·텐퍼센트커피 등 후발 브랜드들이 주거지 생활상권을 파고들면서 경쟁의 판이 넓어지는 모양새다.

이에 맞춰 업계는 ‘원두 품질 강화’와 ‘메뉴·상권 차별화’를 양대 축으로 내세우며 체질 개선에 나서고 있다.

◆ 가격에서 품질로… 스페셜티 강화

소비자들의 커피 취향이 세분화됨에 따라 저가 커피 브랜드들 또한 원두 경쟁력 향상에 주력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볶은 커피 시장 규모는 2024년 기준 1조 3225억 원으로 최근 6년간 연평균 15.8% 성장했으며, 원두 품종과 로스팅 방식을 따지는 소비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다.



백다방이 우유 품질과 원두를 차별화했다.

/백다방

이에 메가MGC커피는 충북 음성에 첫 자체 로스팅 공장을 구축하고 본격 가동에 돌입했다. 생두 수입부터 로스팅까지 본사가 직접 관리함으로써 원두 품질의 일관성과 가맹점 공급 안정성을 동시에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이디야커피 역시 자체 생산 인프라인 ‘드립팩토리’와 연구소 ‘이디야커피랩’을 바탕으로 스틱형 제품 및 싱글 오리진·더블 블렌드 라인업을 강화하고 있다.

백다방은 ‘2023 월드 바리스타 챔피언’ 엄보람 바리스타와의 협업을 통해 시그니처 블렌드의 스페셜티 원두 비율을 기존

10%에서 20%로 확대하고 우유 등 원재료의 품질을 한층 높였다.

◆ 후발주자의 생존 방정식

선두 브랜드가 핵심 상권을 선점한 상황에서 후발 브랜드들은 임대료 부담이 적고 재방문율이 높은 생활상권(주택·아파트 단지)으로 외연을 넓히고 있다.

백악커피는 팝콘, 나초, 핫도그 등 간식류를 결합한 전략으로 디저트 및 배달 매출 비중을 높이며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가맹점 수가 2022년 28개에서 올해 상반기 300개를 돌파하는 등 주거지역 반복 주문 수요를 적극 공략 중이다.



컴포즈커피 디저트 라인업.

/컴포즈커피

텐퍼센트커피는 취향별 원두 선택제와 자체 로스팅 설비를 감점으로 내세워 가맹점 1000호점(회사 발표 기준)을 달성했으며, 우지커피는 제조 및 교육의 표준화 시스템을 앞세워 가맹점 수를 가파르게 확대하며 주택가 중심의 입지 전략을 펼치고 있다.

◆ 1세대 ‘이디야’, 특수 상권과 글로벌

저가 커피와 프리미엄 브랜드 사이에 낀 이른바 ‘애매한 포지셔닝’으로 성장세가 주춤했던 1세대 토종 브랜드 이디야커피는 입지 다변화와 해외 시장 재진출로 반전을 도모하고 있다.

이디야커피는 올해 상반기 국립중앙박물관 내 5개 매장을 입점시키며, 박물관의 특성을 살린 ‘국중박물관 시그니처라떼’, 전통 다과 세트 등 독자적 메뉴를 통해 방문객들의 좋은 반응을 끌어냈다. 또한 2000년대 중후반 중국 시장 철수 이후, 최근 괌, 말레이시아 1호점 개점 및 동남아 주요국 마스터프랜차이즈(MF) 계약을 체결하며 글로벌 영토 확장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업계에서는 저가커피 프랜차이즈의 매장 수 확대가 곧바로 가맹점 및 본사의 수익성 개선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고 지적한다. 실제로 매장 수 증대에도 불구하고 수수료, 포장비, 인건비 상승 등으로 인해 영업이익률이 감소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가격 경쟁력만으로는 고객 충성도를 유지하기 어려운 구조에 다다랐다”며 “원두 차별화, 디저트 라인업 확대, 배달 효율화 등 객단가와 재방문율을 끌어올리는 동시에 개별 가맹점의 내실 있는 수익구조를 갖추는 것이 향후 생존의 핵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metro

소상공인협동조합, 판로·경영 부담 완화

통합 사무국 꾸려 공동사업 추진
교육·컨설팅·공공사업 함께 진행
전국 100개 조합 참여 기반 확대

소상공인협동조합들이 교육과 컨설팅, 공공사업, 마케팅을 함께 추진해 개별 조합의 경영 부담을 줄이고 판로를 확대한다. 통합 사무국을 구축하고 전국 100개 조합이 참여하는 연합회로 규모를 키워 공동 성장과 자립 기반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서울·강원·경기·인천지역의 소상공인협동조합 관계자들은 지난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강한 소상공인협동조합 연합회 비전포럼 2026’을 개최했다. 연합회 회원과 준회원인 협동조합 14곳 가운데 13곳이 참석했으며, 협동조합과 관련기관 관계자 등 50여 명이 자리했다. 포럼에서는 사회연대경제 정책 강연과

연합회 비전 발표, 공동사업 토론을 통해서도 다른 업종의 전문성을 연결하고 수주와 매출 등 실질적인 성과를 만드는 방안을 논의했다.

소상공인협동조합은 소상공인들이 모여 공동구매·생산·판매·홍보 등 홀로 하기 힘든 사업을 함께 추진하는 협동조합이다. 하지만 사업자 상당수가 3인 이하 규모여서 정부 지원사업 대응 등에 어려움이 컸다. 이에 개별 협동조합이 모여 ‘강한 소상공인협동조합 연합회’를 출범했다.

연합회는 올해 3월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7월 설립 승인을 받았다. 9월 워크숍에서 도출한 공동사업을 바탕으로 조직화, 공동사업, 정책 파트너의 3단계 발전 방향을 제시했다. 통합 사무국과 참여조합 확대를 기반으로 온·오프라인 공동 판매와 교육·컨설팅을 추진하고, 정부와 정책을 협의하는 조직으로 발전한다는 목표다.

이현준 강한 소상공인협동조합 연합회장은 “사무행정 쪽이 지원되지 않으면 굉장히 어려움이 많다”며 “그냥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행할 수 있는 지원 조직으로 구성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강민수 한국사회연대경제 상임이사는 사회연대경제기본법 강연에서 “단단하고 좋아지는 게 아니라 만들어서 무엇을 할 것인지는 정해야 한다”며 “공동으로 구매하고 이용하고 판매하는 것들이 사업적으로 나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업종별 특성과 공동 수요를 고려한 협업도 주문했다. 강 상임이사는 “동일한 업종에서의 연대와 협력이 훨씬 더 쉽다. 재료가 시설을 공동으로 구매하고 이용하는 것은 이(異)업종보다는 동(同)업종이 좋기 때문”이라며 내부 분과 등을 통해 사업 구조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서현 기자 seoh@

아워홈 온더고, 웹예능으로 점점 확대

홍현희 출연 딜커머스 콘텐츠 공개
대표 제품 최대 50% 할인 판매

아워홈의 냉동 도시락 브랜드 온더고가 유튜브 웹예능과 협업해 소비자 접점 확대에 나섰다. 제품의 맛과 품질을 콘텐츠로 소개하는 한편 할인 프로모션을 통해 구매를 유도한다.

아워홈은 유튜브 딜커머스 예능 ‘무(無)속인 홍현희’와 온더고 협업 콘텐츠를 공개했다고 11일 밝혔다.

‘무속인’은 방송인 홍현희가 기업을 방문해 제품의 품질과 경쟁력을 직접 확인하고 가격을 협상하는 커머스형 웹예능이다. 이번 콘텐츠에서는 온더고 제품의 조리 편의성과 맛, 품질 등을 살펴보고 시중 냉동 도시락과 배달·외식 메뉴를 비교한다. 온더고 상품 기획 및 연구개발(R&D) 담당 임직원도 출연해 가격 협상에 참여한다.

콘텐츠는 유튜브 채널 ‘스튜디오 우주



‘무(無)속인 홍현희’ 온더고 편 캡처. /아워홈

라이크yyy’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아워홈은 오는 14일까지 네이버 브랜드스토어에서 온더고 대표 제품을 최대 50% 할인 판매하는 특별 프로모션도 진행한다.

아워홈은 앞서 지난달 28일 배우 윤경호를 모델로 한 신규 캠페인 ‘진지를 진지하게’를 공개했다. 온더고는 올해 9월 기준 누적 판매량 2500만 개를 돌파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세븐일레븐, 토마토 막걸리로 젊은층 공략

영월 토마토·국산 쌀 활용 ‘즐토막’
복합주 20만병 완판 이어 전통주 확대

세븐일레븐이 이색 전통주 흥행을 이어가기 위해 토마토를 활용한 막걸리를 선보인다. 스타셰프 윤남노와 협업한 ‘복합주’가 20만병 완판을 기록한 데 이어 제철 식재료와 차별화한 디자인을 앞세워 젊은 소비자 공략에 나선다.

세븐일레븐은 오는 15일 강원도 영월 토마토와 국산 쌀을 활용한 막걸리 ‘즐토막’을 출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즐토막은 ‘즐겁고 상큼하게 즐기는 토마토 막걸리’라는 의미를 담았다. 알코올 도수는 5도다.

이번 신제품은 세븐일레븐의 막걸리 시

리즈인 ‘막’ 시리즈의 신작이다. 붉은 토마토 색감과 개성 있는 라벨 디자인을 적용했으며, 제철 식재료를 활용해 차별화를 꾀했다. 세븐일레븐은 저도주를 즐기고 다양한 재료를 조합해 마시는 소비 트렌드에 맞춰 이색 전통주 상품군을 확대하고 있다.

앞서 지난 8월 출시한 ‘윤남노 복합주’는 5차 물량까지 총 20만병이 모두 판매됐다. 고장 복분자를 활용한 복합주는 복분자주에 탄산음료를 섞어 마시는 소비자들의 음용 방식에 착안해 개발한 제품이다. 알코올 도수는 7도로 낮췄다.

세븐일레븐에 따르면 복합주 출시 이후인 8월 5일부터 10월 9일까지 전통주 케테



세븐일레븐이 토마토와 국산 쌀을 활용한 ‘즐토막’을 출시한다. /세븐일레븐

고리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20% 증가했다. 같은 기간 복합주는 전통주 매출 1위를 기록했으며, 세븐일레븐에서도 전체 상품 매출 1위에 올랐다. 앱 내 재고 찾기 검색량은 50만회를 기록했다. /신원선 기자

한섬, 21개 해외패션 브랜드 할인전

타미힐피거·DKNY 등 브랜드 참여
온·오프라인서 최대 30% 할인 제공

한섬은 오는 14일부터 20일까지 해외패션 브랜드 할인 행사인 ‘한섬 글로벌 패션 위크’를 진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타미 힐피거, 타미 진스, DKNY, 아워레가시, 피어오브갯 등 한섬이 전개하는 21개 해외패션 브랜드가 참여한다. 행사는 각 브랜드의 전국 오프라인 매장과 한섬 공식 온라인몰인 ‘더한섬닷컴’, 해외패션 전문몰 ‘H패션’에서 동시에 진행된다.

오프라인 매장에서는 타미 힐피거(남성·여성·칠드런)를 정상 판매가 대비 20% 할

인 판매하고, 타미 진스 상품은 30% 할인해 선보인다. 그 밖의 브랜드는 정상 상품과 아울렛 상품을 각각 판매가 대비 10%와 20% 할인 판매한다. 정상 상품 구매 시에는 구매 금액대별 추가 할인 혜택도 제공한다. 더한섬닷컴에서는 행사 기간 중 토렌, 아워레가시, 베로나가 비어드 등 해외패션 브랜드 구매 시 정상 상품과 아울렛 상품을 각각 10%와 20% 할인해 주는 장바구니 쿠폰을 제공한다. 해외패션 브랜드 구매 금액대별 추가 할인 쿠폰도 증정한다. 행사 기간 중 더한섬닷컴에서 해외패션 브랜드를 일정 금액 이상 누적 결제한 고객에게는 더한섬닷컴에서 현금처럼 쓸 수 있는 리워드도 추가로 지급한다. /김서현 기자

국산 비만치료제 시대 열었다 한미 ‘에페’ 이을 추격전 활발

한미약품, 신약의 5가지 함량에
국내 식약처 품목허가 최종 승인
올해 내 국내 공급·출시 준비 착수

HK이노엔, 국내 임상 3상 진입
온코닉테라퓨틱스, 연구성과 발표

국내 기술로 자체 개발한 첫 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1(GLP-1) 계열 비만 치료제가 식품의약품안전처 품목허가를 받으며 상용화 마지막 관문을 통과했다. 외 국산 약물이 주를 이루던 국내 비만 치료제 시장의 판도 변화는 물론 비만을 넘어 대사질환 전반에서 국산 신약의 경쟁력이 강화되고 있다.

11일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에 따르면 한미약품은 지난 7일 독자 개발한 비만 치료 신약 ‘에페오토인젝터주(성분명: 에페글레나타이드, 이하 에페)’의 2mg, 4mg, 6mg, 8mg, 10mg 등 5가지 함량에 대해 국내 식약처의 품목허가를 최종 승인 받았다고 공시했다.

이번 승인으로 에페글레나타이드는 후보물질 발굴부터 임상시험, 발매에 이르는 전 과정을 국내 기술력으로 일궈낸 ‘국산 비만약 1호’에 이름을 올렸다. 한미약품은 올해 안에 국내 공급 및 본격 출시를 목표로 생산 및 유통 준비에 착수했다.

에페글레나타이드는 한미약품만의 플랫폼 기술인 ‘웍스커버리’가 적용된 지속형 GLP-1 수용체 작용제다. 약물이 체내에서 서서히 방출되도록 설계돼 기존 GLP-1 계열 치료제의 주요 이상사례로 꼽히던 구토, 오심, 설사 등 위장관계 부작용을 개선했다.

이와 함께 외국산 치료제와 달리 ‘한국인 맞춤형’ 임상 데이터를 확보해 차별성을 갖췄다. 당뇨병을 동반하지 않은 성인 비만자 448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국내 임상 3상(40주차 중간 평가) 결과, 에페글레나타이드 투여군의 평균 체중 감소율은 -9.75%로 위약군 -0.95% 대비 우수한 효과를 입증했다.

특히 체중이 5% 이상 감량된 대상자는 79.42%, 10% 이상 감량된 대상자는 49.46%에 달했다. 소그룹 분석에서는 초



에페오토인젝터주(성분명: 에페글레나타이드, 이하 에페) 2mg, 4mg, 6mg, 8mg, 10mg.

/한미약품

고도비만이 아닌 체질량지수(BMI) 30kg/m² 미만의 여성군에서 체중 감소율이 12.2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자체 생산을 통한 가격 및 수급 경쟁력도 강점으로 꼽힌다. 에페글레나타이드는 한미약품 평택 바이오플랜트에서 직접 생산될 예정으로 공급 부족 및 품질 이슈에 적극 대응 가능하다.

한미약품은 에페글레나타이드의 치료 영역을 비만에서 당뇨병 및 대사질환 전반으로 확장하고 있다. 이미 글로벌 대규모 심혈관계 안전성 연구를 통해 심혈관 및 신장 질환 사건 위험 감소 효능을 확인했다. 또 SGLT-2 저해제 및 메트포르민 병용요법에 대한 임상 3상 등 당뇨 적응증 추구를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해외 시장 공략도 구체화했다. 한미약품은 올해 초 멕시코 최대 제약사 산페르와 독점 유통 계약을 체결하고 현지 허가 절차를 추진 중이다. 성인 비만 유병률이 36.8%에 달하는 멕시코를 거점으로 중남미, 중동, 동남아시아 등 글로벌 권역을 확장한다는 방침이다.

한미약품 측은 “국내 시장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철저한 품질 관리와 합리적인 가격 체계를 바탕으로 환자 건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산 1호 비만 신약의 상용화에 따라 국내 기업들의 추격 경쟁도 활발하다.

HK이노엔은 중국 사이윈드 바이오사이언스로부터 도입한 주 1회 투여 제형의 GLP-1 비만치료제 ‘IN-B00009(성분명: 에크노글루타이드)’의 국내 임상 3상에 진입해 있다. JW중외제약의 경우 올해 들어 중국 간앤리 파마슈티컬스에서 ‘보팡글루타이드’를 들여왔다. 지난 8월 식약처에 비만, 제2형 당뇨병 등에 대한 국내 임상 3상시험계획서(IND)를 연달아 제출했다. 보팡글루타이드는 주 1회 피하주사 제형으로 개발되고 있어 투약 횟수를 줄이는 등 편의성을 극대화하는데 중점을 둔다.

위식도역류질환 치료제 ‘자큐보’ 등으로 신약개발 및 상업화 경험을 보유한 제일약품 연구개발 기업 온코닉테라퓨틱스도 기대감을 높인다. 오는 11월 14일 미국에서 막을 올리는 세계 최대 비만 학회 ‘오비시티워크 2026’에서 미공개 차세대 비만 신약 후보물질의 연구 성과를 구두 발표할 예정이다.

국내 신약개발 바이오핵 관계자는 “한미약품의 에페글레나타이드 허가는 외산 의약품 중심의 국내 GLP-1 시장에서 국산 신약의 상업화 가능성을 보여준 사례”라며 “후발 주자들의 임상 가속화와 함께 국산 비만치료제의 시장 진출 확대가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청하 기자

mlee236@metroseoul.co.kr



숨37, 고급 에센스 입지 강화

시크릿 에센스, 5세대로 새롭게 선보
8700시간 발효 기술로 피부 체력 ↑
피부 전환 주기, 보습·탄력 개선 효과

LG생활건강의 자연·발효 뷰티 숨37이 고급 에센스 시장에서 브랜드 입지를 강화한다.

숨37은 대표 제품 ‘시크릿 에센스’를 5세대 제품으로 새롭게 선보인다고 11일 밝혔다. 시크릿 에센스는 결광 피부를 관리하는 스킨케어이며 2009년 출시부터 지금까지 335만 병 이상 판매됐다.

이번 신제품은 8700시간 발효 기술을 집약했다. 피부 속 노폐물과 산화 스트레스를 비우고, 영양은 채워, 피부 장벽을 지키는 3단계 메커니즘을 설계해 지속적인 피부 본연의 체력을 키워준다.

특히 숨37 독자 성분인 ‘사이토시스(CYTOSIS)’를 처방해 피부바탕을 정돈한다. 피부 임상연구에서 시크릿 에센스 사용 1주일 만에 피부 전환 주기를 56% 개선하는 효과를 입증했다.

또 90% 발효 원액과 기존 대비 14.4% 미세해진 독자 ‘멜팅 세라마이드’를 결합해 보습과 탄력을 구축한다. 이 발효 원



숨37 ‘시크릿 에센스’. /LG생활건강

액은 시크릿 에센스만의 핵심 성분으로 자연 발효 성분에서 분리한 200여 종의 균주에서 선별된 독자 균주 2종을 적용했다.

숨37 브랜드 관계자는 “5세대 시크릿 에센스는 온전히 숨쉬는 피부를 위한 ‘바이오 브레스 과학’ 헤리티지의 결정체”라며 “피부의 편안함과 일상의 건강한 균형을 전달하는 바이오 웰니스 브랜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청하 기자 mlee236@

한올바이오파마, 탈모약 필요한 만큼 사용

국소 도포형 탈모치료제 ‘판그로액 5%’

대용제약 특수관계 기업 한올바이오파마가 먹는 약부터 바르는 약까지 아우르며 탈모 치료 포트폴리오를 확장했다.

한올바이오파마는 두피에 직접 도포하는 국소 도포형 탈모치료제 ‘판그로액 5%’를 새롭게 출시한다고 11일 밝혔다.

‘판그로액 5%’는 일반의약품으로 남성형 탈모증(안드로젠탈모증) 치료에 쓰인다. 미녹시딜 성분을 처방했으며 200mL 대용량으로 구성했다. 스프레이 형태를 적용했고 필요한 만큼 덜어 사용할 수 있는 소분 용기를 함께 제공해 사용 편의성을 높였다.

이번 신제품 출시로 한올바이오파마는

주요 탈모 치료 성분과 제형을 모두 갖췄게 됐다. 기존 제품으로는 피나스테리드 제제 ‘헤어그로징’, 두타스테리드 제제 ‘아다모징’ 및 ‘아다모연질캡슐’, 탈모 보조 치료제 ‘판그로캡슐’ 등을 보유하고 있다.

또 지난 2022년 대전공장에 탈모치료제 전용 자동화 생산 시설을 구축하는 등 탈모 치료 경쟁력을 지속 강화해 왔다. 그 결과, ‘헤어그로징’의 경우 2025년 9월 월 판매량 250만 정을 돌파하는 성과를 냈다.

박수진 한올바이오파마 대표는 “전용 생산라인과 다채로운 제품 포트폴리오를 바탕으로 탈모 치료 사업 기반을 다져왔다”며 “경구제와 외용제를 아우르는 라인업을 강화해 탈모치료제 전문 제약사로 입지를 공고히 하겠다”고 말했다. /이청하 기자

아모레퍼시픽 설화수 ‘옥용팩’ 재단장

아모레퍼시픽의 글로벌 럭셔리 뷰티설화수가 브랜드 대표 제품 필오프 마스크 ‘옥용팩’을 재단장했다고 11일 밝혔다.

설화수 옥용팩은 지난 19년간 누적 판매 1130만 개를 기록하며 꾸준한 판매고를 올리고 있다. 피부 모공 속 과잉 피지와 노폐물을 제거해 주는 제품이다. 특히 블랙헤드와 화이트헤드는 물론 미세 솜털까지 함께 정돈해 피부를 매끈하게 관리할 수 있다.

이번 재단장으로 필오프 마스크 특유의 피부 자극과 당김 현상을 대폭 개선했다. 콜라겐과 5종 히알루론산을 새롭게 배합해 마스크를 떼어낸 후에도 촉촉한 보습감을 유지하도록 돕는다. 여기에 설화수 독자 성분인 ‘자음단’을 더해 민감해진 피부를 편안하게 진정시키고 피부 장벽을 탄탄하게 한다. /이청하 기자

‘광동 V라인 슬림핏’, 올리브베리 입점

광동제약, 올리브베리 4곳서 선배
체지방 감소 도움 기능성 인정 받아

광동제약이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탄산음료 ‘광동 V라인 슬림핏’을 CJ올리브영의 건강 특화 매장 올리브베리에 입점시키며 웰니스 시장 공략에 나섰다.

광동제약은 광화문점, 강남점, 스타필드안성점, 코엑스점 등 총 4곳 올리브베리에서 광동 V라인 슬림핏을 선보인다고 11일 밝혔다.

광동 V라인 슬림핏은 기능성 표시 제품으로 국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줄 수 있음’ 기능성을 인정받은 개별인정형 원료 ‘옥수수수염·레몬밤추출 복합물(CL-5MoA)’를 함유한다.

해당 원료의 기능성은 인체적용시험을 통해 확인됐다. 체질량지수(BMI) 25~32kg/m²인 만 19~65세 국내 성인 남녀 105명을 대상으로 한 인체적용시험에서 12주 섭취 후 체지방량, 체지방률, 체중, BMI 등이 유의적으로 감소했다.

또 당류·카페인·착색료를 빼 놓은 ‘3제로(0)’ 설계로 건강한 수분 보충을 원하는 소비자 요구를 충족한다. 레몬의 상큼함과 탄산의 청량감이 더해진 것도 특징이다.

광동제약 관계자는 “웰니스 트렌드에 민감한 고객들이 광동 V라인 슬림핏을 더욱 가까이에서 경험할 수 있도록 올리브베리 입점을 추진했다”며 “앞으로도 소비자의 라이프스타일에 맞춘 다채로운 오프라인 유통 채널과 프로모션을 선보이겠다”고 말했다. /이청하 기자

유한양행 “젤리로 일상 활력 채우세요”

구미데이 비건 멀티비타민&미네랄
헬시플레저 트렌드, 비건 가치 담아

유한양행이 종합 영양 보충 브랜드 ‘센스밸런스’에서 구미형 건강기능식품을 기획하며 헬시 플레저 시장을 적극 공략한다.

유한양행은 물 없이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필수 영양을 채울 수 있는 ‘구미데이 비건 멀티비타민&미네랄’을 공개한다고 11일 밝혔다. 영양성분 최적화와 섭취 편의성을 갖춘 것이 특징이다. 현대인에게 부족하기 쉬운 비타민과 미네랄을 균형 있게 설계해 하루 2알로 일상에 활력을 더해준다.

특히 식물성 원료 기반의 비건 인증을 정식 획득해 비건 라이프스타일을 추구하거나 엄선된 성분을 따지는 소비자들의 선택 폭을 넓혔다.

구미 특유의 쫄쫄하고 탱글한 식감과 새콤달콤한 과일 맛도 구현했다.

유한양행 관계자는 “즐겁게 건강을 챙



센스밸런스 ‘구미데이 비건 멀티비타민&미네랄’. /유한양행

기는 헬시플레저 트렌드에 맞춰 맛과 영양, 비건 가치까지 모두 담아 제품을 다듬었다”며 “앞으로도 소비자의 다채로운 라이프스타일과 니즈를 반영한 건강기능식품을 지속적으로 선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청하 기자

2026 제약 · 바이오 포럼

노화를 되돌리다

역노화 기술이 여는 바이오산업의 미래

2026년 10월 21일(수) 오후2시 | 서울 을지로 페럼타워 페럼홀



● 행사개요

행 사 명 2026 제약 · 바이오 포럼
주 제 노화를 되돌리다 : 역노화 기술이 여는 바이오산업의 미래
일 시 2026년 10월 21일(수) 14:00~17:10 (VIP 티타임 13:30~14:00)
장 소 서울 을지로 페럼타워 페럼홀
주 최 메트로신문, 메트로경제
후 원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한국바이오협회
등 록 사전등록 참가비 무료, 현장등록 5만원
문 의 제약 · 바이오 포럼 사무국 02)721-9818, forum@metroseoul.co.kr
※ 2시 30분 이후에는 행사장 입장이 불가하오니 양해부탁드립니다.
※ 포럼에 참가하는 분께
고급 3단 완전자동 양우산을 증정합니다.



● 오시는 길

페럼타워 |
서울시 중구 을지로5길 19
페럼타워 3층 페럼홀
(2호선 을지로입구역 3번 출구)



● 프로그램

※ 상기 일정은 사정에 의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구 분	시 간	프 로 그 램
참가등록	13:00~14:00	참가접수 및 등록 ※VIP티타임: 13:30~14:00
개막식	14:00~14:20	<축사> 백종현 국회의원 이재국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부회장 이승규 한국바이오협회 상근부회장 <개회사> 이장규 메트로경제 대표이사
기조강연	14:20~15:00	권은수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노화융합연구단장
강연	15:00~15:30	전해민 한미약품 미래성장부문 융합센터 센터장
	15:30~16:00	유종만 오가노이드사이언스 대표
	16:00~16:30	조경아 메디스팬 대표
	16:30~17:00	양재현 카이스트 뇌인지과학과 교수



한진, 준법경영 성과 인정… 컴플라이언스 대상

한진이 제 6회 대한민국 컴플라이언스 어워즈에서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대상'을 수상했다. 11일 한진에 따르면 한국컴플라이언스협회가 주관하는 대한민국 컴플라이언스 어워즈는 국내 준법 경영 발전에 기여한 기업 및 기관을 선정하는 시상식이다. (왼쪽 두번째부터)한진 강수호 준법지원실장, 한국컴플라이언스협회 김은성 이사장, 한진 최종석 정책기획담당 부사장 등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진



한국전력, 눈 건강 증진 공로 복지부 장관상 수상

한국전력이 지난 8일 '제56회 세계보건기구(WHO) 눈의 날' 기념식에서 눈 건강 증진과 실명 예방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보건복지부는 매년 눈 건강 증진과 실명 예방에 기여한 개인 및 기관을 선정해 포상하고 있다. 사진은 세계보건기구(WHO) 눈의 날 행사 모습. /한전



풀무원재단, 경남 교사 대상 공감교육 연수 진행

풀무원재단이 경남 지역 교원들의 공감교육 지도 역량 강화에 나섰다. 통영RCE세자트라숲과 협력해 공감과 존중, 협력의 가치를 학교 현장에 확산하고 지속가능발전교육(ESD) 기반을 넓힌다는 계획이다. 지난 8일 열린 공감교육 교원 연수 프로그램' 행사는 유치원, 초·중·고 교사 30여 명이 참석했다. /풀무원재단



JW중외제약, 임산부 철 결핍 조기 진단 캠페인

JW중외제약이 10월 10일 '임산부의 날'을 맞아 철 결핍 진단의 중요성을 알리는 등 여성 질환 치료 저변을 확대했다. JW중외제약은 지난 8일 사내에서 임산부의 날 기념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11일 밝혔다. 임신 중 발생하기 쉬운 철결핍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빈혈로 악화하기 전 초기 단계부터 올바른 진단과 관리가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JW중외제약



CJ대한통운, 브랜드 캐릭터 '오네 프렌즈' 공개

CJ대한통운이 배송 브랜드 '오네(O-NE)'를 대표하는 신규 캐릭터 '오네 프렌즈'를 공개하며 고객과 소통을 확대한다. 11일 CJ대한통운에 따르면 오네 서비스를 보다 쉽고 친근하게 경험할 수 있도록 개발한 브랜드 캐릭터 '오네 프렌즈'를 자사 공식 SNS 채널을 통해 선보였다. /CJ대한통운

롯데, 장애인·비장애인 8000명 한마음으로 달렸다

제11회 슈퍼블루마라톤 성료 장애인 향한 바른 언어 사용 독려

롯데가 스포셜올림픽코리아와 함께 9일 서울 상암 월드컵공원 평화의광장 일대에서 '제11회 슈퍼블루마라톤'을 개최했다.

'슈퍼블루마라톤'은 장애인의 희망과 자립을 상징하는 파란색 운동화 끈을 묶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달리는 행사로, 2015년 처음 시작해 올해까지 약 9만 명이 참가했다.

올해 슈퍼블루마라톤에도 장애인과 비장애인 8000여 명이 참석해 함께 달리며 장애인 인식 개선의 의미를 되새겼다. 참가자들은 기록과 순위를 넘어 서로를 응원하며 같은 공간을 함께 달렸다.

롯데는 이번 행사가 한글날에 열린 점을 고려해 캠페인 주제를 '한글날,



롯데가 9일 서울 상암동 평화의공원 평화광장 일대에서 '제11회 슈퍼블루마라톤'을 개최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 8천여 명이 참석해 서로의 손을 잡고 달리며 장애인 인식 개선의 의미를 되새겼다. /롯데지주

장애인에게 아름다운 말을 전하세요'로 정하고,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장애인에 대한 올바른 언어 사용 캠페인을 펼쳤다. 또한 기존 완주 메달에 영문으로 표기했던 대회명을 한글로 넣어 제

작했다. 롯데 계열사들도 행사에 참여했다. 롯데월드의 캐릭터인 로티와 로리는 대회 현장을 찾아 참가자들을 응원했고, 롯데월드푸드·롯데칠성음료·코리아

서울교육 70년 역사·미래 한자리에

서울시교육청 개청 70주년 용산구청사서 '기록 주간' 운영

서울시교육청이 개청 70주년을 맞아 서울교육의 변화와 역사를 살펴보는 기록 주간을 운영한다. 근대 학교의 역사를 다룬 전시부터 미래 교육 공간을 논의하는 포럼, 기록관리 특강까지 다양한 행사를 통해 교육 관련 기록을 소개한다.

서울시교육청은 12일부터 16일까지 서울 용산구 청사에서 '서울교육 기록 주간'을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교육청은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가 발족한

1956년 10월 2일을 기준으로 올해 개청 70주년을 맞았다.

특별전 '꿈을 키운 서울 근대 학교 140년의 이야기'는 12일부터 11월 30일까지 청사 1층 중앙 로비 홀에서 열린다. 개막식은 13일 오전 10시 30분이다.

전시는 근대 학교의 등장부터 광복과 전쟁 시기의 교육, 교실 환경과 교육 기회의 변화, 교육자치와 디지털 교육까지 6개 주제로 구성했다. 옛 교과서를 활용해 당시 학교와 학생의 모습을 살펴보는 실물 전시도 마련한다.

/김수정 기자 kcrystal@

동아제약, 44년간 女 문학인 꿈 키웠다

국내 최장수 여성 백일장 지원

동아제약이 1983년부터 44년간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는 '국내 최장수 여성 백일장'을 지원하며 국내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동아제약은 지난 7일 서울 종로 마로니에공원 일대에서 열린 '제44회 마로니에 여성 백일장'이 성황리에 마무리됐다고 11일 밝혔다.

마로니에 여성 백일장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주최하고 동아제약, 동아에스티, 수석문화재단, 문화체육관광

부가 후원한다. 여성 문학인 발굴 등에 중점을 뒀던 매년 개최되고 있다.

올해는 '사춘기', '강아지', '흔적', '산책'이 글제로 제시됐고 현장 참가자들은 창작에 대한 열정과 글솜씨를 펼쳤다. 이날 시상식에서는 시, 산문, 아동문학 부문에서 총 29명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부문별 장원에는 백지안 씨(시), 임은하 씨(산문), 장태희 씨(아동문학)가 각각 선정됐다. 수상작은 향후 작품집으로 발간되고 문학광장 누리집과 브런치스토리를 통해 공개된다.

/이청하 기자

인사 ◆국가보훈부 ◇국장급 승진△부산지방보훈청장 박경미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국장급 △성과관리정책관 양찬희 △소통메시지비서관 선근형 △제7상임심판관 이화진 △제8상임심판관 서정훈 △경찰개혁추진단 부단장 김홍수 △국가드론·대드론 전략추진단총괄기획관 정동혁 ◇과장급 △법무감사담당관 천정범 △경제총괄과장 이아연 △홍보기획행정관 고지숙

부음 ▲지춘자(향년 81세)씨 별세, 도기천(CNB뉴스 편집국장)씨 빙모상 = 10일, 전남 목포 서해

안장례식장 101호, 발인 12일. 061-246-4444

▲김광선(향년 82세)씨 별세, 배덕순씨 남편상, 김일호(국민의힘 서울 강서병당협위원장)·김서현씨 부친상 = 10일 5시, 이대서울병원 장례식장 특5호실, 발인 13일 오전 7시30분. 02-6986-4440

▲김한순(향년 92세)씨 별세, 장석영(인천 베델교회 목사)·장석일·장영미·장석명(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씨 모친상, 유미애·오영주(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씨 시모상, 최영대씨 장모상 = 11일 오전 8시50분, 은평성모병원 장례식장 1호실, 발인 13일 오전 7시30분, 장지 경북 예천 선영. 02-2030-4444

한국벤처투자·KOSA, AI기업 성장 지원

업무 협약 맺고 글로벌 진출 지원

한국벤처투자가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KOSA)와 손잡고 유망 AI·SW 투자지원 생태계 확대 등에 나선다.

한국벤처투자는 KOSA와 유망 AI·SW 기업의 성장 생태계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한국벤처투자의 모태 펀드 AI·SaaS 및 글로벌 자펀드 투자 네트워크와 국산 AI 기술의 공공 실증 경험을 KOSA의 기술·산업 네트워크와 연결해 유망 AI·SW 기업의 발굴 및 투자유치와 기술 실증·사업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에 따라 양측은 ▲유망 AI·SW 투자지원 생태계 확대 ▲AI·SW 기술·시장 수요와 투자를 연결하는 정보 교류 파이프라인 구축 ▲AX 및 AI 기술 실증 사례 확산을 위한 연계 ▲AI·SW 기업의 글로벌 진출 지원 등에 나선다.

세븐은 간식을 제공했다.

롯데 관계자는 "슈퍼블루마라톤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달리며 서로의 다름을 이해할 수 있도록 기획된 사회공헌 활동"이라며 "앞으로도 장애인 인식 개선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기획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롯데는 발달장애인 스포츠 활동을 지원하는 사단법인 스포셜올림픽코리아와 2014년부터 장애인 인식 개선을 위한 'BLUE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BLUE 캠페인은 장애인에 대한 바른 언어 사용과 인식 개선을 위한 캠페인으로, 'Beautiful Language Use will Echo(아름다운 말은 울림이 됩니다)'의 약어다. 슈퍼블루마라톤은 매년 가을 진행되는 캠페인의 대표 행사다.

/김서현 기자 seoh@metroseoul.co.kr



한국벤처투자 이대희 대표(왼쪽)가 한국인공지능 소프트웨어협회 조준희 회장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국벤처투자

이대희 한국벤처투자 대표는 "협약을 통해 한국벤처투자의 투자 네트워크와 KOSA의 기술·산업 네트워크를 연결해 유망 AI·SW 기업의 투자와 성장 기회를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며 "투자에 그치지 않고 기술 실증과 사업화, 시장 확대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국내 AI·SW 기업의 성장 기반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김승호 기자 bada@

콜마비엔에이치, 계룡산 생태계 복원

토종 자생식물 총 1400주 식재

국내 대표 건강기능식품 제조개발 생산(ODM) 기업 콜마비엔에이치가 생물 다양성 보전, 생태계 회복 등에 중점을 두며 친환경 경영을 계속한다.

콜마비엔에이치는 지난 7일 계룡산 국립공원 밑목재 생태통로 일원에서 계룡산국립공원사무소와 함께 '생태계 교란 식물 방제 활동'을 실시했다고 11일 밝혔다. 돼지풀, 미국쑥부쟁이, 애기수영 등 국내 생태계 균형을 저해하는 교란 식물의 확산을 막고 자생 식물 위주의 생물 환경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봉사단은 교란식물 제거작업과 함께 산딸나무, 산뽕나무, 단풍나무 등 토종 자생식물 총 1400주를 식재했다. 약 3500㎡ 규모의 자생 생물 기반지를 조성해 다양한 생물의 서식 공간을 확



지난 7일 계룡산국립공원에서 콜마비엔에이치 임직원들이 자생식물을 식재했다. /콜마그룹

보했다. 또 식재된 자생식물을 통해 연간 약 11톤 수준의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효과까지 거두겠다는 복안이다.

아울러 콜마비엔에이치는 지난 2024년부터 자연환경 복원 및 재생 프로젝트를 추진해 왔다.

/이청하 기자 mlee236@

대한민국의 아름다운 숨은 길을 세계적인 관광상품으로

대한민국 로열로드 45

지정도시 전국 모집

관광객이 미처 알지 못했던 대한민국의 아름다운 길,
로열 로드카를 타고 만나는 45 개의 특별한 여행



전국 45 곳 발굴 · 45 개 공식 지정 · 1 곳 당 로드카 20~30 대, 2~3 개 팀 운영

1개 팀 10대 · 관광객 20명

2~3개 팀 20~30대



모집 대상

왕실문화·역사·바다·강·호수·산사·농촌 풍경 등 대한민국의 아름다운 길을
로드카 20~30대가 2~3개 팀으로 나뉘어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는 지역

선정 지역에는 노선개발·여행상품·공동홍보·통합예약·지정도시 인증을 지원합니다



권장 신청구조

지자체 + 지역 운영파트너 + 상인·주민 협의체

지역의 길을 관광산업으로 바꿀 대한민국 로열로드 지정도시를 찾습니다

사업 참여 문의 010-3414-4939



해외 게임사도 이제는 ‘국내 대리인’ 뒤야



박 상 오 변호사의
콘텐츠 법률 산책

국내에서 높은 매출을 올리던 해외 모바일 게임이 어느 날 갑자기 서비스 종료를 공지하고, 이용자가 환불을 문의하려 해도 연락할 곳조차 찾기 어려운 경우가 적지 않았다. 이른바 ‘떡튀’ 논란이다. 확률형 아이템 정보를 제대로 표시하지 않아 시정요청을 받더라도, 국내에 주소나 영업장이 없는 해외 게임사에 대해서는 그 이행을 담보할 마땅한 수단이 없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도입된 것이 해외 게임사의 국내대리인 지정제도이다.

먼저 입법 경위를 살펴보면, 해외 게임사에 국내대리인을 두게 하지는 법안은 2020년 무렵부터 여러 차례 발의되었으나 번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였다. 그러다 2024년 3월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의무가 시행된 이후 적발된 위반 사례의 과반이 해외 게임사에 집중되면서 입법 필요성이 다시 부각되었고, 결국 2024년 10월 22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법’)이 개정되어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5년 10월 23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따능AI

현행 게임산업법 제31조의2에 따르면,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장이 없는 게임배급업자 또는 게임제공업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국내대리인을 서면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은 ▲ 전년도 전체 매출액이 1조 원 이상인 자 ▲ 국내 이동통신단말장치 설치 건수가 전년도 일평균 1천 건 이상인 게임물을 제공하는 자 등을 그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국내대리인은 국내에 주소나 영업장이 있어야 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등의 보고 요구에 대한 이행과 확률형 아이템 정보를 포함한 게임물 표시의무의 이행을 대리한다. 이러한 지정 의무를 위반하면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위 국내대리인 지정과 관련해서는 실무상 다음과 같은 부분을 주의하여야 한다.

첫째, 게임산업법은 국내대리인이 위 업무와 관련하여 법을 위반한 경우 게임사가

그 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제31조의2 제4항). 명목상 대리인만 세워두고 확률 표시 등을 방지한다면 그 책임은 고스란히 게임사에 돌아온다는 의미이다.

둘째, 국내대리인의 성명(법인명은명칭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및 전자우편주소를 이용약관에 기재하여야 하고, 대리인은 게임사와 유효한 연락수단을 확보하여야 한다. 셋째, 지정 대상 여부는 매출액과 설치 건수에 따라 매년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해마다 점검이 필요하다. 넷째, 확률형 아이템 표시의무 자체는 대리인 지정 대상인자와 관계없이 적용된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언론보도 등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지정 대상 81개사 중 80개사가 국내대리인 지정을 마쳤다고 한다. 그러나 확률 미표시 사례는 여전히 적발되고 있고, 국회에서는 국내대리인의 업무를 이용자 피해 예방까지 넓히고 게임사에 대리인 관리·감독 의무를 부과하는 개정안도 논의되고 있다. 제도가 ‘지정’ 단계를 지나 ‘실질적 이행’을 점검하는 단계로 들어선 셈이다. 국내 시장에 진출한 해외 게임사는 물론 대리인 역할을 맡는 국내 파트너사 역시 형식적인 지정에 그치지 않도록 내부 관리체계를 갖춰 둘 필요가 있다.

/법무법인 바른

전역모와 넓어지는 병역 특례 폐지 공감대



기자 수첩
박 태 홍
(정치부)

1990년대생 가운데 병장으로 만기 전역한 사람은 전역모에 대한 추억 하나 정도는 있을테다. 기자의 부대는 선임의 전역을 축하하기 위해 후임들이 돈을 모아 전역모에 사단 마크를 붙여주고, 1년 반 가까이 부대에서 동고동락하던 군대 동기부터 얼굴을 마주 대한 지 한 달도 안되는 이등병까지 소대원의 이름을 바아졌다. 전역모는 전역증과 함께 20대 초반 1년9개월 가량 군에 복무했던 사실을 보여주는 몇 안 되는 상징적인 물품이다.

이런 전역모가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에서 논란이 됐다. 한국23세 이하(U-23) 남자 축구 대표팀 일부 선수들이 아시안

게임 축구 결승전에서 일본에게 1대0으로 신승을 거두고 전역모를 쓴 사진을 SNS에 올린 것이 문제가 됐다.

이 선수는 팬에게 전역모를 받아 썼다고 하는데, 교체로 세 경기에 출전해 총 16분을 뛰고 병역 특례를 받아 빈축을 샀다. 이와 함께 대표팀을 전원 프로선수들로 구성해 일본 사회인 야구팀과 붙여 예선에서 지고, 결승에서 겨우 이긴 야구 대표팀과 묶여 아시안게임 금메달 병역 특례 폐지론에 불을 지폈다.

올림픽에서 3위 안에 들거나 아시안게임에서 1위를 한 선수는 관련 법령에 따라 예술·체육요원으로 복무한다. 4주 간의 기초 군사 훈련을 받고 34개월 동안 요원의 신분을 유지한다. 그동안 총 544시간의 청소년 체육 지도 등 봉사활동을 해야 한다. 예술·체육요원은 소속 프로팀에서 계속 선수 생활을 할 수 있어 해외 진출을 앞두고 있는 선수들은 자신의

몸값을 올릴 수 있다.

비무장지대에서 북한군이 심어놓은 자뢰가 폭발해 우리 군 장병이 중상을 입은 사고로 안보 상황이 급박한 사이 정치권에선 아시안게임 금메달 병역특례 폐지 목소리가 분출했다. 관련 병역 특례 폐지 법안도 나왔다. 특히 이번 대회에서 병역 특례 혜택을 받은 57명 중 야구·축구 대표팀이 36명에 달하면서 ‘병역 브로커’ 역할을 하고 있다는 비판이 이번 대회에도 나왔다.

대한체육회와 축구협회가 사과에 나서면서 특례 폐지론은 수면 아래로 가라앉는 듯 보인다. 일부 선수의 일탈로 치부하는 분위기다. 다만, 태극마크의 무게를 망각한 행동이 반복된다면, 특례 폐지론에 실리는 공감대는 다시 커질 것이다. 아울러 체육 현장 지도자와 미래 체육인들의 자성도 필요하다.

/pth7285@metroseoul.co.kr

재미로 보는 오늘의 운세 10월 12일 (음 9월 2일) 포춘토리(www.fortunetory.com)



48년생 다투기 있으면 손해만 봅니다. 60년생 곤란한 일이 생기게 됩니다. 72년생 어려움이 많으니 중도에서 실패할 수 있습니다. 84년생 중심을 잃지 않도록 노력하세요.



49년생 반기는 사람 하나 없습니다. 61년생 막힘이 많아 심신이 편안하질 못합니다. 73년생 자금회전이 쉽지가 않습니다. 85년생 과소비 또한 줄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50년생 인내심과 끈기가 많이 필요합니다. 62년생 2년을 기다려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74년생 분명히 소원을 이루게 됩니다. 86년생 평소 생활을 계속해 나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51년생 일손을 놓고 쉬고 있을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63년생 차성을 다해 빌도록 하세요. 75년생 사업은 차차 전진이 있습니다. 87년생 여기저기서 구원의 손길이 찾아옵니다.



52년생 천리 길도 한 걸음부터입니다. 64년생 업무를 축소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76년생 주변의 여건이 너무 맞지 않습니다. 88년생 물건을 잃어버리는 것도 습관적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53년생 큰 욕심을 내면 이루어지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65년생 하늘이 큰 복을 주니 모든 일은 반드시 이룰 것입니다. 77년생 금전운이 좋습니다. 89년생 동쪽으로의 여행은 길합니다.



54년생 얻는 것이 많으니 세상 일이 태평스럽습니다. 66년생 친구들을 만나세요. 78년생 행복한 미래에 대해 고민하게 됩니다. 90년생 사소한 것에 신경 쓴다면 득이 있겠습니다.



55년생 북쪽으로 가세요. 67년생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입니다. 79년생 공로를 인정하여 포상을 구상하게 됩니다. 91년생 현재 벌이는 사업이 남들이 부러워할 정도의 궤도에 올라서게 됩니다.



56년생 차조심해야 하겠습니다. 68년생 욕심을 부리면 서두르게 되니 차분히 생각하세요. 80년생 새로운 운의 흐름을 맞게 되어 기쁘겠습니다. 92년생 집에 있는 것이 좋으니 외출은 삼가하세요.



57년생 작은 소원을 이룰 수 있겠습니다. 69년생 주위에 길한 기운이 가득하니 모든 근심은 사라집니다. 81년생 부와 명예를 누릴 세월을 맞이하게 됩니다. 93년생 애정운이 길합니다.



58년생 크게 바라지 않으면 이룰 수 있습니다. 70년생 막혔던 일들이 서서히 풀립니다. 82년생 본인의 마음가짐이 중요한 것입니다. 94년생 인간관계를 견고하게 해두어야 합니다.



59년생 남쪽에 귀인이 있습니다. 71년생 과음을 조심하는 것이 좋습니다. 83년생 작은 것에 만족할 줄 알아야 합니다. 95년생 우연한 기회에 이상형의 이성을 만나게 됩니다.



김상회의四季 길상 인연

사람들은 백마 탄 왕자나 재벌집 자제와 같은 인물과의 결혼이나 로맨스를 꿈꾼다. 신분 상승이 함께 하는 꿈같은 사랑, 실제로 아름다운 미모를 가진 여자가 남자가 자신이 갖지 못한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배우자나 연인을 만나서 “행복하게 살았대요!” 하는 동화 같은 인연을 기대한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게 녹록하지 않다. 설사 꿈꾸던 것처럼 모두가 부러워할 만한 결혼을 했다 하더라도 뚜껑을 열어보면 불행한 결말을 보여주는 예가 부지기수이다. 팔자에서 이성 간에는 무계지정(戊癸之情)을 꺼리는 데, 처음은 화염처럼 뜨겁게 타오르지만, 그 끝은 냉정한 비정이 되는 인연이기에 차라리 만나지 않는 것이 더 나았을 인연을 말함이다.

세기의 로맨스라 일컬어지는 영국의 에드워드 8세와 심프슨 부인의 인연, 이들이 모두가 부러워하는 좋은 인연일까? “사랑하는 여인의 도움 없이는 국왕의 의무를 다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라고 선언하며 왕위를 내려놓았고 그 후 35년간을 해로했지만, 심프슨 부인과 에드워드 8세의 로맨스에 의문을 품게 하는 문서들이 대중에게 속속 알려졌다. 에드워드 8세와 엄문을 퍼뜨릴 당시에 심프슨 부인에게 또 다른 애인이 있었다는 이야기나 당시 주영대사로 나와 있던 독일인과의 밀회 등은 이들의 인연이 왕위마저 박차고 나온 에드워드 8세에게는 진정 길상 인연이었는지 가우뿔하게 만든다. 심프슨 부인은 재혼을 넘어 삼혼임에도 왕의 신분이었던 사람과의 결혼으로 신분 상승이 되었으니 엄청난 행운일 수 있으나 에드워드 8세의 입장에서 과연 ‘과문의 사랑’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닐 수 있다. 당나라 현종과 천하일색이라 일컬어지던 양귀비의 만남은 또 어떠한가? 양귀비는 경국지색이라는 불명에(?)와 함께 목숨을 잃었다. 극렬한 사랑만큼이나 그 끝도 극렬하다면 명리학에서는 그것을 길상 인연이라고 하지 않는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희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 02)721-9800, FAX: 02)730-1551

발행·편집인	이장규	편집국장	윤휘중
인쇄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 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일반 일간신문, 무료>	서울 가00206	2002년5월28일 제6010호	
일간 메트로경제 <유료, 월 2만원>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2114호	

본지는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서약서로서 신문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HDC·계룡건설 자사주 소각… 건설사 주주환원 강화 나선다

상법 개정에 기업 자사주 소각 확대
HDC 771억, 계룡건설 2.7억 소각
대우건설도 2만1918주 소각 결정
주주환원 확대 등 주주가치 제고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한 개정 상법 시행 이후 건설사들도 보유 주식 정리에 나서고 있다. HDC(IPARK현대산업개발지주사)와 계룡건설이 나란히 자사주 소각을 결정한 데 이어 지난달에는 대우건설도 소각 계획을 공시했다. 기업별 소각 규모와 배경은 다르지만, 개정 상법 시행을 계기로 건설업계에서도 자사주 정리 움직임이 이어지는 모습이다

1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HDC는 지난 8일 이사회를 열고 보유 중인 자기주식 341만3340주를 소각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7일 종가 기준 약 771억원 규모로, 전체 발행주식의 5.7%에 해당한다. 소각 예정일은 오는 15일이다.

이번에 소각하는 주식은 HDC가 기존에 보유한 자사주 1024만20주의 3분의 1 수준이다. 소각 이후 발행주식 수는 5974



HDC 사옥.

만1721주에서 5632만8381주로 줄어든다.

HDC는 지난해 12월 3개년 중장기 배당정책을 수립한 데 이어 2025 사업연도 주당 배당금을 기존 350원에서 450원으로 28.6% 늘리는 등 주주환원 정책을 확대해 왔다.

자사주 소각은 기업이 보유한 자기주식을 없애 전체 발행주식 수를 줄이는 것이다. 자사주를 사들인 뒤 계속 보유하는 것과 달리 소각된 주식은 다시 시장에 나올 수 없다. 발행주식 수가 줄면 기존 주주들의 지분율이 상대적으로 높아지고 주당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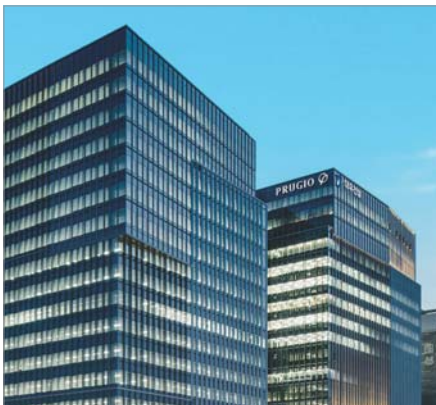


계룡건설 사옥.

이익(EPS) 등 주당 지표가 개선될 수 있어 대표적인 주주환원 수단으로 꼽힌다.

계룡건설도 이날 자사주 소각을 결정했다. 소각 대상은 보유 자기주식 1만2760주로, 지난 7일 종가 기준 약 2억7179만원 규모다. 전체 발행주식의 약 0.14%에 해당한다.

계룡건설 관계자는 “이번 소각은 기존에 보유 중인 자기주식을 없애는 것으로, 자본금 감소 없이 발행주식 수만 줄어드는 방식”이라며 “오는 16일 실제 소각이 이뤄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대우건설 사옥.

대우건설도 지난달 10일 이사회를 열고 보유 자기주식 2만1918주를 소각하기로 결정했다. 소각 예정금액은 약 4억2631만원으로, 전체 발행주식의 약 0.0053%에 해당한다. 소각 예정일은 지난달 30일이었다.

대우건설이 소각 대상으로 정한 주식은 2007년 유상감자 과정에서 발생한 단수주를 취득해 보유해 온 물량이다. HDC나 계룡건설과 달리 과거 자본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소규모 보유 주식을 정리하는 성격이 강하다.

건설사들의 잇따른 자사주 소각 결정에는 지난 3월 시행된 개정 상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개정 상법은 기업이 새로 취득한 자기주식을 원칙적으로 1년 이내에 소각하도록 하고, 기존에 보유한 자기주식에도 법 시행일부터 1년 6개월의 소각 기한을 부여했다.

이에 따라 상장사들은 기존 보유 자사주를 원칙적으로 2027년 9월까지 소각해야 한다. 다만 임직원 보상 등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으면 주주총회 승인을 거쳐 보유하거나 처분할 수 있다.

정부가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추진한 것은 기업이 보유 자사주를 경영권 방어 등에 활용하는 것을 제한하고 주주 권익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HDC 관계자는 “이번 자기주식 소각은 주주가치 제고 의지를 실천하기 위한 결정”이라며 “앞으로도 그룹 성장을 위한 전략적인 투자와 안정적인 주주환원의 균형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현진 기자 lhj@metroseoul.co.kr



30억 로또 청약 ‘디에이치 반포124’ 새 이름

서초 반포주공 재건축 단지명 확정
20~30억 시세차익에 시장관심 쏠려
일반분양 1832세대… 분양가 ‘주목’

다음달 분양 예정인 서울 서초구 반포동 반포주공 1단지1·2·4주구의 재건축 단지 이름이 기존 ‘디에이치 반포124’로 최종 결정됐다. 일반분양 물량만 1800세대가 넘는 데다 당첨만 되면 최소 20억~30억원의 시세차익 기대되면서 단지명 하나 바꾸는데도 시장의 관심이 쏠렸었다. 강남권의 경우 세금부담에 급매가 쌓이고 있지만 무주택자는 물론 1주택자 추첨물량이 300세대에 달하면서 매수 대기 수요가 디에이치 반포124 청약만 바라보고 있다고 할 정도다.

11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반포1·2·4주구 재건축조합은 지난 9일 총회를 열고 단지명을 기존 임시로 불렀던 ‘디에이치 클레스트’에서 ‘디에이치 반포124’로 바꾸기로 했다. ‘디에이치 반포 한강’을 비롯



서울 서초구 반포동 반포주공 1단지 1·2·4주구 재건축 ‘디에이치 반포124’ 공사현장.
/안상미 기자

해 기존 단지명인 ‘디에이치 클레스트’ 등 6개 최종 후보 가운데 58.78%의 지지를 얻었다.

디에이치 반포124는 조합원 공모에서 1위를 했던 명칭이다. 현대건설의 하이엔드 브랜드 ‘디에이치’에 지역명 ‘반포’, 기존 1·2·4주구의 상징성을 살려 ‘124’를 조합했다.

디에이치 반포124는 지상 최고 35층, 50개동, 총 5007세대 규모다. 교통과 학군,

생활인프라, 자연환경까지 어느 것 하나 빠질 것이 없는 입지다. 9호선 구반포역 바로 앞에 위치했으며, 4호선 동작역과 올림픽대로, 경부고속도로 모두 인접했다.

예상 분양 시기는 오는 11월로 예정 물량은 1832세대다. 특히 선호도가 높은 전용면적 84㎡가 70% 이상을 차지한다.

이제 예비 청약자들의 최대 관심사는 분양카다. 디에이치 반포124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다. 기존 분양가 상한제 최고가 단지는 작년 11월에 분양한 래미안 트리니원으로 3.3㎡(평)당 8484만원이었다. 그간 오른 공사비 등을 감안해 평당 9500만원으로 가정하면 전용 59㎡, 84㎡의 분양가는 각각 약 23억7000만원, 32억3000만원이다.

인근 ‘래미안 원베일리’는 전용 59㎡, 84㎡가 올 상반기에 각각 49억5000만원, 71억5000만원에 실거래를 신고했다. 래미안 트리니원의 입주권은 지난 8월 57억원에 거래된 바 있다.
/안상미 기자 smahn1@

캠코, 1조3666억 규모 압류자산 공매

오늘부터 14일까지 3485건 공매
부동산 감평가 70% 이하 물건 1761건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는 오는 12일부터 14일까지 양일간 온비드를 통해 1조3666억원 규모의 압류재산 3485건을 공매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공매 대상은 부동산산 3402건, 동산 83건이다. 임야 등 토지가 1831건으로 가

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또한 아파트, 주택 등 주거용 건물도 서울, 경기 등 수도권 소재 물건 456건을 포함해 총 825건이 공매된다. 특히 감평가 70% 이하인 물건도 1761건 포함한다.

압류재산 공매는 세무서 및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 세액 징수를 위해 압류한 재산을 캠코를 통해 매각하는 행정절차다.

공매 참여를 희망할 경우 온비드 또는 스마트온비드 앱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공매 입찰시에는 권리분석에 유의해야 하고, 입찰인에 대한 명도책임이 매수자에게 있으므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입찰 전 공부 열람, 현장 조사 등을 통해 입찰 희망 물건에 대해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는 것이 좋다.

공매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온비드 홈페이지 및 스마트온비드 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안승진기자 asj1231@

보금자리론 완화에도 신희부부 65% ‘무주택’

소득요건 완화 등 정책 지원 확대
6억 이하 주택·대출 부담 등 장벽

정부가 신희가구의 보금자리론 소득요건을 완화하며 지원 문턱을 낮췄지만, 집값과 자기자금 부담은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에 사는 신희부부 3쌍 중 2쌍은 주택을 소유하지 않았고, 전국 무주택 신희부부 가운데 금융권 대출을 보유한 비중은 83.9%에 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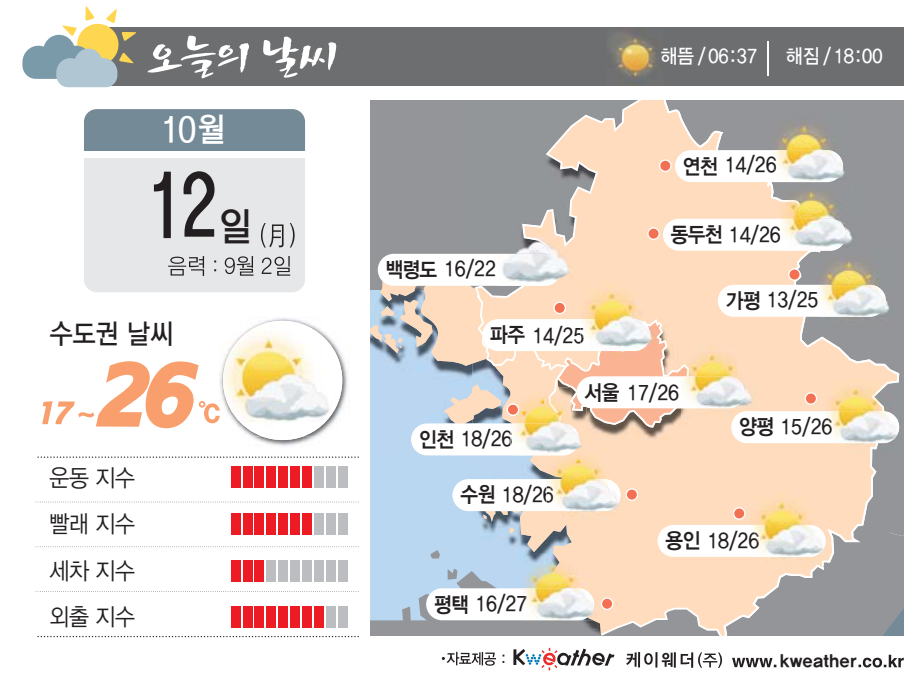
국가통계포털(KOSIS)의 2024년 신희부부통계를 보면 서울에 사는 신희부부 16만6163쌍 가운데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부부는 10만7284쌍이었다. 무주택비중이 64.6%인 셈이다.

무주택 부부도 상당수가 대출을 안고 있었다. 전국 주택 미소유 신희부부의 83.9%가 금융권 대출을 보유하고, 이들의 대출잔액 중앙값은 1억2489만원이었다.

신희부부의 주거 마련을 돕기 위한 정책 지원은 확대되고 있다. 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오는 19일 신규 신청부터 신희가구의 보금자리론 소득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현재 신희가구의 소득기준은 부부 합산 연소득 8500만원 이하이지만, 앞으로는 합산소득이 이를 넘더라도 부부 중 한 명의 연소득이 7000만원 이하라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소득요건이 완화돼도 대상 주택가격은 6억원 이하로 유지된다. KB부동산의 주택가격동향조사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의 주택 평균 매매가격은 11억5331만원, 수도권은 7억2947만원이었다. 대출을 이용할 수 있는 집을 찾아도 자기자금이 필요하다.

당장 매매가 어렵다면 전세자금대출이나 지방자치제도의 이자지원 제도를 비교해볼 수 있다.
/성채리 기자 cr56@



▲트럼프 “젤렌스키 전쟁 끝낼 수 있지만 안 해… 우크라 새 대통령 필요”

▲사우디-후티 공습격화… 리야드공항 폭격에 12명 죽고 309명 부상
/사진 뉴시스

▲美 법무부, 트럼프 취재 보이콧한 방송사 5곳 반독점 조사

▲에너지 휴전 논의하러 갔는데 美는 러 경유 제재 완화…우크라 “함정 같았다”

▲드론에 ‘러시아판 구글’ 안텍스 또 멈췄다…나홀로 데이터센터 세 번째 피격

▲라이 총통, 국경일 연설 키워드…‘산 위의 도시 건설·세상의 소금과 빛’



저가커피
원두품질로
차별화 승부
나



Life

한미약품 ‘에페’
국산 비만치료제
시대 연다
L2



다채로운 색 모여 하나의 ‘프레임’으로… K팝으로 뭉친 청춘



새벽을 여는 사람들

신예 보이그룹 프레임 더 엑스

어떤 계절은 어떤 청춘은 어떤 한 문장으로 표현되기도 한다. ‘여름이었다.’

푸른 5월, 프레임 더 엑스가 세상에 처음 올린 음악의 파동은 녹음이 질어지는 6월, 데뷔 무대 위 땀방울과 관객 환호에 뒤섞였다. 그리고 계절은 청춘은 단 한 번도 같은 문장으로 머물지 않는다. 살랑이는 바람으로 또는 길었다 짧아지는 낮의 그림자로 어느덧 성큼 다가온 가을 서늘한 공기로 계절은 매 순간 바뀐다. 하나의 정답이 아닌 서로 다른 청춘은 깊은 어울림으로 존재한다. 리더 아토의 유연함부터 막내 렌의 폭발력까지 서로 다른 좌표가 만나 세상에 없던 형태의 프레임을 형성한다. 신예 보이그룹 프레임 더 엑스(FRAME THE X)는 올해 5월 국내에서 하이브리드 댄스 팝 ‘노 엑싯(NO EXIT)’을 발매하며 6월에는 코리아넷 음악 프로그램 ‘심플리 케이 팝’에서 첫 데뷔 무대를 선보였다. 이들은 무더운 여름 속에서 일본 활동을 거쳐 하반기에는 남미 투어를 진행한다. 각 삶의 궤적을 그리는 청춘들이 캔버스에 저마다의 색을 그리는 서사가 계절과 함께 흐르고 있다.

‘코발트 블루’의 시작

모든 시작은 유연함에서 출발한다. 팀을 상징하는 색으로 ‘코발트 블루’를 꼽은 이들은 청량함과 신비로움 그리고 고착화된 틀을 깨부수는 자유로움을 품고 있다. 팀의 정체성을 묻는 첫 질문에 리더 아토와 반은 서로 다른 결의 매력을 내비쳤다. ‘새로운 음악이나 트렌드를 보면 심장이 먼저 뛴다’는 아토는 팀을 부드럽로우면서도 강하게 이끌고 있는 리더다. 그 결에는 진지함과 엉뚱함을 동시에 품은 반이 있다. 반은 소설이나 게임의 세계관에 매료되는 특유의 풍부한 감정의 소유자로 작사를 담당한다.

-프레임 더 엑스는 어떤 팀인가.

아토: 모든 재료를 함께 먹어야 맛있는 ‘비빔밥’ 같은 팀이다. 다른 성격과 배경을 가진 멤버지만 모였을 때 가장 완벽하다. **반:** 처음엔 불확실해 보여 물음표(?)일 수 있지만 알면 알수록 고개를 끄덕이게 되는 느낌표(!)가 되는 팀이다.

-데뷔곡 노 엑싯은 어떤 곡이며 어떻게 즐겨야 하는가.

반: 하드 록과 트랩 힙합비트가 결합된 하이브리드 댄스 팝 곡이다. 어두운 무대 위 핀조명 아래 붉은 가죽 재킷과 블랙 레더 스타일링으로 오프닝을 열면, 묵직한 베이스 라인 위로 매혹적인 도입부 보컬이 한순간에 몰입도를 높인다. 곡의 첫 부



왼쪽부터 로아(ROA), 리안(RIAN), 렌(LEN), 아토(ATO), 반(VVAN), 이온(I-ON).

/앤디와이 엔터테인먼트

5월 ‘노 엑싯’으로 데뷔한 보이그룹 하드 록·트랩 힙합 비트 댄스곡 선배 멤버별 서로 다른 매력으로 시너지 국적·환경 다르지만 K팝으로 화합

멤버 부재·변수 속 결속 단단해져 일본 활동 거쳐 하반기 남미투어도 글로벌 문화·팬과 소통하며 성장 발라드·힙합 등 다양한 장르 도전

분과 랩에서 감성을 쏟아내고 있다.

아토: 도입부부터 분위기가 점차 고조되다가 후렴구에서 에너지가 완전히 폭발하는 구간이 진짜 포인트다. 음원에는 없지만 무대와 뮤직비디오에서만 볼 수 있는 댄스 브레이크 세션이 있는데 비트와 퍼포먼스 모두 매력적이나 꼭 유심히 봐주셨으면 좋겠다.

렌: 클라이맥스로 넘어가기 직전의 연결 구간이 지나고 대형이 양옆으로 순간 갈라지면서 제가 중앙 전면을 향해 파워풀하게 돌진하는 구간을 제일 추천한다. 주변 공간이 확 열리며 팬들 앞으로 다가설 때 쾌감이 엄청나다. 가사 템포에 맞춰 손가락으로 ‘X’ 자를 그리거나 사각 프레

임을 만드는 핸드 제스처도 눈여겨볼 요소다.

이온: 곡의 마침표를 찍는 엔딩 제스처 파트를 가장 좋아한다. 마지막 한 박자에 맞춰 전원이 얼굴 앞에서 손가락 사각 프레임 만들어 시선을 고정하는데 무대의 화룡점정을 찍는 장면이다.

로아: 후렴구가 터지기 직전 관객들이 직관적으로 따라 부르기 쉽게 에너지를 끌어올리는 파트와 후렴 직전의 랩 구간은 힐링 포인트다. 함께 호흡할 수 있는 구간이라 들을 때마다 신이 난다.

서로를 묶는 에너지

첫 무대를 앞두고 중국인 멤버 이온이 비자 문제로 입국하지 못하는 등 예상치 못한 변수와 빈자리가 찾아왔다. 갑작스러운 걱정이 엄습할 때, 역설적이게도 멤버들의 결속력은 더욱 단단해졌다.

-멤버 부재 속 팀 분위기는 어땠나.

아토: 부재한 멤버들의 빈자리를 채워주는 것이 결국 서로를 위한 길이라고 생각했다. 밤을 새우며 동선을 재정비하고 서로를 믿으며 제 역할을 다해준 덕분에 무대를 무사히 마칠 수 있었다.

로아: 파트와 동선을 재배치하면서 ‘더 단단해져야 한다’고 서로를 다독였다.



프레임 더 엑스가 지난 8월 오사카 플러스원 홀 무대에 앞서 기념사진을 촬영을 하고 있다.

팀에서 긍정 비타민 역할을 하고 있는 로아는 아침 일찍 일어나 스트레칭과 운동으로 몸을 예열하는 부지런함으로 굳건한 중심을 잡았다.

-홀로 마음 졸였던 이온에게도 멤버들이 힘이 됐다.

이온: 모두가 정말 따뜻하게 품어줬다. 중국 속담에 ‘사람의 마음을 잡으려면 먼저 위(胃)를 잡아야 한다’는 말이 있다. 우리도 다 같이 맛있는 음식을 나누며 마음의 불안을 내려놓고 다시 하나가 될 수 있었다.

세대와 국경을 넘어서는 ‘우리들’

국적도 자라온 환경도 다르지만 K팝이라는 하나의 언어로 뭉쳤다. 지난 7월부터 일본 대형 음반·서적 복합 매장 HMV&BOOKS 시부야 이벤트, 오타 문화의 숲 홀 라이브, 나고야 지역라디오(MID-FM) 생방송 등에 이어 도쿄·나고야·오사카를 아우르는 재팬 라이브 투어 2026 여덟까지 쉽 없이 내달렸다. 누구나 찾아올 수 있는 무료 공연도 꾸며 진입장벽을 낮췄고 팬들의 질문에 직접 답하는 ‘가르쳐줘 포켓!’, 클럽 연출이 더해진 ‘클럽 데이’, 교복 차림으로 교감하는 ‘스쿨 콘서트’ 등 특별 기획으로 현지 팬들과 거리를 좁혔다. 막내 렌의 경우 어머니가 일본인이라는 인연으로 글로벌 현지 문화와 팬들에게 더 가깝게 다가간다.

-일본 활동 중 가슴 깊이 남은 에피소드가 있다면.

아토: 일본 특유의 ‘최애(오시·推し) 문화’를 체험할 수 있었다. 매번 다른 주제의 여러 현장에서 남녀노소 다양한 팬분들을 마주했다. 특히 손을 잡고 공연장을 찾아주신 가족 단위 팬분들이 많았는데 아이가 응원봉을 흔들고 어른이 노래를 같이 불러주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렌: ‘노 엑싯’ 하이라이트 훅이 터질 때 관객들과 눈을 맞추며 전면으로 돌진하는

그 순간의 소름은 평생 잊혀지지 않을 것이다. 무엇보다 곡이 끝나고 멤버 전원이 손으로 프레임을 만드는 시그니처 포즈를 취할 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가 됐다는 희열이 느껴진다.

끊임없이 나아갈 약속

이제 계절은 가을로 접어들고 이들의 시선은 도미니카, 과테말라, 코스타리카 등 남미로 향한다. 한국어, 중국어, 영어, 일본어를 넘어 스페인어와 프랑스어까지 독학하며 여러 팬들과 소통하고 싶다는 욕심도 내본다.

한편 프레임 더 엑스는 새로운 멤버 ‘이랑’의 합류 소식을 알리며 팀의 새로운 변화와 확장을 예고했다. 멤버 ‘리안’ 역시 대학 입시 준비라는 학업 일정으로 당분간 활동을 쉬어가지만 이들이 함께 만들 어갈 프레임은 비움과 채움을 반복하며 한층 단단해지고 있다.

-앞으로 어떤 팀으로 남고 싶나.

로아: 장르에 갇히고 싶지 않다. 발라드부터 힙합까지 도전하며 다 보여드리겠다.

이온: 1년, 10년이 지나도 초심을 잃지 않는 그룹이 되겠다.

반: 언제나 집처럼 편안하게 머물 수 있는 음악을 하면서 조금씩 계속 발전해 나가겠다.

어떤 계절은 지난 뒤에야 비로소 그들이 명확해진다. 봄의 설렘과 여름의 열기를 지나 온 ‘프레임 더 엑스’의 시간이 그러하듯 지나온 날들은 청춘이라는 단어 하나로 전부 담아낼 수 없을 만큼 무수하게 많은 노력과 진심으로 가득 차 있다. ‘프레임 더 엑스’의 청춘은 가보지 않은 길을 두려워하지 않고 스스로를 그리고 있어 다가올 모든 계절 속에서 더욱 넓게 확장될 것이다.

/이청하 기자

mlee236@metroseoul.co.kr



메트로 한줄뉴스



▲모레노호 다녀온 구성윤 “좋지만은 않은 분위기…중간 역할 필요”
▲키움, 재정비 위해 선수단 정리 단행…박주성·심희윤 등 8명 방출
/사진 뉴시스

▲K리그1 꼴찌 광주, 난적 울산 4-3 제압…29경기 만에 승리
▲노벨문학상 앤 카슨, 서점가 돌풍…교보 판매량 203.9배 ↑

▲파리서 펼쳐진 K-헤리티지…참가자 1만 명 몰렸다
▲가을빛 물드는 한국…단풍 절정, 수도권 10월 말·남부 11월